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KINU 연구총서 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 박영자 | 이희영 | 최은영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연구책임자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영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영(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은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지원

홍예선(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KINU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KINU 연구총서 23-19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저자	조정아, 박영자, 이희영, 최은영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SBN	979-11-6589-164-0 93340
가격	10,500원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7

Chapter I

서론 13

1. 연구 목적 및 내용 15
2. 연구 방법 20

Chapter II

국가가 호명하는 청년: 청년정책과 청년상 27

1.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 29
2. 공간문헌에 나타난 청년상 42
3. 소셜 속 집단 갈등과 '국가-개인'의 변주 49

Chapter III

북한 청년의 생애사 ————— 61

1. 엘리트의 길을 따라 해외로 파견된 청년들: 사례 11, 사례 9 ————— 63
2. 개인사업을 한 고학력 엘리트 여성들: 사례 8, 사례 10 ————— 75
3. 밥벌이에 청춘을 바친 ‘준마처녀’: 사례 16 ————— 89
4. 농어촌에서 태어나 생계를 책임지며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청년들:
사례 4, 사례 2, 사례 6 ————— 102
5. 더 편하고 전망 좋은 사업을 계획하던 사진현상공: 사례 14 ————— 117
6. 결혼해서 ‘부양’으로 지내다 상점을 낸 기혼 여성: 사례 15 ————— 127

Chapter IV

북한 청년의 가족, 학교, 직업 세계 ————— 137

1. 부모의 기대와 자녀교육 ————— 139
2. 청년들의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 147
3. 무상교육의 붕괴와 차별화된 학교경험 ————— 163
4. 일터와 노동 ————— 189

Chapter V

논의 및 결론 ————— 211

참고문헌 ————— 230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37

〈표 Ⅰ-1〉 심층면담 대상자 인적사항	22
〈표 Ⅰ-2〉 심층면담 대상자 성별 분포	23
〈표 Ⅰ-3〉 심층면담 대상자 연령별 분포	23
〈표 Ⅰ-4〉 심층면담 대상자 거주지역별 분포	23
〈표 Ⅰ-5〉 심층면담 대상자 탈북 연도별 분포	23
〈표 Ⅰ-6〉 청년용 질문지	24
〈표 Ⅰ-7〉 기성세대용 질문지	25
〈표 Ⅱ-1〉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38
〈표 V-1〉 가구별 부의 인덱스	22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 특히 청년기 경험과 행위 지향,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북한 청년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동맹 담화문, 노동신문, 북한 문학작품 분석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청년정책의 특징과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청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20대와 30대 탈북 청년들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을 부모의 기대와 자녀 교육,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학교경험과 진로, 일터와 노동이라는 네 가지 주요 삶의 영역과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자신의 생존과 삶의 진로를 국가에 의탁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북한의 청년들에게 개인의 삶과 진로의 기획은 이제 국가가 아닌 독립된 개인과 가족의 몫이 되었다. 둘째, 청년들은 국가와 당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과 태도를 지닌다. 청년들의 마음에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마음과 자기자신을 중심에 놓는 마음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일치하고 때로는 충돌한다. 이들은 기성세대처럼 당과 국가에 무조건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거나 때로는 형식적인 복종에 그치며, 그럼

으로써 국가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셋째, 경제난과 시장화로 인한 ‘모빌리티의 대전환’은 북한 청년들의 지리적 이동 가능성과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거주지역, 젠더,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넷째, 북한의 청년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열어가고 동시에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성세대가 생존을 위한 비법행위로 북한식 시장경제를 태동시킨 세대라면, 현재 북한의 청년들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는 교육과 정보화 환경의 발전을 통해 취득한 정보화 능력과 불법적인 외국 영상물 시청으로 길러진 문화적 감각을 착장한 채 시장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세대이다.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특징이 개인의 선택권 확대, 불평등 감소,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견인하며 사회적 개혁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개혁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체제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권력의 통제로 이러한 수행이 체제 변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재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기치 못한 외부 상황이나 사회 변동이 발생할 때 청년세대의 특성이 체제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주제어: 북한 청년, 북한 청년정책, 생애경험, 구술생애사



North Korean Youth in the Kim, Jong-un Era: Navigating Between Compliance and Independence, Traversing the State and Market Boundaries

Cho, Jeong-ah et al.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f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youth during the Kim, Jong-un era, focusing particularly on their experiences and behavioral orientations during their youth, as well as the meanings they attribute to these experiences from their perspectives. The goal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youth that distinguish them from previous generations. The study analyzes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youth policies and the ideal image of youth pursu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by analyzing Kim, Jong-un's statements to the youth league, Rodong Sinmun, and North Korean literary works.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s the life stories of youth defectors in their 20's and 30's, examines the lif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youth in four major areas and themes and based on the analysis: parental expectations and child education, gender relations and

sexuality, school experiences and career paths, and workplace and labor. This analysis is conducted to gain insights int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youth in these important aspects of life.

Based on the analysis, North Korean youth exhibit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s in four aspects. Firstly, unlike the previous generations that relied on the state for their survival and life path, North Korean youth now see personal life planning as the responsibility of independent individuals and families rather than the state. Secondly, the youth hold dual thoughts and attitudes towards the country and the ruling party. In the minds of the youth, there is a contradictory coexistence of internalizing state ideology and placing oneself at the center, leading to occasional alignment and conflict between them. They, unlike the older generations, do not blindly dedicate themselves and show allegiance to the party and the state. Instead, they tend to conform for personal gains or occasionally pretend to be obeying as a mere formality, thereby constantly keeping the state tense. Thirdly, the 'Mobility Turn' due to economic hardships and marketization significantly affects North Korean youth's possibility of geographical mobility and social class mobility. The impact is unevenly manifested based on residence, gender, and social stratum. Fourthly, North Korean youth actively explore their career paths in the grey areas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through various practices, while at the same time, creating new life trajectories within the North Korean society. While

the older generation initiated a North Korean-style market economy as a survival strategy, the current generation of North Korean youth is exploring new domains of marketization; it has developed a set of information skills obtained through the progress in education which pursues the 'nurturing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talent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under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economic reforms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has cultivated cultural sensibility through the consumption of illegal foreign media.

Regarding the prospects of social change in the North Korean society, one can anticipate the potential for social reforms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serve as the driver of the expansion of individual choices, reduction of inequality,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se measures could lead to social reforms. However, even if such social reforms take place,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they will translate into political system changes. Various practices by the youth are being made on multiple fronts, but due to the control exerted by state power, these actions are more likely to contribute to regime reproduction rather than triggering systemic changes. Nevertheless, it is crucial not to overlook the possibilit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nger generation could serve as a catalyst for regime change in unforeseen external circumstances or during periods of societal upheaval.

Keywords: North Korean youth, North Korean youth policies, Life experience, Oral life history

I. 서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 특히 청년기 경험과 행위 지향,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로써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북한 청년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노동신문 2021.8.20.)이라고 호명하면서 청년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사상의식 오염과 비사회주의적 행위 및 문화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상의식 통제와 비사회주의 행동 단속, 각종 노력동원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93년 청년동맹 제8차 대회 이후 23년 만인 2016년에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에는 제10차 대회를 개최하여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제기하고, 청년동맹의 역할로 집단주의 사상, 사회주의 신념 교양을 강조하였다.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외부문화 유포·모방 등 비사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있다. 최근 경제제재와 코로

나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탄원운동을 본격화하였으며, 2022년 말에 개최된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이후 수도권건설 등 각종 건설사업에 청년 동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출산율 감소, 시장화 확산, 외부문화 유입, 정보화 확대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청년세대의 의식, 정체성, 감성, 행동양식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전후에 출생하여 시장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성장한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들은 ‘장마당 세대’라고 명명되며, 향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북한의 청년세대는 한편으로는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의 통치기반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의 주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가성을 지닌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장화 확대, 정보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 북한 청년들의 생활과 경험, 의식, 세대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울리케 유라이트(U. Jureit)와 미하엘 빌트(M. Wildt)에 따르면 세대는 정체성의 개념이자 경험의 개념이자 행위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울리케 유라이트·미하엘 빌트 엮음·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2014, 15-16). 세대는 연령대 특유의 체험층위에 기반을 둔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사건들과 삶의 내용들을 하나의 동일한 의식 층위로부터 인지하고 해석하며, 개인적·집단적 인지 및 해석의 기본 구조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들로 귀결된다. 세대는 특정한 연령집단의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연령집단과의 서로 다른 체험과 행위지향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이다.(울리케 유라이트·미하엘 빌트 엮음·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2014, 16)

전통적으로 세대 연구는 계량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북한 연구의 특성상 북한의 세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엄밀한 계량적 접

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북한의 청년세대를 다룬 주요 선행연구들은 역사적·문화적 경험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카를 만하임(K. Mannheim)의 세대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의 청년세대를 구분 짓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이후 시장화가 진행된 시기에 성장기를 보내거나 태어난 연령집단인 청년들을 ‘새로운 세대’, ‘새 세대’, ‘장마당 세대’라 명명하고 있다. 북한의 청년세대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 조정아 외의 연구에서는 1984-1997년 출생자(현재 26-39세)를, 김성경 외의 연구에서는 1979-1994년 출생자(현재 29-44세)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조정아 외 2013, 4; 김성경 외 2015, 31). 두 연구 모두 세대를 구분하는 역사적 사건을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으로 보고, 이 시기에 영유아기 또는 학령기를 경험한 집단을 고찰하였으며, 1980년대 출생 집단과 1990년대 출생 집단 간의 생애경험과 의식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성경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집단을 사회주의적 문화와 외래문화 사이, 국가와 시장 사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적극적 행위 주체와 수동적 군중 사이에 양가적으로 존재하는 ‘사이세대’라고 분석하였다(김성경 외 2015, 182).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북한의 청년세대에 대한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세대를 특정 시기에 출생한 연령집단으로 특정하기보다는 현재 기준 20대와 30대(1984-2003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다양한 연령의 사례를 추수하고 귀납적인 방식으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생애경험과 특성의 차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경제난 시기에 학령기 또는 영유아기를 보냈거나 경제난 이후에 태어난 연령집단이다. 이 중 30대 초반 이하 연령인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은 경제난 이전 배급체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던 때에 대한 기억이 없고 경제난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도 희미한 집단이다. 이 중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는 김정은 집권기에 학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출생자는 교육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0년대 중반에 학교교육을 받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10년 전에 수행되었던 조정아 외(2013)의 연구 대상 집단과 거의 동일한 연령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세대경험과 특성에 대한 조정아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연령대인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물질과 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세대이다. 또한 비정치적 세대이며 외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세대이다.(조정아 외 2013, 325-327) 이 연구는 이로부터 10년 후 20대에서 30대가 되어 사회에 진출한 북한 청년들의 모습을 고찰한다.

II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후 노동신문과 소설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정권의 청년정책과 청년상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청년동맹대회 등 주요 정치행사를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주요 담화문과 언론에 드러난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청년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청년상을 분석하고, 청년들이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다르게 또는 동일하게 재현되며 호명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청년들의 진로와 돈에 대한 태도 및 연애 양상, 국가의 욕망 대 개인의 욕망, 신문명과 청년 삶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을 통해 북한 정권이 원하는 청년상과 소설 속 청년들의 모습과 갈등 양상도 분석하였다. 이로써 국가가 호명하는 청년 이미지와 현실을 구성하는 청년들 모습 간의 간극과 충돌, 접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과 특성을 잘 보여주는 생애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는 북한 청년들의 개별적인 주관적 경험에 대한 고찰이자 1990년대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청년들의 삶을 관통하는 북한 사회의 변동에 관한 고찰이다.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의 다양성을 드러내고자 계층, 지역,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생애사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대 청년세대의 새로운 성장기 경험 또는 청년기 경험은 무엇이고 결여된 경험은 무엇인지, 특히 2000년대 이후 사회 변동과 김정은 집권기의 사회환경 및 정책 변화가 청년들의 생애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여 생애사를 서술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생애사 사례에서 드러나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을 부모의 기대와 자녀교육,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학교경험과 진로, 일터와 노동이라는 네 가지 주요한 삶의 영역 및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부모의 기대와 자녀교육’ 주제와 관련해서는 성분과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모세대의 가정교육과 자녀에 대한 기대·지원 양상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차적 사회화 양상을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고찰하였다. 둘째,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주제와 관련해서는 소비문화 확산과 외부 영상물의 유입, 휴대전화 등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물질적 요소의 등장 등의 환경에서 청년들의 연애 양상, 변화하는 젠더관계, 성과 결혼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셋째, ‘학교경험과 진로’ 주제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이후 시장화, 외부정보 유입 등의 사회적 변화와 김정은 집권기 교육과정 개혁과 교육정보화, 교육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생태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청년들의 지역·계층별로 차별화된 학교경험과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넷째, ‘일터와

노동' 주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2000년대 이후 시장화, 정보화, 계층격차 확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어떤 경로로 직업 세계에 첫발을 들이는지, 기성세대와는 다른 어떤 자원과 전략을 가지고 직업경력을 쌓고 진로를 모색해가는지를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청년들의 경험에 관한 앞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청년들의 특성을 국가의 기획에서 독립된 개인과 가족의 인생기획, 국가와 개인의 정치사상적 긴장, 불균등한 모빌리티,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수행을 통한 진로 개척이라는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이러한 청년세대의 특성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갖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II장은 박영자가 집필하였고 III장, IV장, V장은 조정아, 이희영, 최은영이 공동집필하였다.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및 향후 북한 사회 변동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정과제 94번 “남북과제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추진에 기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주역이 될 남북한 통합과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청년층과 주민들의 상호작용 양상과 갈등 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행위와 경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둔 질적 연구 방법, 특히 구술생애사를 통해 북한 청년들의 경험과 의식,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

구 과정에서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한 20-30대 탈북청년 17명과 50-60대 탈북민 3명에 대한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는 대신 탈북이라는 흔치 않은 시도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북한의 청년과 기성세대의 ‘보편적’ 또는 ‘전형적’ 삶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질적연구에서 다루는 개별 사례는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사회에 관한 모종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표 성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개별 사례를 통한 사회적 징후 읽기가 가능한 것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애사는 사적인 동시에 사회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조정아 2008, 263) 특정한 사회의 개인과 해당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낸 창발적 구성물인 생애사는 개인과 사회, 내부와 외부를 통합하는 매개물이다.^{1/} 생애사연구는 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불가분적 구성물인 생애사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특정한 개인의 삶의 이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를 재구성한다(이희영, 2005, 130). 질적 연구에서 다루는 개별 사례는 개인의 생애사가 사적인 동시에 사회적 성격을 띠며,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특정 조건에서 포착되는 ‘구체적 일반성’을 재현하고 있다.^{2/} 이 연구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사례의 ‘대표성’이나 ‘전형성’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구체적 일반성’에 주목하며, ‘이례적 정상’과^{3/} 주변적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숨겨진 실재의 ‘실마리’(카를로 진즈부르그·카를로 폰니 저·김정하 외 역 2007, 18)를 찾고자 하였다.

1/ Fischer Rosenthal 1996, 149(이희영 2005, 130 재인용).

2/ Fischer Rosenthal 1996, 31(이희영 2005, 132 재인용).

3/ 에도아르도 그랜디(E. Grandi)가 제시한 ‘이례적 정상’ 개념은 전형성과 반복성을 표준성의 기준으로 보는 통상적인 관점과는 달리, 특이하거나 이례적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종종 실재의 어떤 측면을 잘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곽차섭 편·최재호 외 역 2007, 292).

이 연구에서는 2018년 이후 탈북한 20-30대 청년과 기성세대 총 2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계층, 거주지역(대도시/농촌, 접경지역/내륙지역),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도록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탈북한 탈북민이 매우 소수인 상황이지만, 최대한 최근 탈북민을 연구대상자로 확보하여 제한적이거나 최근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면담 대상자 인적사항과 면담일시, 주요 집단별 면담인원은 <표 I-1>-<표 I-5>와 같다.

표 I-1 심층면담 대상자 인적사항

코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탈북연도	북한 직업	면담일시
사례 1	여	20대	양강도 시 지역	2018	학생	3.29.
사례 2	남	20대	강원도 군 지역	2021	노동자/수산업	3.31.
사례 3	남	20대	양강도 시 지역	2019	전문직	4.2.
사례 4	남	20대	평안남도 시 지역	2021	군인	4.6.
사례 5	여	50대	양강도 시 지역	2018	상인	4.8., 4.29.
사례 6	남	20대	평안북도 군 지역	2020	군인	4.9.
사례 7	여	30대	평안남도 시 지역	2019	노동자	4.15.
사례 8	여	30대	함경북도 시 지역/ 평양시	2019	자영업	4.15.
사례 9	남	30대	평양시	2021	전문직	4.18.
사례 10	여	30대	평안북도 시 지역	2019	무역회사 지도원	4.21.
사례 11	남	30대	평양시	2022	군인	4.22.
사례 12	여	30대	특별시 지역	2018	서비스직	4.26.
사례 13	남	30대	평양시/ 양강도 시 지역	2019	군인	4.29.
사례 14	여	20대	함경북도 시 지역	2019	서비스직	5.13.
사례 15	여	30대	자강도 시 지역	2019	상인	5.15.
사례 16	여	30대	평안북도 시 지역	2019	노동자	7.4.
사례 17	남	30대	함경북도 시 지역/ 평양시	2019	자영업	7.6.
사례 18	여	60대	함경북도 시 지역	2019	주부	7.7., 7.31.
사례 19	남	50대	함경남도 시 지역	2019	전문직	7.12.
사례 20	여	20대	함경북도 시 지역	2018	노동자/장사	7.28.

표 1-2 심층면담 대상자 성별 분포

(단위: 명)

남성	여성
9	11

표 1-3 심층면담 대상자 연령별 분포

(단위: 명)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50대	60대
4	3	6	4	2	1

표 1-4 심층면담 대상자 거주지역별 분포

(단위: 명)

평양시	특별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3	1	2	3	1	5	1	3	1

표 1-5 심층면담 대상자 탈북 연도별 분포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	11	1	3	1

심층면담 대상자는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과 접촉하여 소개받거나 연구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소개받았다. 소개자들을 통해 면담 희망 의사를 밝힌 면담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고 조사 참가의사를 타진하였다. 통일연구원의 생명윤리심의를 거치고 면담 대상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밟은 후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외부 회의공간에서 2-3시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사례에 따라 2회 면담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

면담 대상자의 생애사와 생애경험에 관한 큰 질문을 던진 후 면담 대상자의 구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1-6 청년용 질문지

-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셔서 현재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고향과 어린 시절에 관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부모 형제 등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소학교, 중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등 학교생활 중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대학교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북한에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노력하거나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학교 졸업 이후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학교 졸업 후 군대에 가셨다면 군대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공식적인 직업 이외에 시장 활동/부업 등 경제활동을 하셨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이성친구를 사귀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결혼이나 동거 경험이 있다면 결혼/동거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교나 직장에서 경험한 조직생활이나 정치활동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친구관계 등 본인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무엇을 함께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는지 말씀해주세요.
- 무엇을 하며 여가를 즐겼는지 말씀해주세요.
- 자신의 세대가 윗세대나 아래 세대, 부모님 세대나 자녀 세대와 본인 세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탈북 동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중국 또는 제3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에 입국한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의 청년들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을 말씀해주세요.
-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표 1-7 기성세대용 질문지

-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셔서 현재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북한에서의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교육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본인의 학교교육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교 졸업 이후 하셨던 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북한에 계실 때 청년세대가 자신의 세대(기성세대)와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어떤 점 때문입니까?
- 탈북 동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중국 또는 제3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에 입국한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현재 자녀가 북한에 있다면 자녀가 어떤 진로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남한의 청년들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을 말씀해주세요.
-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면담 내용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을 읽으면서 면담 대상자의 생애사례를 재구성하고, 전체 면담 대상자의 생애사례를 비교하면서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을 추적하였다. 또한 생애사에 기초하여 면담 내용을 재해석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범주화 및 주제별 코딩을 실시한 후, 주제별 코딩 내용을 비교분석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고 중심 주제와 주제별 해석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추가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심층면담을 실시하거나 전화로 간단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진 간에 일상적 연락과 주기적인 회의로 각자가 수행한 생애사례의 특징과 이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였다. 생애사 서술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한 생애사례에 대한 초고를 집필하고, 이를 공동 검토를 거쳐 유형별로 분류한 후 다른 연구자가 정리하는 방식의 교차 글쓰

기를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 집필 과정에서 구술자 상황을 고려하여 신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지역명, 기관명 등은 비공개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북한 당국의 청년정책과 담론, 국가가 재현하는 청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신문 등 공간문헌과 최근 제정된 청년통제 관련 법,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된 문학작품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주요 청년동맹대회 담화문과 청년정책 관련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청년정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북한 예술작품은 국가 정책 선전과 주민 교양의 목적을 지니는 동시에 동시대의 감성과 경험을 반영하는 매체적 특성을 지니므로(조정아 외 2019, 23), 김정은 시대에 출간된 『조선문학』(작가동맹 기관지), 『문학신문』에 수록된 소설 등 문학작품에 나타난 청년상을 파악하고, 청년에 대한 국가의 호명과 실제 사회의 재현 사이의 미세한 균열 징후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II. 국가가 호명하는 청년: 청년정책과 청년상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가가 호명하는 청년: 청년정책과 청년상

이 장에서는 노동신문과 『조선문학』 등 북한의 공식간행 문헌과 신설 법령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특징과 흐름을 살펴본다. 또한 북한 당국의 공식 정책과 의지를 선전하는 노동신문에서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청년상을 분석하고, 북한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청년상과 진로, 돈, 연애 등과 관련된 청년들의 태도, 의식 변화와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을 살펴본다.

1.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

가. 김정은 시대 청년정책의 특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일관된 청년중시 기조에 따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말 김정일 사망 후 1984년생인 20대 청년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옹립되었다. 집권 초기 김정은은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고위직 엘리트들을 숙청·교체하고 통치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청년중시, 인민중시 정책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변화 흐름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자신 역시 청년인 김정은에

게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했다.

북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왕성한 활동력을 지닌 청년들을 관리하는 것은 북한체제 안정과 장기집권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청년들을 견인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양면의 청년 정책을 실시하면서 청년들 속에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려 하였다. 대표적 당근 정책으로 청년층의 간부 등용 확대와 위락시설 개발 및 소비문화 촉진 정책을 들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청년 중시 담론을 전개하며, 부패한 기존 간부들을 비판하고 이삼십 대 젊은 간부들의 등용을 추진하면서 세대교체를 시도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변화 요구와 소비 욕망에 조응하여 일반적인 ‘문명국가 건설’ 담론을 전개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위락시설을 개발하고 소비문화를 촉진하였다. 이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활기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군대, 청년동맹 등에서의 사상사업 및 조직사업 강화, ‘비사회주의 검열’ 등의 검열 강화와 법 제정을 통한 통제 등의 채찍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4/} 2023년 현재 “사회주의애국 청년동맹”으로 명명되는 청년동맹은 노동당 당원과 여타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의 만 1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모든 청년 및 학생층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는 북한 최대의 사회단체이다. 현재 청년동맹원 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4/ 현시기 북한 당국이 중요시하는 사상개조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의 사상개조는 “하나의 심각한 혁명,” “복잡하고 장기성을 띠는 것만큼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기성과 집중성 중시이다. 둘째,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사상개조 사업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라는 통제의 논리이다. 셋째,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 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 것”이란 의식개조 중시이다. 넷째, “혁명적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격개조 중시이다. 다섯째, 이와 함께 영웅 모델들을 창출하여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노동신문 2023.5.2.)

검색일: 2023.5.31.) 김정은 집권 이후 두 차례 열린 청년동맹대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규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조직적 통제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대와 건설현장에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건설에 청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법·제도적으로는 청년들을 주요한 대상으로 겨냥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을 제정하여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함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청년정책과 청년모델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간행물에서 북한의 ‘청년중시’ 기조는 김정은 정권의 “영원한 전략적 로선”이라며, 5대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그것은 첫째, 청년교양거점인 <청년운동사적관> 건설을 통한 ‘청년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청년교육 강화이다. 둘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활동과 그들 주도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사업의 성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강한 청년모델’ 구축이다. 셋째, 청년조직 강화이다. 넷째, 모든 사업 분야에서 청년중시 관철이다. 다섯째, <청년미풍선구자대회>,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청년들 사이에 모범 창출 및 사회주의경쟁운동 강화이다.(최은옥 2019, 7-22)

나. 청년동맹대회에 나타난 청년정책의 흐름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이 본격화된 시기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2016.5.6.-5.9.) 이후이다. 이 대회에서는 3대 세습의 계승성 측면에서 김정은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김정은이 북한의 미래와 세대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청년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문명강국’과 ‘청년강국’을 강조하였다.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두 차례 청년동맹대회를 거치며 김정은 시기 청년

정책이 구체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 이어 2016년 8월에 제9차 청년동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김일성 집권기인 1993년 2월에 개최된 제8차 청년동맹대회 이후 23년 만에 열린 청년 대회로, 대중적 지지를 중시하는 김정은의 통치술이 반영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김정일주의’를 추가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통치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청년동맹대회 연설에서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주체의 청년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동맹 조직과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노동신문 2016.8.29.).

제9차 청년동맹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 북한의 500만 청년동맹원들에게 요구한 청년정책의 핵심 기조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이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청년정책은 첫째, 사상교양 강화이다. 그 방법으로는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며”, “사상교양사업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 하거나 판에 박은 식으로 하는 편향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청년들의 특성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하며, “청년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청춘의 열정이 용솨음치게 하는 진실하고 실효가 큰 교양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노동신문 2016.8.29.). 둘째,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 활동 강화이다. 청년동맹대회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

대, 돌격대”가 되어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서 결사대”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노동신문 2016.8.29.). 셋째, 사회주의 생산운동과 대중운동, 과학기술강국건설, 문명강국건설 등에서 청년들의 주도성 확보이다. 김정은은 “만리마속도창조의 격전장들은 피끓는 청년들의 활무대”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생산목표 달성에 청년들이 매진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그 방법으로 “선군청년해불상쟁취운동, 청년돌격대운동” 등의 청년대중운동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과 경험교환운동” 등을 강조하였다(노동신문 2016.8.29.). 또한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선구자, 개척자”,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문명강국건설의 선봉대”가 되고, 나아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함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년동맹 조직 내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생활총화를 주도하는 동맹초급조직들을 강화하고, 청년동맹 간부들을 잘 육성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노동신문 2016.8.29.) 넷째,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조이다.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북한 당국은 청년들에게 김정은 시대가 본격화되었고, 그 리더십에 충성하라는 서사를 전개하며, 명칭을 개정해 김정은의 청년정책을 실행하는 청년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이후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은 북한체제 발전에서 청년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다. 8차 당대회 이후인 2021년 4월에 김정은이 참석한 제10차 청년동맹대회를 개최하여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재변경하였다. 국제적 협상과 대결의 대격돌을 준비하며 애국과 헌신이 깊게 새겨진 북한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소환한 것이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제기하고, 청년동맹의 역

할로 집단주의 사상, 사회주의 신념 교양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붉은 전위대오, 강철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제일기수가 되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돌격투사가 되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데 참답게 이바지해야 한다.”(노동신문 2021.4.30.)라고 하면서 북한체제의 지속과 발전에 청년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이 제10차 청년동맹대회에 보낸 서한(2021.4.29.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집권 10년 차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운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10차 청년동맹대회에서는 “청년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논의의 배경은 우선, 지난 5년간 청년사업의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나어린 소년들이 청년대오에 들어서고 어제날의 애젊은 청년들이 사회의 주력으로 성장”하였다면서 김정은 자신의 성장과 청년동맹원의 세대교체를 동일시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향후 5년의 성과를 도출해 “앞으로 15년 안팎”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다는 전망이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노동신문 2021.4.30.) 이는 김정은 정권이 2035년을 기점으로 미국과의 단판승부를 준비하는데, 그 기간 군대와 경제·사회 건설의 주력부대인 청년들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둘째, 8차 당대회 결과와 연동되어 전 분야에서 모든 청년을 소위 “사회주의 신념을 간직한 애국청년”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청년동맹대회에서는 현시기 청년동맹의 기본 임무를 북한의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애국청

년으로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청년동맹 주도의 대대적인 청년쇄신 작업과 그 모범 창출을 요구하였다(노동신문 2021.4.30.). 특히 사상개조사업을 중시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 김정은은 “지금의 청년세대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나서 자라다보니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함과 표상이 부족하며 지어 일부 잘못된 인식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이에 사회주의 우월성 교양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 집단주의 사상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노동신문 2021.4.30.)

또한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도록 하고 있다. “1950년대, 1960년대 청년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간고분투의 노력으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라며 한국전쟁과 전후 건설 시기인 천리마시대의 국가재건 담론을 소환하였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척결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며, “자본주의사상,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요소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청년들이 사회주의 신념을 지니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모든 청년을 “사회주의 건설투쟁의 돌격대”로 내세워 “사회주의 건설자”로 양성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탄원”하도록 조직화하는 사업과 과학기술발전과 조국보위사업에서 청년 주도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노동신문 2021.4.30.)

셋째, 청년들 사이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투쟁’과 조직적 통제·규율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흐리게 하는 위험한 독소”로 규정하고,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투쟁을 미래를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청년들 속에 악성종양과도

같은 반동적 사상문화의 해독성과 후과를 명백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심리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침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말끔히 장악하며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노동신문 2021.4.30.)

넷째, 청년동맹의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규율 확립,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내부 교양체계 운영 및 5대 교양사업 심화, 사상·의식수준과 감정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양방법 적용, 청년 교양에 정보기술 수단을 적극 활용, 생활총화 등 동맹 활동 강화 등을 제시한다. 특히 청년동맹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조직적 통제를 싫어하는 청년들이 위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말려든다면 “조직생활유리자, 미소속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급선무로 내세우고 있다.(노동신문 2021.4.30.)

다. 청년 중심 법제도 강화

김정은 정권의 청년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보수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과 2021년 8차 당대회 후 북한은 ‘자력갱생+첨단전략무기 개발’ 전략에 따라 청년세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대적 청년 동원과 함께 청년들의 동원 스트레스 가중, 민생고 심화와 함께 청년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 확산, 김정은과 주민 사이의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 가중, 대대적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검열’에 따른 불만, 생존을 위해 저항 대신 탈출을 꿈꾸는 다양한 일탈 현상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더욱 보수적인 정책과 제도로 청년들의 행동과 말을 규율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국방

력 강화와 대외 대결의식 강화 전략하에서 유연한 청년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 신설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이다.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청년들 사이에 관심이 높은 해외와 한국의 정보를 차단하고, 변화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의식을 개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에서는 국경을 경유하는 인적·물적 교류, 출판선전물, 외국 대표단 면담 등 대외사업,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적지물’ 등을 ‘반동사상문화’ 유입의 경로로 적시하고, 이를 감독·통제하고 전면 차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반동사상문화’ 시청·유포·재현 금지조항으로 컴퓨터와 저장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시청, 복사 및 인쇄, 휴대전화를 통한 시청 및 유포, 적지물 습득 및 시청,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 판매, 압수 출판선전물 시청 및 유포, 성녹화물 시청 및 재현, 미신 전파, 상영금지된 출판선전물 시청 및 유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도 단순 벌금부터 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부모가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물을 시청·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제26조)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2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37조)하고 있다(SPN 서울평양뉴스 2023.3.22.).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외부문화 유포나 모방 등 비사회주의적·비도덕적 행동을 통제하는 법적 기반을 공고화하였다. 이 법의 제5조에서는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교대자,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라고 호

명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전통무장, 사회주의 애국주의구현, 반세계급의식무장, 고상한 도덕기풍, 조국 보위, 맡은 임무에 대한 헌신성, 주체성과 민족성 등 청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법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법 제6-13조). 또한 청년들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주의 새 문명 창조’에서도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 제27-36조에서는 청년교양사업에서 학교, 가정, 사회의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5/}

흥미로운 점은 이 법의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의 내용이다. <표 II-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년교양보장법」에서 명시하는 금지사항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행위와 불순 선전물 유입·유포 등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명시되었던 위법행위뿐 아니라, 군사복무 기피, 무직건달과 조직생활 이탈, 이혼·조혼·사실혼, 외국 노래나 춤, 이색적인 말투,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의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II-1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p>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p> <p>청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2. 성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 3. 종교와 미신행위 4. 불순출판선전물을 유입, 제작, 복사, 보관, 유포, 시청하는 행위 5.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 6.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개인재산을 략취하는 행위
--

5/ 국가정보원 2022, 『북한법령집 上, 下』, 이하 북한 법령의 출처는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명칭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외한 후 ‘법령명’과 해당 조문(필요시)만 표기하였다.

7. 구타, 폭행, 패싸움을 비롯한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8. 끼리끼리 밀려다니거나 패를 맞는 행위
9. 가정사정과 신병을 구실로 군사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조훈, 신체검사와 생활평정을 부당하게 받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도주하는 것과 같은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하거나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행위
10. 무직건달을 부리거나 조직생활에서 리탈되어 떠돌아다니는 행위
11. 우리 나라 노래를 외국하여 부르거나 우리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12.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13. 리훈, 조훈을 하거나 사실혼생활을 하는 행위
14.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15. 저속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확립에 장애를 주는 행위
16. 그밖에 공화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2023년 1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였다(이하 동법의 조항은 SPN 서울평양뉴스 2023.6.20. 참조). 동법 제1조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을 “괴뢰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여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괴뢰말투”는 남한 말투를 의미한다. 이 법 제정의 목적이 북한 청년들의 언어생활에 자리 잡은 한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소위 ‘북한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개조’라는 기초하에 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일상문화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사상과 문화,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에 젖어드는 것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박영자 2023b, 39).

이 법은 2021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서 청년들에게 금지하는 행위인 남한식 말투 사용과 유포행위를 65조에 달하는 매우 상세한 법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들, 특히 청년

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언어생활에서의 남한식 말투를 비롯한 남한 문화의 유입이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의 제18조에서 제30조까지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다양한 위법행위가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19조(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 금지)에서는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서 부르는 행위”를 금하고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무》라는 부름말만을 써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탈북청년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연애문화가 유행하면서 “오빠”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고, 상업과 외화벌이가 발전하면서 “지배인동지” 대신 “지배인님”, “사장님” 등의 호칭 사용이 확산되었다고 한다(박영자 2023b, 39). 동법 제22조(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금지)에서는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는 한국 드라마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는 말투를 “괴뢰식 억양”으로 규정하고, 절도 있고 단정적인 ‘군대식 억양’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이 법에는 “괴뢰식어휘표현을 본따는 행위”(제20조), “괴뢰서체, 괴뢰철자법을 사용하는 행위”(제21조), “괴뢰식이름짓기”(제23조),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그림, 족자의 제작, 류포”(제24조), “손전화기, 컴퓨터망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제25조),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밀매, 사용”(제26조),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물, 인쇄물의 류포”(제27조), “문건작성에서 괴뢰말투 사용”(제28조), “봉사활동^{6/}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제29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 특히 일부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6/ 봉사활동은 광고, 상품진열 등 상품판매를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상냥한 서울 말투, 한국식 이름이나 애칭, 줄임말, 남한식 글쓰기와 컴퓨터, 휴대전화를 통한 남한 말투 확산을 규제하려는 조항들이다. 이 법의 제29조(봉사활동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금지)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가격표, 차림표, 안내표, 광고를 게시하거나 상품을 진열해놓고 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는 대중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한 상업 분야에서 한국식 언어가 유행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법에서는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 제도의 운명과 후대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규정하고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제5조). 또한 제5장(법적 책임, 제59조-64조)에서는 한국식 말투 사용죄, 유포죄, 벌금, 노동교양, 담당자들의 해임·철직 등, 폐업, 몰수 등 한국식 언어생활에 대한 강력한 법적 통제와 다양한 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남한 말투를 사용·유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벌금에서부터 무기노동교화형과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남한식 말투로 말하거나 문자,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남한 말이나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편집물 등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교화형에 처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유포자는 더욱 형량이 세서 남한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거나 편집물 등을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교화형에 처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청년들이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부모들에 대해 직장과 인민반 등에 통보하고 망신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이 이외에도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회안전기관 등에서 “자료폭로 및 군중투쟁모임, 공개체포, 공개재판, 공개처형 등 공개투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또한

이 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교양, 선전·선동, 규율과 통제의 수단을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조항들은 북한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생활문화 변화 실패와 함께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박영자 2023b, 39).

2. 공간문헌에 나타난 청년상

가. 노동신문에 나타난 청년상

1) 정권 안정화와 체제보위를 책임지며, ‘헌신하는 청년’

집권 초기 통치체제와 엘리트 진영을 정비한 김정은 정권은 제9차 청년동맹대회를 기점으로, 정권 안정화에 기여하는 청년상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청년상과 수행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해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이다. 둘째, ‘백두산영웅청년 돌격대’와 같은, 생산영역의 속도전을 구현하는 청년 노력 영웅이다. 셋째, “20살 꽃나이에 ‘처녀어머니’가 되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며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 것을 청춘의 값높은 영예로, 보람으로 여기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이다. 넷째, 선군청년화불상쟁취운동, 청년돌격대 활동,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통해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모범을 보인 3대혁명기수들이다.(노동신문 2016.8.29.) 이와 같은 청년상은 김정일 시대 청년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에 비해 제10차 청년동맹대회 이후 부각되고 있는 청년 모델은 1950-1960년대 천리마 노력영웅이다. 즉, 김일성 시대 전후복구 건설의 삶을 청년들이 재현해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젯더미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군 선배들의 모범 계승, 집단주의 사상성과 전통 복원, 수령의 영도하에 천리마작업반 운동을 모범적으로 이끈 길확실영웅 따라 배우기,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 등이 강조되고 있다(노동신문 2021.4.30.).

한편, 대외적 긴장고조와 북한의 도발이 증대한 최근에 북한의 공식담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청년상의 핵심 키워드는 ‘헌신과 애국’이다. 주요 특징과 구체적인 수행모델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들의 헌신성을 내세운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여성의 모델로 소개된 장정화 영웅의 사례가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2016년 이후 부각된 청년 미풍선구자의 전형인 장정화는 “처녀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 7명의 아이들을 맡아키우고 있는” 모범 청년으로, 김정일청년영예수상자이다.(노동신문 2023.5.2.) 특류영예군인처녀의 배우자를 자처한 어느 한 공장의 설계원 청년(노동신문 2023.5.2.)도 이와 유사한 ‘헌신과 애국’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사상개조사업에 앞장서는 청년들의 모습도 강조되고 있다(노동신문 2023.5.4.). 각급 학교와 기업소 및 당·국가기구에서 청년행사를 조직하여 대외·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데 앞장서는 청년들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는 북한 각지에서 소위 “미제와 괴뢰역적폐당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과 전시 가요대렬합창행진”이 진행되었다고 보도되었다(노동신문 2023.3.24.).

2) 국가의 호명을 받고 탄원하는 청년들

남북관계의 긴장과 북한의 국방력 강화 정책이 고도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최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부각시키고 있는 청년상 중 하나는 ‘탄원하는 청년들’이다. 북한 당국은 당이 원하는 힘지에 탄원하고 자원진출하는 청년들(노동신문 2023.5.2.), 군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 건설사업 동원에 자발적으로 탄원하는 청년돌격대 대학생 등 당의 부름에 응답하여 각종 동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힘지에 탄원하는 인물들에 대해 “당의 부름에 화답하는 청년들”이라고 칭송하고 있다(노동신문 2023.5.4.). 북한 전 지역에서 청년 140만여 명이 조선인민군 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는 유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의 고급중학교 졸업생 수십만 명의 군입대 탄원과 이미 군대를 다녀온 근로청년들의 재입대 탄원은 “애국청년들의 필승의 맹세”라는 언론매체를 통한 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노동신문 2023.3.24.).

청년들의 탄원 행사는 군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설돌격대’, ‘농촌돌격대’와 관련 분야의 탄원사업도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에 대한 대학 졸업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에서는 힘지인 최전연지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산골, 섬마을, 농촌학교 등에 탄원하는 청년들을 “당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청년전위”라고 칭송하고 있다(노동신문 2023.4.13.).

현재 북한의 청년 탄원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북한 전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대대적 탄원흐름은 일종의 ‘정치적 행사’이다. 탄원한 청년들 모두가 탄원한 지역이나 군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부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청년들을 영웅시하고 독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북한 청년들

의 애국심과 집단주의 사상을 향상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북한 당국이 주도한 대대적 탄원사업은 역으로 그만큼 북한 청년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험지와 군대로 가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군대, 농촌, 건설 등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험지에 청년 노동력 동원이 용이하였다면, 이러한 대대적 탄원행사를 할 필요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박영자 2023a, 40-43)

나. 문학에 형상화된 청년상

북한의 문학은 노동당의 정책을 구체적인 인물과 주제로 형상화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선전기제이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중시하는 북한의 소설은 수많은 난관과 갈등 속에서도 당과 수령의 뜻에 따라 살았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수사학과 기본 서사구조를 갖는다.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들, 사람들 간의 갈등과 갈등해결을 다룬 소설은 북한 정권이 구현하고자 하는 인물상을 형상화한다. 청년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묘사하면서 현시기 북한의 사회갈등과 청년들 내면의 미묘한 변화를 탐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소설은 시대를 반영하기에 북한의 정권과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와 사람의 변화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 인민을 중시하는 청년지도자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소설 속 청년상은 김정은 형상화와 연계되어 인민을 중시하는 청년지도자 모델로 드러난다. 대표적인 소설들에서 김정은 수령형상을 통해 3대 세습권력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과 6·25전쟁의 투사

라는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면, 아버지 김정일은 주로 문학예술을 통한 선동선전과 선군정치를 통한 장군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강성 이미지로 표현되었다면, 김정은은 인민들을 사랑하는 친근한 최고자라는 연성 이미지로 부각되었다.(김성수 2012, 421)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애민지도자라는 전 세대 이미지의 지속성과 함께 노후한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김정은 시대 초기 문학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세습의 정통성을 형상화한다. 아버지 대의 권위를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인민과 청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추진하는 젊은 최고지도자 모델이 부각된다. 2013년부터 김정은의 품모를 형상화한 소설이 창작되었다.(김성수 2013, 413-421) 대부분 작품의 서사는 김일성, 김정일 수령형상 문학의 서사와 동일하다.

대표적 작품으로 김영희의 「붉은 감」(『문학신문』 2013. 11.)은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에피소드를 통해 김정일의 권위와 선군정치의 현지도 방식을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재현한다는 내용으로 3대 세습의 정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대를 현지도하면서 ‘감나무 중대’라는 명칭의 배경이 된 ‘최명옥’이라는 동명의 3인이 세대를 넘어서 각각 근무한 적이 있다는 기이한 인연을 소개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와 관련지음으로써 3대 세습 후계구도의 정통성을 ‘운명적 필연’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표면적 주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처럼 인민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펼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이다. 그런데 서사의 무게중심은 후계 구도의 운명적 필연만이 아니다. 주목할 점은 선군담론과 할아버지-아버지의 권위에 편승한 후계의 필연성에 숨겨진 지점이다.(김성수 2014, 501) 즉 젊은 처녀병사들이 서로 장군님과 사진을 찍

했다고 어울리는 편안함과 어깨에 손을 얹는 친숙함의 묘사 등이 새로운 청년지도자 김정은 수령형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이다. 이처럼 새로운 청년 지도자는 자기만의 독자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구축한다. 선대와 같은 통치의 경력과 투쟁·혁명·건설 관련 업적이 적어도 인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지점이 바로 생물학적 ‘젊음’에서 나온 미래 담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지닌 친근함과 청년·아동들을 향한 ‘미래 이미지’는 대중이 최고지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청년과 아동들을 통해 미래를 기약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젊음은 김정은만의 차별화 전략이기에 문학이 일종의 정치적 상징 신화로 작동한다. 한편 김정은이 선대 수령만큼의 통치 경력과 전쟁경험, 군 통수권 수행 경험 등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장군형 지도자’ 이미지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항일빨치산 이미지와 아버지의 선군장군 이미지를 모방하고 재연하되, 자기만의 개성을 위해 더 깊숙한 최전선까지 시찰하고 그곳 주민의 어린애를 안고 웃는 ‘친근한 청년 장군’ 이미지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김성수 2014, 489-504)

2) ‘만리마·천리마 기수’와 청년과학기술자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2016년 이후 북한 소설에 나타난 전형적인 청년모델은 과학기술자이다. 대표적으로 ‘만리마 기수’, ‘과학기술 룡마 탄 컴퓨터 처녀’ 등으로 형상화되었다. 이 소설들은 특히 21세기에 출생하고 성장한 청년과 아동 세대들의 꿈과 희망을 독려하는 소설들로, 선진국의 기술·자본의 도움 없이 자력갱생으로 핵무력을 완성하고 ‘인공위성’을 제작하며 성공적인 발사 실험으로 우주비행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미래비전이 주인공 청년들을

통해 제시된다. 또한 이전 시기 소설과 달리,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단순히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몰두하는 영웅이 아니라 남녀 간 사랑에 눈뜬 영웅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각 소설에는 청년남녀의 사랑과 과학기술 문제 관련 갈등이 부각된다.

대표적 소설인 조훈일의 단편소설 「흰눈처녀」(『조선문학』 2020.1.)에는 처녀 과학자 현아와 30대 박사인 화자 사이의 밀고 당기는 애정전선이 형상화되어 있다. ‘흰눈처녀’라는 별명이 있는 현아는 김책공업대학 학생이다. 화자는 현아의 동창생으로, 현아에게서 프로그램 설계 관련 도움을 받아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학의 금속공학부 연구원으로 합작 연구 실험 중 유독성 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한다. 그 사고 과정에서 화자인 ‘나’는 현아의 희생에 감동한다. 화자는 현아의 자료 덕에 연구에 성공하고 둘은 금속공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러한 서사구조가 이전과 다른 점은 남녀 간의 애정과 국가가 요구하는 과학기술 성과의 결합지점들이다.

또한 여성 청년의 부각과 함께 과학기술자 모델을 결합한 작품들도 많이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만리마 기수’와 과학기술이라는 ‘룡마를 탄 컴퓨터 처녀’의 결합이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를 대표했던 ‘천리마 기수’가 김정은식으로 소환된 것이다(김성수 2022, 240). 북한의 청년문학에 ‘만리마 시대, 만리마 속도, 만리마 기수’가 문학 속 청년 이미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김정은 시대 청년상으로 형상화되었다.

3. 소설 속 집단 갈등과 ‘국가-개인’의 변주

김정은 시대 북한 소설에 드러난 북한주민 내 집단별 특징은 주로 젠더와 세대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먼저 젠더 측면을 살펴보면, 청년남성은 ‘청년’으로 표현되고, 청년여성은 ‘처녀’로 표현되는 젠더불평등적 시각이 전체 문학에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청년은 “흰눈처녀,” “컴퓨터처녀”라고 명명된다. 세대 갈등 측면에서는 충성심과 선군사상은 있으나 전문기술이 부족한 선배 노동자와 달리, 김정은 시대 청년영웅은 자국산 기계를 창안하는 기술력을 겸비하고 ‘사상, 문화, 기술’이라는 3대 혁명을 완성하는 인물로 묘사된다(김성수 2022, 254). 즉, 기술력과 정신개조의 품성이 결합된 청년상이 제시된다.

가. 세대와 계층 갈등

북한에서 청년을 주제로 한 소설이 증가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청년을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 때문이지만, 그 배경은 ‘물질주의’,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신세대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이다. 북한의 청년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소설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을까? 먼저 세대와 계층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청년들에 관한 소설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리희찬의 장편소설 『단풍은 락업이 아니다』(2018)는 두 가정의 청년을 중심으로 세대와 계층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갈등의 한 축으로 설정된 중상층 생활을 하는 가정은 엘리트 출신인 제약공장 지배인 홍유철과 약국장인 그의 아내 진순영, 아들 홍경식으로 구성된다. 또 다른 축으로 중하층 생활을 하는 가정은 지배인

홍유철의 운전사 최국락과 그의 아내 의사 오순, 그리고 그의 딸 최기옥으로 구성된다. 소설에서는 계층적 위계가 존재하는 두 가정의 청년세대인 홍경식과 최기옥의 신세대다운 물질주의적 특징과 함께 자유로운 연애감정이 그려진다. 전체적으로 이 소설에서는 부모세대와 자식 세대의 세대 간 갈등, 대학 진학 문제, 지배인 집안과 운전사 집안의 계층적 갈등, 자본주의적 욕망과 연애 담론 등이 묘사되어 있다.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부모세대의 삶에 비해,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통성과 자유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 외에도 중상층 생활을 하는 지배인 아들의 대학 진학 문제를 둘러싼 북한 엘리트층의 교육열, 청년들의 사랑과 우정, 사람의 인격에 따라 달라지는 돈의 양면성과 긍정적 가치, 국가가 원하는 청년모델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교육문제 관련 갈등, 일상적으로 야근을 해야 하는 노동의 양상,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북한 사회의 모습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북한 사회의 현실이 묘사되어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소설은 홍남수가 집필한 「세대의 임무」(『조선문학』 2015.11.)이다. 이 소설은 북한의 부모세대와 자식 세대의 농촌생활에 대한 인식 차이와 계승성을 전형화하였다.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에 바라는 ‘진취적인 기상’에 대한 요구가 잘 드러나 있다. 후대들이 사적 즐거움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함을 개인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녀 세대를 걱정하는 주인공 응일의 아버지를 통해 강조하는 작품이다.

“아버지는 농장에서든 별로 눈에 띄이지 않던, 이를테면 농사짓는 것을 평생 락으로 여기던 평범한 농민에 불과했던 것이다. 농사 일은 아버지의 한생의 전부였고 그것은 어떤 다른것에 비길수 없는 더없는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아버지는 한생 그렇게 살았다. 하지

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남모르는 자기의 주견이 항상 맥박치고 있었다. 《응일아,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하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건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또 채찍질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가 자각해야 되는 일이다.》 아버지를 추억할 때면 언제나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곤 하는 해처럼 이 말이 언제나 먼저 생각나곤 한다.” (홍남수 2015, 55)

위의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아버지 세대의 헌신성을 본받으면서도 지식형 인간으로서 기술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신세대의 임무라는 것이다. 핵심적 서사를 살펴보면, 자신이 맡은 일은 충실히 하지만 여가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즐겁게 보내려는 주인공 응일이 공익을 위한 헌신과 배움을 강조하는 아버지와 동료 청년의 태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각성하는 내용이다.

“나의 모든 생각은 리기적이고 천박했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 타매할 일이 아닐수 없었다...그것은 도피였고 리기심이였다. 전세대들이 마련해놓은 밑천을 갹아먹는 벌레가 되자는 것이였다. 그래 나같은 벌레가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홍남수 2015, 64)

“이제는 너희들 세대가 이 벌의 주인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 또 너희네 다음 세대가 여기서 살며 주인이 될게다. 넌 그들에게 이 들판에 무엇을 새겨야 하는가를 배워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또 다음 세대의 인생길을 올바르게 잡아줄수 있다. 오늘과 래일! 세대의 임무!” (홍남수 2015, 65)

자유로운 개인의 삶과 즐거움을 중시했던 화자가 공공의 이익과 공적인 가치가 개인적 욕구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성하

는 과정을 형상화하였다. 응일의 각성은 다음과 같이 두 측면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아버지를 통해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술혁신을 주도한 동년배 청년을 통해서이다.

“그래 오늘 이렇게 놀고나니 무슨 생각이 드냐? 후날에 오늘이 추억될 것 같냐?...물론 한토막의 추억은 될게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속에는 영원히 남아있는 추억은 되지 못하게다. 난 너희들이 장기도 두고 천렵놀이를 하는게 싫어서가 아니다. 하지만 눈앞의 생활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너희들은 앞으로 농장의 주인이 될 사람들인데 더 많이 사색하고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냐?” (홍남수 2015, 58)

“탈곡기를 연구한 청년은 나와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외형도 별로 특징적인데가 없어보였다. 나는 여러날 거기서 지내면서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모든 면에서 나와 확실히 달랐다. 뭉니뭉니해도 그는 자기라는 사고를 하지 않았다. 집단속에 자기를 세우고 사색하고 집단의 리익에서 자기의 일거리와 기쁨을 찾는 청년이었다. 그앞에서 나는 부끄러웠다. 눈곱재기만 한 지식을 가지고 자존심을 운운한 나 자신이 동시대 인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홍남수 2015, 63)

이 작품의 서사를 살펴보면, 사회적 변화에 조용하기보다는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의 계승을 중시하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강제적 양상의 훈육과 교양의 중시는 북한 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위계를 확인하게 한다.

나.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욕망

북한 소설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갈등 구조는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욕망’이다. 정치권력의 선전도구로서 교육적 성격이 강한 북한 소설의 특성상 갈등의 결말은 국가의 요구로 귀속된다. 그럼에도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까지 전개되는 개인의 욕망이 김정은 시대 북한 소설에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속에서 북한 청년들의 삶과 갈등 그리고 국가의 위계적 욕망을 확인할 수 있다.

렘예성의 「사랑하노라」(『조선문학』 2018.3.)에는 화자인 주인공 유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세계일등주의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거기에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동지적 관계의 연애 담론이 펼쳐진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용품인 파마약을 소재로 한 기술혁신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이색적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갈등을 넘어선 화합, 핵무력과 첨단전략무기 개발을 중시하는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 인재강국 정책이 형상화되어 있다.

“지금 우리 파마약은 다른 나라의 것과 대등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전 우리가 목표를 좀더 높여 그들의 것을 능가하는 세계제일의 파마약을 만들 것을 제기합니다. ... 이날 우리의 《화성》이 영원한 푸름 행성을 선언하며 날아올랐다. 온 세계가 법석 떠들고 있었다. 《조선의 핵이 부럽다!》 그들은 핵이 없어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인가? 아니, 100프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했다는 것이 그들을 놀하게 한 것이다. 최대의 속도로 내려쳐오르는 조선의 위력이 그들을 놀래운 것이다.” (렘예성 2018, 50)

이 소설은 언제나 일등생 꿈을 꾸었던 화자 홍유정과 동창 김정인의 일화를 통해 ‘조국의 운명’을 향한 사랑과 과학자의 실천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오태호 2020, 324). 또 사랑과 경쟁의 동지적 관

계가 잘 묘사되어 있다. 내용 전개를 보면 여주인공 유정처럼 1등에 대한 고집이 북한 내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주인공인 정인처럼 최고 수준의 기술과 문명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세계 1등을 지향하는 ‘과학기술자의 꿈’이어야 함이 강조된다(오태호 2020, 324). 거기에는 북한식의 진정한 사랑, 사랑과 경쟁을 통한 화합과 발전이라는 남녀 간의 동지적 관계가 놓여 있다.

“그 사람(김정인)이 바라보는 푸른 하늘, 우리의 《화성》이 날아간 아득한 우주의 끝에 닿아있는 그 사람의 시선에서 나(홍유정)는 세계의 첫 자리를 향해 눈부시게 내려쳐오르고 있는 내 조국의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람이었구나. ...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 밤길을 갈 때, 새벽길을 갈 때 언제나 함께 가고 싶었던, 언제나 의지하고 믿고 싶은 강하고 훌륭한 사람! 망막을 꽉 채우며 점점 커지는 그의 모습을 향해 나는 떨리는 걸음을 내짚었다.” (렘예성 2018, 50)

위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현재 북한 국가의 욕망은 자력갱생에 의한 세계 일등을 향하고 있다. 한편, 남녀 간의 동지적 사랑이 여전히 남성 우위와 여성의 인정이라는 위계적 젠더관계로 설정되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과 유사하게 청년들의 사랑과 국가의 요구를 연결한 작품으로 오광철의 「보습산」(『조선문학』 2015.2.)이 있다. 이 소설은 북한의 ‘광명성 3호기’ 발사(2012.12.12.) 성공을 배경으로 북한 청년 남녀의 사랑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오태호 2018, 165). 예전에 농민들이 불모지로 버림받은 땅을 갈아엎으려 했던 이야기가 일화로 제시되면서, 돌격대 젊은 기사장인 리명훈과 후방사업을 하는 김혜선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쟁운동’과 동지적 연대

를 결합하여 실현하는 청년상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청년들에게 수행모델을 제시하는 이는 아버지이다.

“《혜선아, 수천길 지하막장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영웅이나 자기가 맡아 기르던 한 마리의 소를 구원하고자 사품치는 물속에 자기 몸을 내던 농민영웅이나 놓고 보면 다 자기의 하루하루를 후회없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설사 자기앞에 닥친 오늘의 일이 죽음으로 해내야 할 일이라고 해도 피하지 않았거던. 난 설사 달구지를 끄는 일이라고 해도 그들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가장 훌륭하게 해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내 말을 리해하겠니?》혜선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채 머리를 끄덕였다.” (오광철 2015, 45-46)

이 소설에서는 보습산 동굴에서 확인하는 청춘 남녀의 가슴 떨리는 사랑에 국가의 욕망, 즉 김정은 정권이 중시하는 국방력과 과학기술발전 담론이 결합되어 있다. 우주와 인공위성을 상징으로 한 청춘남녀들의 갈등과 미래를 향한 투쟁·건설의 의지로 갈등을 해소하는 청춘남녀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년들로 하여금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려는 주제 의식에 기초한 청년소설을 살펴보자. 김정은 정권의 세계일등주의와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잘 형상화된 대표적 작품으로 서청송의 「기폭에 빛나는 별」(『조선문학』 2019.1.)이 있다. 전체 줄거리는 부상으로 더는 체육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주인공 리창혁이 체육인들이 세계일등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료품을 만드는 이야기이다. 전개 과정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는 어머니와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맥락적으로 연결되며, 김정은의 체육인 사랑이 부각된다. 이로써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고조되는 청년상을 그리고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 밥을 덜어주며 훈련으로 떠밀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명의 체육선수를 먹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던 어머니, 그래도 자식의 꿈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고생을 락으로 삼던 어머니였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의 어깨에는 온 나라 가정을 돌보셔야 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이 실려있는가. 자신께서는 한덩이 쥬기밥을 드시며 전선길과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체육인들을 위해, 이 나라 아들딸들을 위해 자신의 고생은 락으로 삼으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 아니신가.” (서청송 2019, 13)

다. 신(新)문명과 청년 삶의 변화

김정은 정권 집권 후 이전 시기보다 북한의 일상생활 속 물질문명 수준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화 보급이다.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북한의 소설에도 새로운 문명을 사용하며 생활의 변화를 보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서청송의 「영원할 나의 수업」(『조선문학』 2014.6.)에서는 컴퓨터 수재이며 우수 교원인 주인공 명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연인과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현대적인 일상이 그려진다.

북한식 청년 우수 교원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청년들이 다양한 기능을 습득하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북한이 인재강국이 될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주인공 명수는 험지에 위치한 학교에 가서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빠르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명수는 단지 사회주의적 신념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성취욕을 지닌 욕망형 청년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그 학교 교장인 리송직은 전통적인 인물이다. 당의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강국 건설’을 위해 명수를 초빙했으나, 실제 그에게 축구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일등을 할 것을 강제한다.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드러나나, 명수는 다양한 분

야에 참가하라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다방면의 인재가 되려고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전개된다.

긍정적으로 보면 노력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청년 교사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교장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위계적 상황은 북한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담고 있다(오탈호 2018, 163). 예를 들어, 교장 송직이 명수에게 하는 “우리 교원들이 분과 초를 쪼개가며 그이(김정은)의 높은 뜻을 따르지 못할망정 한 시간도 아니고 석 달, 2년씩 타공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내 조국의 시간이 그만큼 멈춰서지 않겠소. 난 그것이 가슴이 아프오. 우리야 미래를 키우는 원예사들이 아니요.”(서청송 2014, 64)라는 식의 훈계에는 수령과 선대의 욕망을 구현해야 하는 청년들의 노고가 드러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연애하는 명수와 설경이 휴대전화 ‘손전화통보문’(문자)으로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진다.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는 명수가 연인 설경의 휴대용 컴퓨터에 “사랑합니다. 강명수”라는 글자를 영상, 음악과 함께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묘사는 정보통신매체가 북한 청년남녀의 연애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어느날 명수는 설경이가 자리를 뜬 사이에 그의 휴대용컴퓨터에다가 자기 심정을 담은 글을 새겼다. 《사랑합니다. 강명수》명수는 그것을 다매체화해놓고 설경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것도 모르는 설경이 컴퓨터를 펼쳐보다가 그 다매체화면 앞에서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경치좋은 숲을 배경으로 큼직큼직하게 새겨지는 명수의 고백은 처녀의 심장을 쿵쿵 두드렸다.” (서청송 2014, 65)

21세기 북한 소설에서 청년들의 사랑은 전통적인 동지애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선전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지만, 남녀 간의 애뜻한 연애 감정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의 인용 문구에서 “명수의 고백은 처녀의 심장을 쿵쿵 두들겼다.”라고 표현했듯이 정보화 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최근 북한 청년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오태호 2018, 164).

다음으로 ‘나노치술’ 국산화에 노력하는 주인공과 신세대의 연애담론을 다룬 엄호삼의 「꽃피는 시절에」(『조선문학』 2012.12.)도 주목할 만하다. 칫솔 개발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은 일용품공장 칫솔직장 현장기사인 리주경의 ‘최첨단 돌파’ 이야기이다(오태호 2013, 181). 경공업대학 졸업생인 주경의 아버지는 대학교수이고 어머니는 피복공장 부지배인이다. 주경은 청년 남성들의 이상적인 배우자감이자 기성세대가 선호하는 며느릿감으로 그려진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첫 월급을 탄 주경은 퇴근길에 아버지께 ‘나노치술’을 사드리려고 한다. 주경이 잇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 드릴 ‘수입제 치술’을 사려고 하자 ‘일용품연구소 연구사’이자 대학동창인 성민은 실망감을 표현한다. 결국 주경은 ‘수입제 나노치술’ 대신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불소치약’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게 된다. 그러면서 주경은 성민의 비판을 수용하고 반성하면서 “일용공업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식의 나노치술’ 개발을 결심한다.

“공장기술과에 배치된 후 자기는 그저 별로 어렵지 않은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니 자기 만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다나니 대학때의 탐구적 열정이 서서히 식어버린 것이다. 자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엄호삼 2012, 67)

이러한 자기비판과 함께 대학동창인 성민과의 경쟁과 갈등 과정에서 성장하며 사랑도 이루는 주경의 모습이 김정은 시대의 사회주의 청년상으로 그려진다. 결국 최첨단 문명국가를 이루기 위해 청년들이 교만과 안주가 아니라 치열한 자기반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지적 결합도 가능성을 강조한다.

Ⅲ. 북한 청년의 생애사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 청년의 생애사

이 장에서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과 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생애사 사례를 살펴본다.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의 다양성을 드러내려고 연령대, 계층, 지역, 성별, 직업 등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과 생애경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생애사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를 엘리트 계층 남성, 고학력 엘리트 여성, 여성 노동자, 농어촌 남성 청년, 중하층 계층 출신으로 공식·비공식 시장경제 영역에서 활동한 여성 청년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본다.

1. 엘리트의 길을 따라 해외로 파견된 청년들: 사례 11, 사례 9

가. ‘고난의 행군을 모르고 지난’ 당 간부 집안의 둘째 아들

사례 11은 1980년대 말 지방 당 간부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같은 직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부모님은 중매로 결혼하여 평생 사회활동을 하였다. 평양 출생인 어머니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여 평양으로 보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다. 대다수 가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급한 성격을 드러내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서 맞춰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다. 구술자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아침이 되면 부모님은 직장으로 출근하고, 사례 11은 형과 함께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낸 사례 11은 1990년대 중반, 중학생이 된 형의 보호와 안내를 받으며 인민학교⁷⁾에 입학하였다. 늦은 시간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님은 저녁을 먹은 후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공부를 검열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장남인 형은 무조건 1등을 해서 최고로 잘돼야 한다는 집안 분위기가 있었다. 사례 11은 상대적으로 “곱다곱다고만 하는” 대우를 받았지만, 생활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 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인민학교 시절 사례 11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학 소조, 축구 소조 활동을 하는 등 우등생으로 생활하였다. 사례 11이 인민학교에 다니던 시기에 ‘고난의 행군’으로 주변에 “진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모두 다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지만, 부모님의 안정적인 직장 덕분에 실제로는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갔다.

중학교⁸⁾ 진학을 앞두고 사례 11은 부모님의 지도에 따라 외국어학원⁹⁾을 선택하였다. 각 지역의 제1중학교와 외국어학원에 평양 소재 대학의 본고사를 볼 수 있는 입시할당(일명 ‘뽀뜨’)이 배정되므로 부모님은 아들이 평양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것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7/ 인민학교는 현재 북한 학제에서 소학교에 해당하는 초등교육기관이다. 북한은 2002년에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인민학교에서 소학교로 변경하였다. 이하의 생애사례에서는 현재의 교육기관 명칭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가 학교 재학 당시에 사용했던 교육기관 명칭대로 표기하였다.

8/ ‘중학교’는 현재 북한 학제에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통합된 형태의 중등교육기관이다.

9/ 외국어학원은 한국의 외국어 분야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중등교육기관이다.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강요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들한테. 그때 어릴 때라도 “1고등 가겠나, 외국어학원 가겠나?” 물어봐서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 일반중학교는 절대 못 가고, 거기는 가야 한다.” 해서, 저도 생각하기에. 그때는 어리고 했으니까, 저 북한에서는 외국에 대한 로망이 크거든요. 해외 나가질 못하니까 한 번 나가보는 게 소원이고. 외국어학원 하면... 그때 생각하면 외국어 하면 해외 나가 살 거 같고 그래서 그때 외국어학원 가겠다고.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거기 가겠다 하니까 “그래, 거기 가자.” 해서. (사례 11 구술녹취록, 8)

평소 어머니가 두 아들의 학교생활과 성적을 챙기면서 ‘평양의 대학’에 가도록 독려하였고, 사례 11은 해외 생활을 꿈꾸며 외국어학원에 지원하였다.

1990년대 말, 6년 과정의 외국어학원에 입학한 사례 11은 ‘모범생’으로 지냈다. 형은 대학생이 되어 평양에서 생활하고, 4학년이 된 사례 11은 친구들도 사귀고 제기차기, 말타기, 철봉 평행봉 등을 하며 놀거나 공원에 가거나 보트를 타러 다니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한국 드라마를 빌려 집에서 보는 것이 다반사였다.

중학교 시절 봄 모내기철이나 가을 농번기에는 15일 정도 농촌지원을 나가서 친구들과 합숙생활을 했다. 당시 사례 11의 학급이 정부의 야영권을 받는 모범학급에 뽑혀 일주일 동안 야영장에서 신나게 먹고 자고 놀고 오기도 하였다. 한 학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한 여학생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등의 관계가 생기기도 했다.

평양 출신인 사례 11의 어머니는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크게 경험하면서 “자식들은 무조건 평양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버

지도 “너희들은 무조건 중앙대학 가고, 무조건 평양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장남인 형에게 엄격하게 대학 준비를 시켰고, 사례 11은 형을 따라 중앙대학에 진학하려고 노력했다. 학교 수업 후 자체학습 시간에 숙제를 마치고 담당 교사의 집으로 가서 2-3시간씩 수학과 영어 개별수업을 받았다. 저녁 8시 무렵 집으로 돌아와 밥 먹고 텔레비전을 본 후 쉬는 등의 생활을 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였다. 한국의 대학입시 준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 우수한 성적을 얻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여기서는 뭐 학원을 따로 안 가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외에 필요하면 개별수강을 받거든요, 교수들한테. 매일 학습장 검열하고 책 검열, 몇 점 맞았는가 그 수업 받으면서 다 체크하고 점수 다 내거든요. 그거 보고 그저 5점 아니면 다 찢어버리고 그렇죠. 난리 나는 거죠.^{10/} 열심히 해야지. 점수 높이 받아야 되니까. (사례 11 구술녹취록, 11)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례 11은 학교 수업 외에 어머니의 알선과 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진 개별수강으로 영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성적을 최고점인 5로 유지하고자 ‘난리’가 날 정도로 준비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 11의 경우 지방의 당 간부였던 부모님이 자녀들을 중앙당 간부로 키우기 위한 엘리트 과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후원하였다. 외국어학원에 진학한 사례 11은 고급 중학교 과정에서 교사들의 개인지도와 어머니의 성적 검열, 체벌을

^{10/} 이후 구술 녹취록을 인용한 부분에서 굵은 글씨체는 저자가 강조한 부분이다.

감수하며 평양의 대학으로 진학하려고 집중하였다.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과 외국어대학의 입시할당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례 11은 평양의 대학으로 진학한 형을 따라서 평양 외국어대학에 최종 선발되었다.

나. 평양 대학생의 일상

2000년대 중반 외국어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사례 11은 부모님 집을 떠나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사례 11의 기억 속에 이에 대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의 하숙과 같은 방식으로 한 달에 50불을 주는 평양의 개인집을 얻어서 생활하였는데, 그 외에 “옷도 사고 용돈 쓰고” 하는 생활비로 100불 정도를 지출하였다. 데이트를 하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부모님께 다른 용도로 돈을 받아서 쓰기도 하는 등 한 달에 200불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활한 것이다. 사례 11의 사후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촌에는 평생 수입이 자신의 한 달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례 11의 사례는 북한에서 엘리트 과정을 밟아간 상층계급 남성의 생활조건과 방식을 보여준다.

사례 11은 “머리도 되고 공부도 되고 인성도 되는 애들”이 모인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활동하였다. 여가시간에는 볼링이나 당구를 치러 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일요일에는 학급 단위로 남녀 학생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여 모란봉과 같은 야외로 “들놀이”를 나가기도 했다. 대학 시절 사례 11은 친구를 통해 다른 대학의 여학생을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기도 하였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대학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서 얘기하며 걷고, 식사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서 밥도 먹는 방식으로 데이트를 즐겼다.

사례 11은 입학 후 5년 뒤인 201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대학 과정안이 원래 3년 6개월인데 행사 뭐 이런 거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과정안이 좀 지연돼가지고” 5년 만에 졸업한 것이다. 평양에서 대학을 다닌 청년들의 공통적인 구술에 따르면, 당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대부분 대학이 참여하여 공동활동을 하는 것이 대학생 활의 주요 부분이었다. 행사에 참여할 때 평양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례 11은 자신의 학업만이 아니라 당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다. 군부 소속 회사에 배치된 평양 대학 졸업생

사례 11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북한 군부 소속 회사의 외국어 전문가로 선발되었다. 북한의 각 기관과 주요 회사들은 졸업 시기가 되면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각 대학을 돌며 설명회를 하고 졸업예정자 중에서 미리 “이 사람 쓰겠다.”고 선발해 점찍어 두는 방식을 취한다. 사례 11이 선발된 곳은 해외지사 관리가 큰 필요한 건설회사였다.

북한 청년들의 경우 당 간부가 되려면 대학졸업장과 함께 당원증과 일정 기간의 군복무가 필수 조건이다. 보통 입당하기 위해 각종 활동을 하고 군복무를 마치는 데 5-10년이 걸리는 반면, 군부 소속 회사에 선발되는 경우 “군대 경력과 함께 입당도 하고 자기 회사직업도 다 먹는” 기회가 되므로 군부 소속 기업은 모두가 선망하는 경로이다. 더구나 외국에 지사를 둔 회사의 경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졸업생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례 11은 졸업과 함께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을 “운도 좋았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결과로 평가하였다. 집안의 토대와 경제력 없

이 북한 군부 소속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사례 11의 모범적인 생활과 우수한 성적 외에 당 간부인 부모님의 인맥과 경제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10년대 초반, 사례 11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1년 동안 무역관 리국에서 ‘현실체험’을 하였다. 졸업과 함께 군부 산하 건설회사에 들어가 3년 동안 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공사 현장에서 힘든 하전사 생활을 하였다. 최소한의 기계 이외에 대부분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도로건설 현장에서 군인이자 회사원으로 직접 마대를 지는 등의 노동을 하였다.

사례 11이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의 직원이자 군인으로 생활하던 이 시기에 북한의 권력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에게 세습되었고, ‘젊은 수령’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2010년대 중반, 군관이 된 사례 11은 40여 명의 하전사를 관리하며 생활하였다. 자신의 몸과 일만 책임지는 하전사와 달리 사례 11은 군관으로서 40명의 생활과 애로사항을 조직하고 처리하는 동안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다. 배급체제가 유지되던 과거와 달리 군대의 경제적 문제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짐작된다.

사례 11에 따르면, 군부 회사에 취업해도 실제 수입을 얻으려면 상당 기간의 경력과 간부부, 조직부와 같은 주요 부서에 배치되어야 가능하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개인의 노력과 경제력으로 버티는 ‘모살이’ 기간에 해당한다(사례 11 구술녹취록, 19).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대학에 다니는 4-5년과 군부 회사 10여 년 근무를 포함한 15여 년 동안의 생활비, 그리고 매 시기 좋은 대학과 회사 그리고 부서에 배치되기 위해 “고이는 돈”을 포함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사례 11과 같은 엘리트의 길을 위해 필수임을 알 수 있다.

힘든 군관 생활을 하던 중 사례 11은 부대 인력의 발령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부에서 해외에 나가볼 의향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사례 11은 이를 군관으로서 성실한 활동과 언어능력 등을 참작한 “엄청 잘된 발령”으로 평가하였다. 북한 사회에서는 해외발령 시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며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례 11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선발된 후 6개월 동안 담당 부서에서 사례 11의 도덕적·정치적 활동 등 생활자료, 친척을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신원조회로 각종 처벌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례 11은 총정치국 담화, 보위부 담화 등 주요 부서의 담화 숙지 등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파견 발령을 받았다. 사례 11은 해외파견 발령을 받고 “자유로이 해방되어” 한두 달을 보낸 후 비행기 사증을 받고 출국하였다.

돈도 벌고 나가면 실력 향상도 되고, 어쨌든 해외 나가면 많은 경험도 하고 오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다 저절로 생기는 거고, 계획은 돈 많이 벌어오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배치, 승진도 좀 하고, 그때 갔다 와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니까. (사례 11 구술녹취록, 22)

사례 11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3년 뒤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동경했던 해외 파견의 꿈을 이룬 사례 11은 귀국 후 ‘모살이 기간’을 끝내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결혼할 계획이었다.

라. 코로나19로 연장된 해외 파견과 탈북

군부 소속 건설회사의 해외지사 통역관으로 파견된 사례 11은 A국에 도착하여 북한과 완전히 다른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어리병병

한 기간”을 보내며 적응하였다. 직원들과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회사의 거래처 사장들을 만나 건설 프로젝트에 관해 토론하고, 예산과 설계를 논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래처와 회사의 의견을 중개하여 보고서를 쓰고, 현장과 기사들에게 면담 결과를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한편, 쉬는 날에는 동료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가거나 유흥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쇼핑하기도 하였다.

그 나라는 진짜 못사는 줄 알았는데 잘 살더라구요, 나와보니까, 제가 잘사는 애들을 많이 대상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사는 데 뭐 굶주리는 집은 없거든요. 잘 살고 못살고가 있어 그렇지. 그거 보니까 야,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산다, 아득바득 안 하고. (사례 11 구술녹취록, 24)

위의 텍스트에서 사례 11은 은연중에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A국과 자신이 살던 북한을 비교하였다. 모진 고생을 해도 생존을 보장받기 힘든 사람들이 다수인 북한과 달리 “아득바득” 일하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는 다른 사회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막연히 해외에서는 자유롭고 잘 살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다른 사회를 직접 체험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해외 지사에 파견된 북한 직원들도 현지 봉쇄를 경험하였다. 수년 간의 해외생활을 마치고 귀향을 앞두고 있었던 사례 11은 체류가 연장되었다.

구술자: 철수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연구자: 그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거기서?

구술자: 거기서나 같죠, 뭐. 코로나 터져 들어가지 못한다 뿐이지 우리 회사 생활은 다 한 거죠. 일도 하고, 북한에만 못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연구자: 거기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뭐?

구술자: 아니 없었어요. 거기 자체가 또 코로나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면역이 센 거 같아요, 거기 사람들 자체가. 그리고 마스크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도 우리만 무서워서 쓰고 다니고 그 현지인들은 그냥 그저 막 다니고. 자기네 코로나 안 걸린다고. (사례 11 구술녹취록, 22-23)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어 북한으로 들어올 수 없었으므로 사례 11은 A국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였다. 사례 11에 따르면 해외 체류기간에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귀국이 늦어지면서 사례 11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기서 현지 사장들이랑 많이 대상을 했거든요. 현지 정치인도 많이 만났고, 건설을 하다나니까. 거기 좀 돈 있는 애들은 다 정치인 아니면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보면 별치 않은데 다 성공하고. 또 보면 많은 이런 기회도 많고. 거기 생활 보면 사람이 자유롭다는 게, 한국 사람들 여기서 살다나니까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저런 데에 살다 나와보면 막 신세계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고, 누가 나에 대해서 말 시키지도 않고, 진짜 뭐 인권이란 게 다 있고. (사례 11 구술녹취록, 24)

위의 텍스트에서 사례 11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자기 노력에 따라 결과물이 생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교하며, 직접 체험한 A국

을 신세계로 표현하였다. 자본주의 A국을 기회와 성공, 자유와 인권이 있는 ‘새로운 세계’로 체험한 것이다.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례 11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런 생활을 좀 하기가 힘들겠구나. 다시 알고 한다는 게. 모르고 한번이지.”라는 생각을 하며 어디로 갈지 고민하게 되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귀국일이 불확실해진 사례 11은 북한 사회의 엘리트로 복귀할지, 아니면 ‘신세계’의 개인이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였다. 결국 부모님도 자신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사례 11은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한국에 정착한 사례 11은 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을 보고 조경회사 관리인으로 취업하였다. 최근 대기업에 지원하여 1차 합격 통지서를 받는 등 좀 더 적합한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 평양 출신 해외 통역관의 한국행: 사례 9

1990년대 초 평양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사례 9는 사례 11과 마찬가지로 소학교 시절부터 어머니의 엄한 지도에 따라 공부하고 수학 소조 활동을 했다. 중학교에 갈 무렵 축구를 좋아하던 것과 상관 없이 부모님 조언대로 외국어학원에 입학했다. 해외 경험이 많은 부모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외국 물건과 사진 등을 접하며 친숙하게 되었고, 2000년대 초반 대외건설이 활발해지면서 대외건설 통역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학교 친구들을 통해 대외건설 관련 진로와 소득 등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외국어학원을 졸업하고 희망했던 외국어대학에 진학한 사례 9는 자신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살았다.” 지방 도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엄격한 생활규율이 지배하는 평양 엘리트 문화 속에서 성장한 영향이었

을 것이다. 수업을 마친 후 사회동원이나 청년동맹활동 등으로 일요일에도 여유가 없었다. 사례 9는 정치사상교육과 청년동맹활동, 각종 동원활동에 “책대로 다 잘 참가”했지만 “페이를 하고” 조직생활과 동원, 수업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례 9는 심층면담에서 스스로 “빨간 청년동맹원”이라고 할 정도로 당과 국가에 충실한 생활을 했다.

사례 9는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또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였고, “감정적으로 설레는” 내용이나 해외 출입이 자유로운 남한 사회에 대한 묘사 등을 보며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의식이나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불순물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학생들에게 ‘자백서’를 강요하기 시작하자 2013년 이후에는 남한영상물을 일절 보지 않았고, 친구들과 이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

2010년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세 군데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그중에서 대외 건설회사에 취업하였다. 취업 후에는 사람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속을 안 주고 절대 욕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신조로 생활했다. 특히 회사가 대외건설사업에 첫 진출을 준비했으므로 자신이 선발되어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취업 2년 만인 2010년대 말 사례 9는 사례 11과 마찬가지로 대외건설사업의 통역관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했던 꿈을 이루었지만, 사례 9의 해외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함께 파견된 책임자가 사사건건 사례 9를 견제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국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심리적 압박감을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사례 9는 고민 끝에 남한으로

왔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여전하지만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다.

사례 11과 사례 9의 생애경험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지방과 평양의 상층 집안에서 태어난 남성이 엘리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활발해진 대외무역사업 등의 영향으로 외교관에 국한되었던 해외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평양 외국어대학 졸업 후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고위 당직과 경제 분야 관료를 꿈꾸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이 남한 이주에 있어 한 변수가 된 것이 흥미롭다. 유례없는 국경봉쇄로 연장된 해외 체류 기간이 자신의 미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다.

2. 개인사업을 한 고학력 엘리트 여성들: 사례 8, 사례 10

가. 우등생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어린 시절

사례 8은 1990년대 초반 함경북도의 한 도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과 거래하는 외화벌이 사업소에 근무하였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였다. 어머니는 학교 수업 외에도 학생들 관리로 밤늦게 퇴근하는데 대한 아버지의 불만이 커지자 1990년대 중반에 교직을 사직하고, 근무 환경이 좋은 도서관의 사서로 있다가 2-3년 후 자녀교육에만 전념했다. 아버지가 수입이 많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집안이 부유했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일본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용하거나 한국산 소비재를 사용하기도 했다.

교육열이 높았던 어머니가 두 살 위 오빠의 영재교육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사례 8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인민학교 3학년부터 사교육을 받으며 밤늦게까지 공부하였다.

그냥 인민학교 때를 기억해보자면 나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바빴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공기놀이, 뽀뽀기, 이런 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죠. 3학년부터 엄마가 과외를 시키셨는데 아코디언이랑 수학 과외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학교 아예 안 나가는 거는 안 되니까 두 수업[2교시] 정도 수업을 받고, 그리고 바로 집에 와서는 1시까지 아코디언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오후에는 선생님 집에 가서, 저희는 선생님 집에 가서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다섯 명정도 친구들이 와 있어요. 그때부터 저녁 7시 반인가 8시까지 쭉 수학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1년 반 동안 되풀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팠었거든요. 제가 많이 약하고, 왜냐면 그냥 쉬지를 않고 공부하고 아코디언 배우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힘들던 기억이 나요. (사례 8 구술녹취록, 3)

오빠의 영재교육을 위해 어머니가 섭외한 개인 교사에게 사례 8도 사교육을 받으며 지역 최고 중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였고, 2000년대 초반 오빠에 이어 제1중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북한에는 구역, 시·군, 도별 제1중학교라는 서열화된 영재교육 체계가 있었다. 중학교 입학 때나 현재의 고급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4학년 때 시험으로 제1중학교에 진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체계였다. 사례 8은 구역제1중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시험을 보고 4학년 과정부터 도(道)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구역제1중학교에 다닐 때 도제1중학교에 들어가면 더는 구속하지 않겠다고 한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사례 8은 열심히 공부해서 도제1중

학교로 편입하였다. 도제1중학교는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1시간 이상 통학하였다. 그러다 몸이 힘들어 3학년 때 다시 구역제1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이미 아들을 평양의 대학에 보낸 어머니의 지원과 안내에 따라 사례 8은 평양의 대학에 가려는 중상층 학생들이 다니는 최고 학교에 다닌 것이다.

사례 8은 아버지가 “아들은 대견하고 딸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어머니는 똑똑한 아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굉장히 많은 품을 넣었는데,” 딸인 사례 8에게도 “똑같이 품을 넣고” 아들과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고자 했다. 사례 8이 인민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는 학교에 많은 돈을 지원했고, 교사들에게도 돈봉투를 자주 건네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딸이 학교에서 사랑받으며 간부 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했다.

오빠는 공부 쪽으로 엄마한데 성취감을 쫓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코디언이랑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서는 좀 똑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너가 억척스럽게 그거를 개척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고이 커가지고 좋은 사람한테 시집갔으면 좋겠다. 시집가지만 엄마는 부부관계는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던데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많이 알면 알았지 절대 덜 알거나 이래가지고 상하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를 교육시켰던 것 같아요. (사례 8 구술녹취록, 21)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아들과 딸에게 기대하는 바는 조금 달랐다. 아들은 공부 쪽으로 성공하기를 바랐던 반면, 딸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대우받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성장 가능성이 제한된 당시 사정을 반영한 희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젠더화된 평양의 대학 생활과 고향행

사례 8의 부모님은 “너희 세대가 되면 분명히 과학기술로 먹고사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며 과학기술을 강조하였다. 사례 8에게 어머니는 평양에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자며 이미 평양의 대학에 진학한 오빠를 따라 진학할 것을 권유하였다. 딸이 혼자 타지의 대학으로 가는 것을 걱정한 제안이기도 했다. 이미 인민학교 시절부터 어머니의 권유와 지원에 따라 공부했던 사례 8은 2000년대 후반에 평양 소재 과학기술계통의 중앙대학으로 진학하였다. 이 대학 졸업생은 졸업한 후 평양에 남게 될 확률이 높고, 대학 입학시험도 다른 중앙대학보다 먼저 치러지므로 결과에 따라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과도 어머니의 권유대로 당시 인기가 높았던 정보통신 분야를 선택하였다.

사례 8이 다녔던 대학에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남학생들이 많았지만, 학과 동급생 중 여학생은 사례 8뿐이었다. 이처럼 남성 편중의 젠더화된 공간에서 사례 8은 “대학 생활이 정말 재미없고”,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다.”고 기억한다.

저희는 강의실이든 마당이든 다 학생들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주로 마당청소를 하고 강의실 청소는 제가 했어요. 그런데 남학생들도 당연히 청소를 하지만 17명이 청소하는 거랑 한 명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거는 작업량이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청소 같은 거는 도와줄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혼자 청소하는 걸 봐도 그런가보다,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이랑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고 왕래하고 얘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오래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수군거린다고 할

까요? “재는 여자가 무슨 남자랑 저렇게 얘기를 오래 하나.” 살짝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눈초리로 보는 것 같고, 어떤 일에 한해서 제가 먼저 말을 걸거나 제가 먼저 주건을 내세우면 “네가 뭐데 먼저 말을 하나?” 조금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사실 여자한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 연약한 존재, 남자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어느 정도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중략) 왜 청소는 나만 하나고, 내가 이과대학에 청소 하러 왔냐고, 이거 다 우리 같이 쓰는 강의실이니깐 같이 청소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11/} 지금 이 대학 어느 학부 어느 세대가 너처럼 말하는 학생이 있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애는 너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례 8 구술녹취록, 6, 8)

위의 텍스트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평양의 대학에는 가부장적인 관습이 강해서 여학생이 해야 할 일과 남학생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었고, 남녀 학생들이 친구로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오빠와 같은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했던 사례 8은 이러한 대학의 남성 중심적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등 강한 자의식을 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 사회의 ‘평등한 가치’를 배우며 성인이 되었으나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한 20대 엘리트 여성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례 8이 다녔던 대학은 평양의 다른 대학들에 비해 공부는 잘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다녔다. 상대적으로 집안이 부유하여 매월 부모님으로부터 수백 달러를 받으며 기숙사가 아닌 개인집에서 생활했던 사례 8은 평양의 놀이시설을 즐겼지만

11/ 이후 구술 녹취록을 인용한 부분에서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삽입한 부분이다.

남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오빠가 전해주는 각종 영상물을 집에서 시청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2009년에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하고, 뒤이어 이루어진 화폐교환으로 아버지가 투자했던 자본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지면서 사례 8의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축적한 경제적 기반 덕분에 재산을 팔아 평양의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어머니의 지원은 계속되었다.

평양 건설붐이 일어났던 2011년대 초반에 평양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돌격대가 조직되어 사례 8도 건설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노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사례 8은 갑자기 고된 육체노동을 하려니 힘들고 심적으로도 지쳐서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대학을 자퇴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당시 대학을 이미 졸업한 오빠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배치되었으나 충분한 경제적 수입 없이 생활하던 중 “나라의 관심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고향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하였다. 사례 8은 혼자 평양에 남기 위해 대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학업을 포기하고 오빠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 새로운 소비시장의 탄생과 사업가로서 삶

2010년대 초반 고향으로 돌아온 오빠가 큰 자본 없이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웨딩영상 편집을 해보자고 제안하자, 사례 8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던 “오빠의 결정을 믿고” 동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오빠가 기획한 일을 사례 8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의 역할 분담이었다.

저희가 편집도 쓰니메가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설명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잖아요. 여기처럼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빠가 대충 영어를 아니까 하루 동안 계속 이걸 클릭하고 저걸 클릭했다 했더니 이 아이콘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고 쪽 써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오빠가 틈을 만들어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지는 않았고, 뭔가 개적을 오빠가 하는데 그냥 실행하는 거는 저였어요. (중략) 오빠가 결론적으로는 자기 덕이라고 말하죠. 난 또 내 덕이라고 하고. 아이디어는 항상 오빠가. 오빠가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방향을 잘 갖는 게 중요한데 자기가 얼마나 잘 그었냐고. (중략) 결혼식장에서 직접 사회를 보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분들을 통해서 주문을 받았었던 것 같고. 차츰 이름이 나면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다 알더라고요. (사례 8 구술녹취록, 31-32)

처음에는 촬영가에게 받은 영상편집만 하다가 촬영기를 사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사례 8은 주로 편집팀을 이끌었고 수입은 오빠와 절반씩 나누었다. 나중에 일이 늘어나면서 편집인력을 별도로 고용해서 직접 교육한 후 일을 분담하고 자기 몫의 절반을 편집인력의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례 8 남매는 이공계의 정보통신 부문 전공자였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고, 곧 소문이 나서 사업이 확대되었다. 사촌들과 영상촬영을 같이 했는데, 이들은 영상물의 구도와 스토리를 구성하려고 그동안 보았던 한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를 참조하기도 했다.

2010년대에 들어 북한에는 결혼을 앞둔 20-30대 청년들이 웨딩 촬영에 돈을 아끼지 않는 문화가 생겨났다. 사례 8은 편집물 한 건당 100달러를 받으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웨딩촬영은 보통 3-4일 동안 진행되는데, 결혼하는 커플의 연애 이야기를 영화 형식의 스토리

보드로 만들어 야외촬영을 하고, 스튜디오 촬영과 병행하기도 했다.

진짜 결혼에 확 꽂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꾸밀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SNS가 발달이 되면 막 한껏 나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텐데 북한은 그런 거 없잖아요. 내 삶이 아니고 거의 김정온을 위한 삶, 남편을 위한 삶, 자식을 위한 삶이다 보니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촬영기에 담고 편집해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처음으로. 그래서 이날 돈을 진짜 많이 써요. 자기 능력이 50이라면 그냥 돈을 꽂아 70까지 내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돈이 많은 친구들을 상대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거의 아끼지 않고 다 쓰더라고요. (사례 8 구술녹취록, 32)

부모세대와 달리 당과 국가에 헌신하는 가치보다 개인의 성공과 인정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의 문화 중 하나로 ‘개인이 돋보일 수 있는 결혼 이벤트’가 사업 분야로 부상한 것이다. 과거 수령과 남편, 자녀에게 헌신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나 개인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결혼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언급은 혼인이 친족공동체의 의례에서 개인들의 의례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례 8과 오빠는 같은 세대 젊은이들의 감수성에 조용하며 대중적인 영상사업을 개척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성공하였다.

유년시절 학교 선택부터 대학 진학까지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던 사례 8은 영상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사업 성공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결혼을 하더라도 “나만의 일은 절대 놓지 않겠다. 가정주부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결심하였다. 부모세대는 장사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

실과 동떨어진 “돈키호테 같은 소리”나 하는 사람들보다 장사를 하는 것이 돋보이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평양에서 대학까지 나온 자녀들이 귀향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직원들이 알아서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여유시간이 많아지자 사례 8과 오빠는 시내의 PC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 집 안에 있는 컴퓨터와 노트북 열 대 정도를 연결해서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친구들과 게임을 즐겼고, 외부 단속이 있는 경우 돈으로 무마하였다.

라. 연애 경험과 결혼에 대한 생각

사례 8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대 초반에 대학교 선배와 연애했는데, 어머니가 피도 안 마른 아이가 무슨 연애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몇 개월 만나고 헤어졌다. 어머니는 결혼적령기로 여겨지는 20대 중반 이후 생각이 성숙했을 때 연애를 하라고 조언했다.

엄마의 마인드가 일찍 결혼하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희 세대는 뭐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일찍 결혼하냐? 어차피 결혼하면 내 인생은 없어지고 남편을 위한 삶, 그리고 자식을 위한 삶으로 바뀐다. 설거지부터 그리고 주부 일이 쉽지가 않으니까 나는 벌써부터 우리 딸을 고생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스물일곱이나 스물여덟에 결혼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또 삶이 그렇게 안 흘러가잖아요. 스물일곱, 여덟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물론 선은 한두 번 본 적 있지만, 그다음에 스물아홉부터는 노처녀라는 말을 들어요. (사례 8 구술녹취록, 14-15)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사례 8은 20대 중반이 지난 후 중매로 소개를 받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사례 8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학력이었다. 대학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서 당원이 돼야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애기가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례 8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대학 졸업장은 사회적 성취를 위한 조건보다는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집을 잘 가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대학 졸업장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중략) [여학생] 선배들은 다 연구소로 갔었고 연구소에 가서 1년, 2년 이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다 그만뒀어요. (중략) 저희 엄마는 제가 쪽 크는 거 보면서 “그래 뭐, 여자는 시집 잘 가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대학교 3개 졸업하는 것보다 시집 잘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푹 푹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생이 꼬인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진짜 그걸로, 이혼하면 나라 가거든요. 다시 결혼하고 이거는 사실 아예 분위기가 한국 사회하고 달라요. 해서 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집 잘 보내려고 공부 많이 시키는 걸로] 생각 안 가졌을지라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 같아요. (사례 8 구술녹취록, 13-14)

위의 구술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여성들의 사회적 성취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좋은 결혼’을 선택하는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마. 외국 서적,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탈북

사례 8은 대학 재학 시절, 오빠가 구해다 준 드라마와 『제인어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테스』, 『해리포터』, 『주홍글씨』 등 외국의 고전을 PDF 파일로 읽었다. 그가 읽은 책 중에는 북한에서 허용된 것도 있었고, 오빠 친구들이 외국에 다녀오면서 구해다 준 금지된 자료도 있었다. 이러한 외국 영화와 서적을 통해 사례 8은 자유로운 외국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 드라마 중에서 사극을 좋아했고, 외국의 정치 드라마나 전쟁 영화 등을 보면서 북한 사회의 모순과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기도 했다.

성인이 돼서 봤던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12/} 그 비슷한 영화인데, 한 사람이 적의 기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말 죽을 고비에 처해 있어요. (중략)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국가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게 아니냐. (중략) 우리는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한다 해가지고 100명인지 [적의 기지로] 들어가요. 그 한 명을 구하겠다고. (중략) 그런데 북한은 아니잖아요. 항상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항상 [국민을] 버려요. 버리는 패를 써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래, 국가라면 이래야지. 자국민을 이렇게 보호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중략) 영화를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가 계속 자문자답을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될 때까지 깊이 있는 고민은 안 하지만 알게라도 고민을 하는 편이어서 스스로가 계속 변했던 것 같아요. (사례 8 구술녹취록, 54)

12/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98년 개봉작으로, 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 중인 한 대원을 구출하는 과정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이다.

사례 8은 외부 사회에 대한 자료를 보며 자유에 대한 갈망, 북한을 떠나고 싶다는 욕구와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 등을 갖게 되었다. 그는 옷차림이나 용모에 대해서도 단속과 통제를 하는 북한을 떠나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외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특히 어릴 적에 보았던 북한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나왔던 외국의 상징물인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위의 텍스트에서 피력하는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해 자문하고 회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서적과 영상물을 통해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잘 알았던 사례 8은 중국에 갔다 온 동네 언니들과 얘기 하면서 이 나라를 뜨고 싶다는 생각을 같이 나누었고, “넓은 지구상에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유를 자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목한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살고 있는” 자신이 이 모든 걸 버리고 무작정 탈북을 결심할 수는 없었다.

고향에서 사업을 하며 미래를 고민하던 2010년대 말에,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오빠의 여자친구가 중개인을 통해 오빠와 가족의 탈북을 권유하였다. 오빠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사례 8은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싶고 에펠탑도 보고 싶은데 북한에만 갇혀 살다 죽는 건 억울하다.”라고 말하며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오빠에게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가족의 안전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망설이던 오빠는 동생의 강력한 의사를 듣고 탈북을 결심하였다. 오빠가 먼저 한국으로 떠난 몇 달 후 사례 8과 어머니는 오빠의 주선으로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왔다.

사례 8은 오빠가 “북한에서의 삶이 지옥 같지 않고 나름 행복했기에, 지금 여기서는 더 행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동감하였다.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한국

에 오니 자유를 얻으려면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오빠는 한국에서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사례 8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 8은 조만간 퇴사하고 쉬면서 여행을 다녀온 후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영상제작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 부모님 터를 받아 무역지도원이 된 의사: 사례 10

사례 8보다 두세 살 많은 사례 10은 1980년 후반, 국경 지역 대도시에서 당 간부 집안의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사례 10의 집안에서도 주먹과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직의 지도자가 될 것을 가르친 아들과 달리, 딸은 공부해서 지혜를 키우고 어떤 상황에서든 화를 참고 얌전하게 행동하도록 교육하였다.

사례 10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이 지역에서도 배급이 중단되면서 먹고살기 위한 장사와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사례 10의 부모님은 밀수가 시작된 초기부터 장사해서 큰돈을 번 것으로 보인다. 매일 밤 부모님이 집을 비웠다가 새벽이 되면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과자를 중국 사 람들로부터 받아오기도 했다.

중학교에 다니던 시기 사례 10의 어머니는 수시로 선생님들께 담배와 음식 도시락 등을 전달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 혹은 “학교꾸리기”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으로 후원하였다. 사례 10은 무조건 1등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교사가 되고 싶었으나 기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모님 생각에 따라 의대를 지망하였다. 6학년 학생 중 집중 교육 대상으로 선발되어 단체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여 1등을 했으나 의과대학 ‘뽀뜨’가 없어 아버지가 교육부의 지인을 통해 의학전문학교 추천서를 사는 등 우여

곡절 끝에 2000년대 초 전문학교^{13/}에 입학하였다.

2000년대 중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준의사 자격증을 받게 된 사례 10은 동네의 산부인과에 배치되어 첫 해산방조를 하는 등 환자를 돌보며 생활하였다. 또 어머니의 지원으로 한방 침술, 산파술, 낙태술 등을 따로 배우는 등 의학 기술을 쌓아 돈을 벌기도 하였다. 사례 10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환자를 만나게 되면서 간부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그 부인들과도 친분을 쌓는 등 인간관계를 확대하면서 부모님의 중국 무역사업을 돕는 방식으로 장사를 병행하였다. 당시 의사들의 고정수입은 거의 없었던 반면, 무역사업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장사를 통해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전체 활동 중 장사의 비중이 커지자 사례 10은 2010년대 말, 공식적으로 의사직을 정리하고 무역회사 지도원이 되었다. 전문학교 졸업 후 이미 무역업에 종사하던 남동생들과 함께 부모님이 개척한 ‘터’를 받아서 대규모 회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표단을 만나 수입 원자재의 양과 가격을 정하고, 자체 공장과 전국에 연결된 소생산자 150여 명을 통해 눈썹, 가발 등의 제품을 임가공 생산해서 수출하고, 기타 1차 생산물이나 광물 등을 국내에서 모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일을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이로써 매월 넉넉히 생활하고도 수천 달러를 저축할 정도로 수익이 있었다.

잘사는 집의 딸이었던 사례 10은 중학교 시절부터 찾아오는 남학생이 있었으나 부모님의 엄격한 단속과 자신의 무관심으로 관계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주변에서 혼담이 오가기도 했지만, 의사 생활과 장사에 주력하면서 본격적인 연애를 하지는 못했고, 30세가 넘어 무역회사 지도원이 된 후에는 사업에 성공하여 사장이 되고 나서 결혼

13/ 전문학교는 2015년까지 존재했던 2-3년제 고등교육기관이다. 이후 전문학교는 지역의 다른 대학으로 통합되거나 공장대학 또는 직업기술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조정아 외 2020, 71).

할 계획이었다. 장사를 크게 하던 주변의 친구들도 가능하면 장사와 연애를 자유롭게 하다가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무역회사 지도원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사례 10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이 소개한 길을 따라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먼저 한국에 온 아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정착한 후 회사 경리로 일하였다. 심층면접이 끝난 후 사례 10은 최근에는 부동산과 주식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 8과 사례 10은 평양의 중앙대학 출신 혹은 준의사 자격증이 있는 엘리트 여성으로서 2010년대 중반 영상편집사업 및 무역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 전자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엘리트가 습득한 기술을 매개로 오빠와 함께 영상사업을 개척하였고, 후자의 경우 고난의 행군 시기 밀수업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부모의 사업을 이어간 차이가 있다. 주목할 점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능력을 갖춘 여성들도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는 대신 ‘좋은 결혼’을 선호할 만큼 여성들의 사회활동 가능성이 좁은 북한 사회에서, 사례 8과 사례 10은 새로운 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지속하며 부를 축적한 경험을 보여준 것이다.

3. 밥벌이에 청춘을 바친 ‘준마치녀’: 사례 16

가. 노동자 출신 퇴직 장교와 교사의 외동딸

사례 16은 강원도 농촌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직하고 노동자로 일했던 아버지와 교사로 일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났다. 사례 16은 아버지의 인생을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자리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밥

먹으려고 살았던” 삶이라고 평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외동딸인 사례 16을 “인민군대”처럼 키웠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사례 16을 깨워서 달리기를 시켰다. 강원도에서 다녔던 인민학교생활에 대해 사례 16이 기억하는 것은 학교에 내려고 친구들과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었던 일 정도이다.

사례 16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제대하고 이직하면서 사례 16의 가족은 접경지역 대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시골에서 살다가 변화한 도시로 이사 오니 친구들의 옷차림도 다르고 말투도 달라 “딱 어디 다른 나라 외국에 온 것 같았다.” “불이 번쩍번쩍하고 멋있는” 중국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신기했다.

당시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시기였다. 사례 16의 아버지는 제대 후에 보안기관의 일반노동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이사 후 교직을 그만두고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 외가는 월남자 가족이었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어 어머니에게 식량을 보태주었기에 사례 16은 그 시절을 “쌀밥을 먹고 입고픈 옷도 입고 살았던” 때로 기억하고 있다. 학교 수업은 재미가 없었지만, 부모님이 출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사례 16은 학교에는 빠지지 않고 갔다. 방과 후에는 어머니를 도와서 빵이나 떡을 팔았다.

우리 교실이 3층이 됐는데 거기 앞에서 내가 빵 파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때는 그걸 쪽팔리는 걸로 생각 안 하고, 나는 이걸 팔아서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빵... 빵 스무 킬로, 20킬로가 배낭으로 한 배낭 되거든요. 그거 배낭에다 한 배낭 지고 시장 정문 있잖아요. 정문에 서서 “빵 사라요. 빵 사라요.” 하면서... 그런데 엄마가 가서 빵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쫓아요. 자기 팔아야 되는데 가라고. 그런데 내가 애기, 아이가 이렇게 배낭을 이만한 거 지고 막 봉다리 들고 사라, 사라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안 쫓거든요. 그래서 그때 빵 팔고 그랬어요. 빵 팔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엄마가 떡을 만들어가지고 역전에 밤에 팔러 나가면 꽃제비들이랑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사 먹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밤에 또 그거 팔러 나가고, 공부보다도 그쪽으로 더 이렇게 갔던 거 같아요. (사례 16 구술녹취록, 12)

사례 16이 부모님께 받았던 가정교육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말과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옷차림, 정리정돈, 절약 등 생활습관에 대해 늘 교육하셨다. 아버지도 “어디 가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바람벽에도 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자 앞에서는 웃지도 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라고 주의를 주셨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아버지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거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고되고 힘든 일도 참고 견디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셨다. 사례 16은 자신이 어린 나이에 힘든 공장노동을 십여 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이와 같은 가정교육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가 강조했던 삶의 태도는 북한에서뿐 아니라 사례 16이 한국에 온 이후에도 그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 직장에서 기술로 인정받은 ‘준마치녀’

사례 16은 2000년대 초반에 중학교^{14/}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였다. 당시 중학교 졸업 후 여학생들의 진로는 다양하지 않았다. 여학생 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소수 학생은 전문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했고, 대다수 여학생은 농장이나 공장에 배치되었

^{14/} 당시 중학교는 현재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통합한 형태의 중등교육기관으로 한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으며, 군수공장 등에 ‘무리배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초기 시장화가 진행된 2000년대 초반에는 봉제기술이 있는 여성들이 맞춤옷을 만들어 판매하여 돈을 많이 버는 사례가 많았다. 공부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사례 16은 공장에 들어가 미싱기술을 배우고 결혼한 후에는 공장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옷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군수공장에 무리배치를 받았는데, 군수공장은 노동강도가 강하고 작업환경도 좋지 않은 기피대상의 직장이었다. 어머니가 “몇 개월 동안 뇌물작전을 해가지고” 군수공장 배치를 취소하고 “배급을 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피복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사례 16이 선택한 직장은 중국에 수출하는 피복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아니었지만 “중국 쌀을 포대로 배급받을 수 있는 허술하지 않은 회사”였다.

내가 원하는 데는 갈 수 없고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는 다 안 좋은 데니까 부모들이 뇌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자식을 좋은 데로 보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살림이 그닥 넉넉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중간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배급 주는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갔거든요. (사례 16 구술녹취록, 1)

처음에는 보조일을 하면서 기능공들의 텃세에 시달렸다. 청소를 비롯해서 잡일을 도맡아 했지만 조금만 일을 잘못해도 욕을 먹었고 생활충화 때도 계속 비판을 받았다. 일이 힘들다고 꾸짖힐 때마다 아버지는 “인생이 원래 다 그렇게 힘든 것”이라고 하면서 견디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부모님의 말씀에 사례 16은 다른 일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땀지 없는 소보다도 더 힘들게” 일하면서 고된 시간을 견뎠다.

사례 16은 보조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싱공들 어깨너머로 보면서 미싱일을 익히고, 퇴근 후에도 혼자 남아서 두세 시간씩 미싱 연습을 계속했다. 보통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고 새벽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다.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미싱기술을 익혀서 1년 반 만에 미싱을 타게 되었다. 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례 16은 자신이 가장이 돼서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별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쌀 주는 데 매달렸다.”

사례 16은 취업한 지 5년 정도 지나 기능공이 되었다. 작업반에서 까다로운 공정을 다룰 수 있는 기능공은 전체 인원의 4분의 1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소리치면서 일할 수 있었다. 작업반장이 못마땅한 소리를 하면 바로 가방을 싸서 집으로 왔고, 그러면 작업반장이 집에 와서 달랬다. 일감이 끊기면 며칠씩 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16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동료들 사이에서 “꼼꼼하게 일 잘하는” ‘준마처녀’로 통했다. 북한에서 1999년에 ‘준마처녀’라는 노래가 발표되었는데, 노래 가사에서 준마를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성실하게 일하는 여성노동자를 일컬어 ‘준마처녀’라고 불렀다.^{15/} 이 노래가 유행한 후 북한 매체에서는 방직공장, 피복공장 등 여성노동자가 주를 이루는 공장이나 농장에서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는 열성노동자를 ‘준마처녀’라고 지칭하고 있다. 사례 16이 다녔던 공장에서는 매월 작업성고가 가장 좋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써서 공장 입구 벽보에 붙였는데, 사례 16은 늘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다. 어머니는 야근이나 철야작업 때 도시락 싸들고 공장에 오면 사례 16의 이

15/ 노래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아니 글썄 날보고 준마탄 처녀래요/하루일 넘쳐 해도 성차 안하는/내 일숨씨 참말로 번개같다나.” (노동신문 2014.6.12.)

름이 쓰여 있는 벽보를 보고 자랑스러워했다.

엄청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공이 되는 게 내 노력 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 기능공들 하는 걸 계속 가서 보고, 저 거 저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연습하고. 그다음에 기능공이 돼서가 끝이 아니고 내가 기능공이 돼서 내가 만든 옷이 불량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에 검사하잖아요. 불량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불량이 단 한 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있으면서 꼼꼼하게 하니깐 그 중국에서 대방이 이렇게 계속 매일 나와요. 나와서 자기 제품 보는데 나처럼 일하라고 막 대방이 인정했거든요. 모범노동자 됐어요. 준마치녀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준마치녀. 벽보에 써 붙이고 해요. 제가 그렇게 일했어요. (중략) [준마치녀 벽보가 붙었을 때] 기분이 엄청 좋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붙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건 하나도 없어요, 결과물은.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게 이름 하나 붙은 것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들 많은 속에서 나하나 그렇게 붙었잖아요. 나하나 크게 이름... (사례 16 구술녹취록, 23, 56)

남들보다 몇 배 열심히 일한 대가로 사례 16은 매월 25kg 쌀 한 포대와 임금 3만여 원을 받았다. 임금 3만 원은 시장에서 쌀 5-6kg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에 불과했지만, 화폐개혁 이후 이 공장에서 일반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1만 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사례 16은 높은 실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세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던 것이다. 배급을 주는 직장이 드물었던 당시 상황에서 배급을 받는다는 것은 사례 16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도 배급도 타고 돈도 타고 그다음 명절날에 명

절 고기도 주고 뭇도 주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렇게 막 좌절감 느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나는 뭐 다른 사람들 배급 못 타는데 나는 내가 내 먹을 쌀 버는데 이렇게. (중략)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심하진 않았어요, 거기 다니는 게.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고 분통하고. (사례 16 구술녹취록, 23, 57)

사례 16은 그 피복공장에서 미싱기술자로 20대를 보냈다. 장사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배급을 못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자신은 스스로 벌어서 먹고산다는 ‘떳떳함’이 있었다. 한국에 와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그는 “밥 먹겠다고” 공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청춘을 다 보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다. 다양한 돈벌이 시도와 성분의 벽에 부딪힌 연애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사례 16은 피복공장에 다니는 대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방도를 모색하게 된다. 미싱기술을 이용해서 집에서 옷을 가공해서 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 무렵 기성복 생산이 늘어나서 미싱기술자의 “시세가 떨어졌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사였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공식직장에서 준마처녀로 불릴 만큼 성실하게 일해왔던 사례 16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김정은 집권 직후의 시기이다. 10년 넘게 밤낮없이 직장일에 충실했던 사례 16은 20대 중반을 넘어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 그는 목돈을 모아서 결혼할 때 남편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고 싶었고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사밑천을 모으고 싶었다. 그러나 공식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밥을 먹고살 수 있을 뿐 목돈을 모을 수는 없었다. 사례 16은 피복공장을 그만두고자 했으나 10년 이상 경력의 기능공을 직장에서 쉽사리 놔

주지는 않았다. 사례 16은 직장의 노무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병을 핑계로 장기결근을 하면서 다른 일들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도시를 오가며 장사를 했는데, 몇 차례 못하고 “말아먹고” 말았다. 그다음에는 친구와 함께 개인식당을 차려서 냉면을 만들어 팔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식당이 늘어났다. 사례 16이 살던 곳에서도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식당들이 많았는데, 이런 식당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집에 밥상을 몇 개 놓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젊은 여성 두 명이 운영하는 식당은 인기가 있어서 장사가 잘됐지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불법” 장사였다. 더구나 공식직장에서 일해야 할 나이의 젊은 여성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보안원들에게 많은 뇌물을 줘야 했다. 사례 16에 따르면, 장사는 잘됐지만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정도였다.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결혼적령기의 군관들 중 사례 16에게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례 16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손님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어서 먼저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다. 1년 동안 “죽자 살자 연애하고” 결혼 약속을 했다. 결혼을 약속한 후에 남자친구는 사례 16 집안의 배경을 확인했고, 외가 쪽 친척이 남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통제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처가에 남한 배경 친척이 있다는 것은 출세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현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었다. 남자친구는 헤어지자고 눈물로 호소하였고, 사례 16은 이별을 받아들였다.

울면서 헤어졌어요, 둘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여기 이 쪽으로 쪽 갈려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아빠 없는데 엄마가 썩 빠지게 해갖고, 그 보위지도원까지 올라가는 데도 단계가 있거든

요. 힘들어요.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그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중략) 사랑은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책임 못 지않아요. **별 다 떼고 나오면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내 직업도 못 찾아서 헤뎀비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못...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줬죠, 잘 살라고.**
(사례 16 구술녹취록, 34-35)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 사례 16은 “나는 잘나가는 사람하고 결혼은 못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혼 생각을 접었다. 그 후에도 연애를 했지만 “결혼을 위한 연애가 아니고 그냥 만나는 연애”만 했다. 주위의 여자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가사일과 장사를 병행하며 고달프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돈 많은 부자를 만나서 편하게 살 게 아니라면 결혼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례 16은 식당을 1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만둔 후 국영상점의 장난감 코너를 임대하여 장사를 시작했다. 국영상점은 판매할 상품을 갖추는 것 이외에 큰 밑천은 들지 않고, 매월 일정한 돈을 관리인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자신이 갖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국영상점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장사 품목, 연령 등 통제하는 게 많았고 수익도 크지 않아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나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적었다. 사례 16은 돈을 모아서 “안전한 장사”를 하고 싶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림집 건설이 진행됐는데, 사례 16이 거주했던 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0년대 초중반경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아파트 1층에는 상점가가 조성되었다. 아파트 신축상가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옷가게를 하는 것이 사례 16의 “로망”이었다. 신축아파트 상점가에서 개인상점을 운영하려면 상점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 연줄과 상당한 초기자금이 필요했다. 밑천이 많이 드는 대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리였다.

구술자: 나는 그게 로망이었어요. 거기가 제일...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니까. 거긴 진짜 외국 같아요. 거기 가면 낮에는 다 배달시켜 먹고, 엘리베이터 다 다니고. 그런데 우리 뭐 돈 통틀어도 거기 들어갈 돈이 안 되거든요. 하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진짜... 거기 들어가는 게 로망이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냉면집도 했다가. [냉면집은] 돈은 되는데 너무 못살게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연구자: 그런 상점에서 무슨 장사 하고 싶으셨어요?

구술자: 옷 장사. 옷, 그게 부자 동네니까 옷이 잘 나가거든요. 기본 한국 옷들 다 팔아요. 그 상점에서 다 감춰놓고. 그래서 옷 장사를 거기서 깔끔하게 거기 해서 옷 장사 할려고 그거 냉면집도 해보고, 가발... 집에서 가발도 떠보고, 그다음엔 핸드폰도 팔아보고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례 16 구술녹취록, 31)

사례 16은 장난감가게를 그만둔 뒤에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떠돌이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공식적인 소속이 아직 피복공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통제가 심했다. 장사에 대한 통제가 심하니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가내수공업 형태로 가발 만드는 일을 시작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곧 그만두었다. 미싱기술을 살려 집에서 옷가공 위탁을 받기도 했는데, 기성복과 수입의류가 유행하면서 일감이 줄어들었다.

사례 16은 피복공장에 적을 둔 상태에서 다른 수출용 피복공장에 일공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기도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주요 기관 산하 무역회사가 운영하는 피복공장이 많이 생겼는데, 생산량이 많은 공장에서는 정규 노동력 이외에 높은 일당을 주고 비정규 생산인력을 모집해서 생산을 진행했다. 정규 노동력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일공을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커

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직장에는 정규직 인력이 일하는 현장이 따로 있고 일공들이 일하는 현장이 따로 있었다. 사례 16이 “오구잡태 작업반”이라 칭했던 일공들의 직업반에는 하루만 와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몇 달씩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노동강도는 사례 16이 이전에 다녔던 피복공장보다도 훨씬 강해서, 야근은 물론이고 며칠씩 철야작업을 하기도 했다. 졸면서 일하다가 바늘에 찔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노동강도가 강한 대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괜찮았다. 사례 16이 이전에 다녔던 공장에서 받았던 임금은 월 30위안이었지만, 일공으로 일했던 공장에서는 하루에 10위안을 받았다. 야근 때는 간식과 식사를 주었고, 복날에는 영양식도 제공했다. 그러나 사례 16의 경우, 원래 공장에 적을 두고 동종업종의 다른 공장에 장기간 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도 원래 공장보다 훨씬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공장에도 오래 다니지 못했다.

사례 16은 2017년에 장사로 모은 돈 300달러를 뇌물로 주고 직장의 적을 떼고 여성동맹에 적을 거는 데 성공한다. 여성동맹도 각종 동원이 많지만, 1년에 400위안을 내면 동원을 면제받고 원하는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사례 16은 직장의 적을 떼 후에 친구와 본격적으로 휴대전화 장사에 나선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판매는 국가 승인을 받은 공식 상점뿐 아니라 비공식 판매자들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16도 휴대전화 판매소가 밀집된 지역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했다. 이 또한 합법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사 과정에서 보안원들로부터 모욕을 동반하는 심한 통제를 받았다.

라. 어머니에게 이끌려 한 탈북과 고생 끝에 찾은 행복

사례 16이 휴대전화 장사를 할 때, 어머니는 몇 년간의 탈북 준비를 마치고 사례 16에게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권했다. 사례 16은 중학교 고학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몇 차례 본 적이 있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한국에 가서 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례 16은 어머니에게 “아무리 자유가 없어도 어떻게 나라를 배반할 생각을 하나? 엄마는 반동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에서 장사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장사기반을 잡아갔던 사례 16은 탈북을 망설였으나, 장사하면서 보안원들에게 수모를 당했던 생각을 해보라면서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어머니의 설득에 마침내 탈북을 결심하고 2019년에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향했다.

한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멋있었다.” 사람들이 옷을 자기 편한 대로 입고 다니는 게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온수가 나오는 집에서 가스로 밥을 해 먹으면서 “나도 살다보니 이런 날이 왔네.”라는 생각을 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자마자 컴퓨터학원을 다니고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북한에서는 교과 중에 컴퓨터 관련 과목이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 중학교 재학시절에는 컴퓨터가 학교에 보급되지 않아서 컴퓨터를 만져보지도 못했다. 컴퓨터 전원도 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지 어머니와 상의하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례 16은 2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친척의 소개로 남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말투가 다른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말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물어보곤 했다. 지금은 출산한 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휴학을 했지만, 아이를 조금 키워놓고 학업을 마친 뒤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할 생각이다. 관련 직업경력을 쌓고 50대 후반이 되면 지역에서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인생이 원래 힘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처럼 고달프게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오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 16의 생애경험은 1980년대 중반에 접경지역 도시의 중하층 가정에서 태어나 '고난의 행군기'에 중등학교를 다니고 2000년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한 30대 여성의 삶을 보여준다. 사례 16은 2000년대 시장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10여 년간 공식직장 출근만으로 생계를 해결해왔다. 배급과 '준마치녀'라는 사회적 인정은 그가 공식직장 영역 안에서 기능공으로 성장하기까지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게 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례 16은 공식직장을 벗어나 비공식 영역에서 새로운 생계기반을 마련하려고 다양한 일을 시도했는데, 이는 확대된 시장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오가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려고 한 청년들의 노력과 좌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4. 농어촌에서 태어나 생계를 책임지며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청년들: 사례 4, 사례 2, 사례 6

가. 학교 폭력, 노동, 굶주림에 시달린 어린 시절

사례 4는 20대 중반의 청년 남성으로 1990년대 후반 평안남도 대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에서 농장원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만 남아 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배불리 먹지 못했고 학교생활도 힘들었다. 학교에서는 소학교 때부터 공부보다 학생들을 동원하여 노동을 시켰다. 도시 학생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허리가 휘도록 농사일을 하고 방학에도 학교에서 부과한 작업 과제를 해내야 했다.

학교라는 게 공부 안 해요. 그저 오전에 조금 공부하고 그다음에 하루종일 일 시키거든요. 농장에 나가서 농사일 시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8살 때부터 농장에 일을 끌러다녔어요. 손이 작아 가지고 호미자루 잡지도 못해요. 두 손으로 이렇게 쥐고 김매고 뚜지고 파고 이려고 다니고, 너무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애들이 학교 자꾸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일어날 맥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학교 전체가 와서 데리고 끌고 나가거든요. 끌고 나가서 또 하루종일 일하고, 저녁에 그냥 안 오고 또 맞고 온단 말이에요, 학교 안 나왔다고. (중략) 방학은 더 지긋지긋하거든요. 북한은 방학 때 과제를 주거든요. 뭐 강냉이 이삭한 100킬로 줏으라. 도토리를 얼만큼 줏으라. 끼무릇 한 다섯 킬로를 캐라. (사례 4 구술녹취록, 8)

사례 4는 체격이 왜소해서 소학교 시절에 학교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부모가 가난하고 힘없는 농장원이어서 친구들에게 맞

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해도 안타까워하면서 울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막아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며, 사례 4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된다.

가방 4개, 5개씩 들고 다녔거든요. 안 들으면 맞으니까. 그렇다고 뭐 신고도 못 해요. 북한은 법이 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머니는 또 우시고. (중략)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죠. 북한은 그야말로 집안이 가난하면은 그냥 맞아야 하고요, 제가 아무리 몸이 약해도, 제가 무슨 경찰의 아들이고, 제가 무슨 판사의 아들이고 이러면 아이들이 절대 그러지 못하거든요. 뼈이 없고 힘이 약하면, 게다가 경제가 가난하면 그런 수모를 당하고 폭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북한인 거예요. (사례 4 구술녹취록, 3-4)

아래의 텍스트에서 보듯이, 사례 4의 부모님은 아들을 돕는 방법으로 의지할 친척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례 4의 가족이 이사한 황해남도의 농촌지역은 고향보다 더 낙후된 곳이어서 사례 4는 그곳에서 옥수수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벼뿌리를 캐 먹고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으며 연명했다.

거기 사람들 절대 탄 도에 안 가요. 왜냐면 평안남도는 북한의 심장이거든요. (중략) 평양 옆에 있는 도시인데, 가장 잘살고 살기 좋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미친 집안이나 황해남도에 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 너무 외로워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한 스무 킬로 정도, 삼십 킬로. 너무 약하니까 그저 집도 못 살고 가난하고 부모님들도 농장 일 하시다 보니까, 자식인 저도 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도 잘 못 가고 하니까 그저 매일 맞고 살았고. 부모님들도 맞는 거 보고 눈물 흘리시고, 옆에 도와주려고 나서주며 위해줄 일가친척 하나도

없고. (중략) 황해남도에 어머니 가족들이 다 있거든요. 처가에 외가에. 해서 “어머니 권으로 가서 살자. 아무리 힘들어도.” 해서 주변에 그래도 아는 일가친척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황해남도에 가 살았거든요. (사례 4 구술녹취록, 3)

사례 4의 가족은 3년간 황해남도에서 살다가 생활이 너무 열악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례 4의 고향은 행정구역상 대도시에 속하는 지역이라 농촌에서 전입해 오기는 어려웠지만, 황해남도로 갈 때 거주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나. 돈을 벌며 친구들과 어울리던 청소년 시절

고향에 돌아온 사례 4는 고급중학교에 입학했다. 사례 4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좀 튼튼해지자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 통나무를 메다 팔거나 시멘트 나르는 공사 보조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등 다양한 일을 해보았다. 역전에 대기하다가 자전거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집까지 태워다 주는 일도 했다. 사례 4의 거주지역은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그는 학교에 결석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쓰기도 하고 부모님께 드리기도 했다.

갑자기 열다섯 살 잡히면서부터 돈을 많이 쓰거든요. 서로마다,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잘 보이려면 잘 입어야 되겠죠. 신발 좋은 거 신어야겠죠. 비싼 담배 피워야 되겠죠. 여자들 화장 해야겠죠. 더 갑자기 돈 쓸 일이 많고, 생일 회식 가야 되겠죠. 가서 먹어야 되겠죠. 그거 먹자면 체면 있지 계속 얻어먹기만... 자기도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돈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학교에 “선생님 저 오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나오겠습니다.” “어 그래? 가라.” 배가 아프긴 뭐 배 아파. 나와서 돈 버는 거죠. 돈 벌어가지고 좀 차면 아버님 담배 모자라면 담배도 사드리고. (사례 4 구술녹취록, 33)

위의 구술에서 보듯이, 고급중학교 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친구들과 어울려 돈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이 있어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 사례 4도 생일모임에 가거나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식당에도 가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사례 4는 이 돈을 마련하려고 종종 학교를 빠지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갔다.

사례 4는 고급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은 없다. 그가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악시간에 우연히 드럼을 배우게 된 것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손 놀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김정일 생일을 맞아 공연하는데 타악기 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원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는 북한 학교에서 잠시 배웠던 드럼을 한국에 와서 계속 배워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다. 젠더, 신분, 계층: “농장원의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농장원”

사례 4는 농장원의 자녀로서, 졸업 후에는 입대하고 제대 후에는 부모를 따라 농장원이 되는 진로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졸업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진로에 대해서 했던 생각은 전기 기술을 조금 배우려는 생각 정도였고, “특별하게 내가 뭐가 되겠다.”거나 “농촌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농촌에서 태어난 자신 같은 청년에게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대한 기

대감”은 가질 수 없었다. 아래 텍스트에서 보듯이 농촌 청년의 진로가 제약되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그는 북한이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사후적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적 인식은 한국에 와서 형성된 것일 뿐 북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옛날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마찬가지로, 그저 김정일의 아들은 무조건 왕이 돼야 하고, 상놈의 자식은 무조건 상놈이 되는 게 바로 북한 사회거든요. (중략) 아무것도 못 해, 농민의 자식은, 군사복무 딱 10년 하고 들어와서 다시 딱 농장원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사례 4 구술녹취록, 10)

농민과 노동자의 경제적 차이는 결혼 후 여성 배우자가 시장과 연계된 부업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결혼하면 노동자의 아내는 ‘부양’ 세대가 되어 국가에서 배치한 공식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시장경제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다. 반면, 농민은 결혼해도 부부가 모두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과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나 가축 부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지만, 땅에 갇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로 돈벌이를 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 농장원의 생활수준은 도시 노동자에 훨씬 못 미친다. 농촌 여성의 경우는 농촌 남성보다 노동자와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결혼을 통해 여성이 농촌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사례 4는 북한은 계급사회라고 하며 자녀에게까지 직업이 세습된다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북한에 있을 때는 농장원 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에 불만을 표시하지도 이를 극복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농장원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

각했다. 부모도, 주위 농장원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에 농장원의 자녀라는 신분이 가져다준 진로의 제약을 체념한 채 받아들였다. 농장원이 받는 차별을 자각하거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지 못한 채 “농장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가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화를 내가지고 바뀌어저요? 임꺽정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바뀌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난 그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난 그저 농사하는 기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야, 아무것도 못 하누나.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좋은 데 못하고. 그냥 손에서 호미를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로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저 머리를 찡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아, 이게 그저 농장원의 본분이로구나. 또 농장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드는 일로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무식했죠. 그만큼 아야 바보였죠. 완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례 4 구술녹취록, 41)

라. 속아서 탄 배에서 한 강제노동

사례 4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입대하기 직전, 지인의 소개로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배를 타게 되었다. 일주일 일하면 100달러를 주고 휴대전화도 준다는 말에 속아 입대 전에 돈이나 좀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배를 탔다. 작은 고기잡이배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례 4처럼 속아서 온 사람들이 10여 명 타고 있었다. 노동력을 모으는 중개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사람들을 모아온 것이었다. 사례 4는 평안북도 국경 해안 인근의 섬 부근에서 꽃게잡이 조업을 했다. 배에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먹

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강제노동을 한 것이다. 배에서는 같이 일하던 두 사람이 탈진 상태로 죽었다.

“야, 거기 나가면 그저 한 일주일이면 100달러 벌 수 있대.” 해가지고. (중략) “진짜냐?” “일주일만 죽어라 일하면 그렇게 되겠다.” 해가지고. “야, 너 같이 나가자. 이런 데는 놓치면 안 되지.” 그렇게 나갔거든요. 나갔다 그저 7월 말까지 한 녀 달동안 노예생활하고 아무 돈 10원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거의 죽지 못해 살아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할 수가 없는 게 바다 한가운데는 지옥이로구나. 거기서 누가 때리면 맞아야지. 저 바다에서 달아나겠어요? 뛰어내리겠어요? 그렇다고 뭐 주워 먹을 게 있어요? 배고프다고 여기서는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 먹고, “밥 좀 주세요” 하고 뭘 주워 먹고. 바다에서 뭐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는 게 바다거든요. (사례 4 구술녹취록, 18-19)

그는 배에 오른 후 “지옥 같은 노예생활”을 녀 달이나 한 후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노임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했다. 뼈만 남은 상태가 되어 돌아와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 석 달간 아버지와 함께 옥수수죽을 끓여 먹으며 누워지냈다. 그는 배에서 겪은 일을 신고했지만 보안원들은 “아,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다. 사례 4는 사람들을 속여 강제노동을 시킨 선주들은 보위부 같은 권력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신고해도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례 4는 몸을 추스른 후에 입대하기까지 돈을 벌기 위해 평안남도의 여러 탄광을 돌며 일공으로 일하기도 했다. 탄광에서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많아야 몇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마. 남한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청년의 탈북과 남한 생활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례 4는 2010년대 후반에 입대했다. 경제력과 인맥이 없었던 그는 환경이 열악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의 한 부대에 배치되어 군생활을 시작하였다. 사례 4는 군대에서 개밥까지 뺏어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고, 허기진 채로 계속 근무를 서다 보니 조는 경우도 많아 구타도 자주 발생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2020년 여름에 “모든 부대의 전투력을 동원하고 무력을 이동해서 국경과 해안을 완전 봉쇄하라.”라는 당국의 명령이 떨어져 대대의 인력이 국경 경비를 위해 이동하였다. 사례 4가 속했던 군대도 국경으로 이동하였다. 사례 4는 국경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만강도 처음 보고 건너편이 외국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군대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다. 사례 4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영하의 날씨에 근무를 서다가 잠이 들어 상관에게 구타를 당했다. 그는 상관에게 맞았다가 죽도록 매를 맞았고, 날이 밝으면 상부에 보고될 것이 두려워 무작정 철조망을 건너 두만강에 들어섰다. 그는 무사히 강을 건너 러시아 난민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사례 4는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남한은 “한심한 나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배워 러시아에서 살 생각이었다. 사례 4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군대의 교양 자료나 보도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만 접할 수 있었다. ‘한국’, ‘남한’이라는 말이 ‘남조선’을 뜻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남조선에서 착취와 억압 속에서 인간 이하의 개 취급을 받다가 죽지 못해 다시 삼팔선을 넘어 북으로 돌아온 이들”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는 건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난민수용소에서 만난 북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한국에 대해 보여준 후 그는 한국행을 선택했다.

한국으로 오게 된 사례 4는 하나원을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한 후 바로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였고, 북한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부하는 길을 택했다.

저희는 북한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해학적으로 말하면 북한에서는 밥그릇을 놓고 밥이 없어서 뭘 먹을지, 밥을 놓고 그거 밥알을 세어서 먹었다면 지금은 이만큼 긴 상에 음식을 한가득 해가지고 한 줄로 놓고 그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어느 걸 먹을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략) 이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내가 받을 어느 쪽에 디디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되고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죠. 수많은 직업, 수많은 선택, 수많은 희망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참, 그게 너무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거죠. (중략) 대한민국 학교에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마음껏 물어볼 수 있고, 마음껏 질문할 수 있고, 마음껏 논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저 북한에서 못다 한 공부, 지금 나이가 있지만 늦게나마 좀 실컷 배워보려고요. (사례 4 구술녹취록, 56)

위의 구술과 같이 사례 4는 북한에서는 공부해야 할 나이에 일만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늦은 나이지만 마음껏 공부를 해보고 싶다. 주어진 경로대로 따라가야 했던 북한에서의 삶과 달리,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렵고 고민이 되지만,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공부하고 묻고 논쟁하며 길을 찾아가는 지금의 삶이 감격스럽다.

바. 어촌에서 태어나 물질로 집안 생계를 책임졌던 청년: 사례 2

20대 초반 남성인 사례 2는 2000년대 초반 강원도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돈은 잘 벌지 못했고 어머니가 장사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아버지는 사례 2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당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 사례 2는 소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부모님이 공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자립으로 그냥 쪽 살아왔다.” 중등학교 재학 시기에는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고,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서 내라는 걸 잘 내지 않아 교사의 눈 밖에 나고 맞는 일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서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사례 2에게 학교는 한마디로 “놀음터”였다. 가방도 안 가지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을 놀리는 “망나니짓”을 하고, 수업 중에 창문으로 도망쳐나가 친구들과 과일서리하고 고기 잡으러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다. 학창시절 사례 2의 고민거리는 부모님을 도와서 해야 하는 집안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염소 풀 먹이는 일을 비롯한 집안일은 사례 2의 몫이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초급중학교 때 이후에는 “집안에서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사례 2가 도맡아서 했다.

사례 2는 학창시절부터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초급중학교 때는 약재로 쓰인다는 거머리를 잡아 팔아서 돈을 벌며 축구공도 사고 간식도 사먹고 집에 장판도 새로 깔았다. 고급중학교에 다니면서도 돈을 벌 궁리를 했던 그는 어느 날 친구의 어머니가 “사인 코사인을 몰라도 장사를 잘해서 잘산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살아가는 데 공부가 별로 필요 없다고 깨닫게 된다. 그는 “사회 나가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물질을 해서 돈을 버는 친구를 따라다니며 잠수기술을 배웠다. 어머니가 힘들게 시장장사를 해서

버는 것보다 자신이 물질로 해산물을 채취해 팔아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례 2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뛰어들었다.

물질을 하느라 1년 넘게 장기결석을 했는데, 졸업 무렵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면서 10년간 군대생활을 하는 게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한 사례 2는 선생님께서 얘기해서 입대를 피했고, 약간의 뇌물을 주고 조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직장에 배치받았다. 사례 2는 그 직장에서 매월 수익금을 내고 적만 걸어놓는 ‘8.3 노동자’가 되었다.

사례 2는 고급중학교 졸업 후에 잠수일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에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웠다. 고급중학교 때는 산소통과 잠수복 없이 얇은 바다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생잠’을 했는데, 잠수기술을 배운 후에는 잠수복을 입고 배에서 공급해하는 산소줄을 달고 좀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방식의 잠수를 했다. 잠수로 채취한 해산물은 중간 상인들이 사가고 수익금을 선주와 나누는데, 사례 2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달러(80만 원) 정도를 벌었고, 그중 13만 원을 직장에 납부했다. 사례 2가 본격적으로 잠수일을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장사를 그만두었고, 사례 2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벌이가 늘어났고, 사례 2는 “만 달러 모으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그 시기를 되돌아보며 “돈에 대해서 전심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사례 2가 본격적으로 잠수일을 시작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북한 당국은 국경과 해안을 봉쇄하였다. 사례 2가 살았던 지역에도 해안을 따라 ‘코로나상무’를 배치하여 바닷가에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웠다. 수산물 채취 및 이와 연계된 장사가 주수입원이었던 지역 주민들은 해안 봉쇄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

황에 처했다. 수입원이 완전히 끊겨 가재도구를 내다 팔아 연명하거나 집을 팔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도 생겨났다.

사례 2도 더는 잠수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황이 곧 호전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회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도 들려왔다. 사례 2는 몇 달간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지내자니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았고 무기력한 일상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간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했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직장에 내는 8.3 대금도 부담스러워져서 돈을 내는 대신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는 돈을 내던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직장에 나오니까 없던 일도 만들어서 힘들게 노동을 시켰다. 그는 돈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북한 사회에 대한 적응보다 정의가 끊어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고 직장 상사에게 대들기도 했다.

사례 2가 “먹기만 하고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집안의 경제 사정은 점점 안 좋아졌다.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에서 그는 탈북과 한국행을 고민하게 된다. 그는 북한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한국 상품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발전상을 짐작하였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내 입 하나 더는 게” 남은 식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탈북을 결심했고, 2021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사례 2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고,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니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불안했다. 일단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탈북민 대안학교에 입학했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대학 진학 시 북한에서 소속됐던 공식 일자리와 같은 직종의 전공을 선택하였고, 졸업 후에는 전공 분야의 기술직에 취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 성공하기 위해 군대에서 분투한 청년: 사례 6

1990년대 중반 평안북도 농촌지역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사례 6은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아버지가 중국과 밀수업을 하여 생활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집 밖에서 생활하여 세 식구가 함께 지낸 기억이 거의 없는데, 부모님에 대해 기억하거나 말하기를 꺼렸다. 아버지의 밀수업에 따라 집안 형편이 크게 좌우되어 쌀밥을 먹기도 했고 배고픔을 겪기도 했다. 사례 6의 구술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초급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보다 친구들과 산이나 들로 다니며 놀거나, 농산물을 모으는 등의 일을 해서 돈을 번 경험이 주를 이룬다. 사례 6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명목의 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학교에 가는 대신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나뭇가지와 열매를 모아 돈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였다. 적은 돈이라도 생기면 학교에 “바치거나” 먹을 것을 샀다.

2010년대 중반에 초급중학교를 졸업한 사례 6은 대부분 친구가 군대 나간다고 하여 자신도 “별 박고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군대에 지원했다. 다른 방식으로 노력해도 크게 될 가능성이 없어서 “별 달고 쪽쪽 올라가서 큰 간부까지 할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반대했으나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신체검사를 받은 사례 6은 처음 배치받은 군부대에서 1년 동안 신병훈련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어 군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 군사훈련 외에 나무를 하는 등 돈이 되는 다양한 일을 했다. “상관이 시키는 걸 잘하고 말 잘 들으면서” 우연히 친하게 된 친구들과 밥도 나누고 ‘도둑질’도 하여 돈을 벌기도 했다. 그런데 사례 6이 두 친구와 의리지키며 살자는 취지의 혈서를 쓴 것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뭐 없으면 사주고 배고프면 자기 돈 있으면 자기 돈으로 먼저 사주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세 명이서 그러니까 뭐 의리를 지

켜서리 살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 세 명이 혈서를 써가지고 완전 의형제를 맺자 해가지고 “형제처럼 살자.” 그렇게 썼어요. (사례 6 녹취록, 23)

심층면담에 따르면 옷에 감춰두었던 “복수전”이라는 글귀의 혈서가 발각되어 두 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고, 사례 6만 살아남았다. 복수전이란 글을 쓴 이유는 사례 6과 친구들을 괴롭히는 군관들에게 복수하자는 취지였다. 북한에서는 군대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조직을 결성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일로 사례 6은 다른 지역으로 조동되었다. 혈서 사건으로 더는 군대에서 승진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사례 6은 “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대원을 동원하여 주변 지역에서 돈을 벌어오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했다. 그는 각종 노역을 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부대 근처 리당 비서의 지원으로 장사하기 쉬운 곳으로 가기 위해 각종 뇌물을 썼다. 이듬해에 사례 6은 또 다른 지역의 부대로 이동한 후 운전사가 되어 편안히 돈도 벌면서 2년 이상 군사복무를 했다.

사례 6은 2010년대 말에 차 부속품도 구할 겸 집으로 왔다가 먼저 탈북한 아버지와 선이 닿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사례 6은 아버지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차피 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여 주변 친척들과 함께 강을 건넜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만났고, 지금은 강원도에서 특산물 농사를 하는 등 빨리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각 지역을 다니며 일하고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사례 6은 2010년대 중반부터 7년간 군대생활을 했던 세 지역에서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소개했지만, 그 이전 생활에 대해서는 생략하거나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군인으로서의 경험이 압도적이었다. 혈서 사건으로 인한 충격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 4, 사례 2, 사례 6은 북한의 농촌과 어촌 출신의 가난하고 미래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했던 20대 남성들의 삶을 보여준다. 세 사람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서 고난의 행군 이후 학교생활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 부모가 가난했고 권력이 없었기에 자녀들의 방패막이나 힘이 되어주지 못해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차별을 받았고, 학교를 빠지면서 일찌감치 돈벌이에 뛰어들었다. 사례 4의 경우는 대도시에 가까운 농촌임에도 한국 드라마나 외부 정보에 노출될 일이 없어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고 북한 사회에서 본인이 받은 대우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못한 채 배운 대로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북한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면서 한국행을 택한 사례이다. 반면, 사례 2의 경우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것이 취미생활이었고 아버지가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어 일찌감치 북한 사회에서 돈벌이로 삶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남한행을 혼자 결심하여 감행하였다. 이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부수입을 올릴 방도가 없이 농장에 매여 있어야 하는 농촌 청년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외부 정보와 부모의 영향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사례 6은 하층 계급 청년이 군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분투한 경험을 보여준다.

5. 더 편하고 전망 좋은 사업을 계획하던 사진현상공: 사례 14

가. 고지식한 교사 집안의 둘째 딸

2000년대 초반 함경북도 접경지역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례 14는 교사인 아버지와 집안 살림을 위해 장사를 했던 어머니, 언니와 생활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던 당시 집안의 형편은 상당히 어려웠다.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사했기 때문에, 사례 14는 유년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지낸 기억이 거의 없다. 교사였던 아버지가 질병을 얻게 되자 집안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 당시 북한의 교사들은 배급이 끊어져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학교에 출근해야 했으므로 어머니가 장사와 텃밭 농사로 네 식구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남편의 병간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00년대 중반에 국경을 넘었다. 당시 사례 14는 “멀리 돈 벌러 간다.”고 했던 어머니의 말로 어머니가 중국에 갔을 거라고 막연히 짐작했다. 사례 14의 어머니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비법’으로 국경을 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나이가 어렸던 사례 14는 어머니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어머니가 탈북한 후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언니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정생활을 꾸리고 구술자를 보살폈다. 언니는 집 근처의 탄광회사 소속 노동자로 탄광 일을 하면서 텃밭 농사와 작은 장사를 병행하여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갔다. 구술자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학교와 당에 헌신하는 모습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는 무능하고 나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저희 아버지는 물리를 가르치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는 정말 그 가장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셨지만, 아버지만의 인생을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존경받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생활에 충실하셨고, 조금 학교생활에 헌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3)

위의 텍스트에서 사례 14는 ‘최악’의 아버지와 ‘헌신’하는 아버지의 대비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집안에서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는 편이었다. 한편으로 주말이라도 학교에 일이 생기면 “긋은 일 마른 일 안 가리고” 학교 일을 해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사였다. 다른 한편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고 자녀들을 위해 생계를 돌보는 역할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로 살았다.

사례 14는 2000년대 후반 소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줄넘기, 땅따먹기, 축구 등을 하면서 평범한 학교생활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위축감을 느꼈다.

저는 이제 엄마가 없었지만, 그때 어린 마음에는 그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다는 것만으로 그냥 조금 뭐. 아예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불법적인 일로 이제 중국에 간 건 어차피 그, 거기 있을 때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시선이니까 그렇게 당당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5)

엄마 없는 아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비난하는 ‘불법행위’를 한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며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교에서 반장 등 학급 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신은 떳떳하게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 ‘인생의 터널’을 지나 사회활동을 준비하기

사례 14가 집 근처의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중국에서 북송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살던 동네에서 어머니의 탈북과 교도소 생활이 공공연히 알려지는 등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례 14는 이 시기를 모처럼 어머니와 한집에서 살게 된 시기로 기억한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것을 행복했던 기억으로 회상하였다.

제한된 조건과 감시까지 받는 답답한 환경에서 ‘전화 브로커’ 일을 하던 어머니는 2010년대 초반에 하던 일이 보위부에 발각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재탈북을 감행하여 한국으로 간다. 함께 산 지 1년 만에 다시 어머니가 사라진 상황에서 언니마저 결혼하여 집을 떠나게 된다. 당시 고급중학교에 입학했던 사례 14는 갑자기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집안 살림을 혼자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구술자는 이 시기를 “많이 힘들고 당황하고, 지금 생각해도 눈물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 인생의 “제일 큰 터널”로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랑 둘이 살게 됐는데, 그때 좀 가장 힘들었고,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이제 학교만 다니셨고, 교사다 보니까. 그러고 언니가, 엄마가 하던 가정 살림을 언니가 도맡아 했었는데, 그때 언니마저도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는 제가 감당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15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이 제일 큰 약간 터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많이 힘들고 당황하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물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시기가 있어서 지금은 잘 성장한 것 같아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2)

어머니가 재탈북한 지 1년 후에 아버지는 동네의 한 여성과 재혼하였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자 자녀들을 데리고 따로 살고 있던 여성이었다. 사례 14는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신 마당에 아버지가 평생 혼자 지내는 것도 불행이고, 그렇다고 자신이 평생 아버지의 생활을 책임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혼을 권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공식적으로 이혼이 되었으나, 새어머니는 법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와 살림을 합쳐 생활하는 방식의 가족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새어머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인성”을 가르쳐주고 사례 14를 “잘 이끌어 주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워주었다. 사례 14는 새어머니가 정이 많고 어려움을 “대담하게 잘 헤쳐나가는 대단하신 분”이라면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어른들’ 중에서 새어머니를 제일 존경한다고 했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으로 간 어머니가 사례 14에게 연락하고, 경제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사례 14는 이후 50만 원 정도씩을 1년에 3-4회 브로커를 통해서 받고 어머니와 통화를 하기도 했다. 사례 14에 따르면 이후부터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빈 자리를 새어머니가 대신하고, 어머니가 송금하는 돈으로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사례 14는 유년시절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고급중학교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위축감은 덜 느끼게 되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 공부를 잘하는 축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안 하고 놀지는 않았다. 사례 14는 특히 컴퓨터 관련 수업에 관심이 많았다. ‘정보기술’ 과목 교과서 수준이 꽤 높은 편이어서 대다수 학생들은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관심이 없었지만, 사례 14는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학

교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소조에 참가하여 워드, 엑셀, 포토샵 등 응용프로그램 사용법과 기초적인 코딩을 배웠다. 이때 기초를 익힌 컴퓨터와 사진 활용 기술은 졸업 후 사진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했다.

사례 14는 고급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근위대 훈련과 농촌동원을 꼽았는데, 농촌동원 가서 일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를 통해 생활력을 키우기도 하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힘든 고비를 이겨내면서 자신이 “좀 더 성숙된 모습”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역경 극복을 통해 성장한 청년’이라는 서사는 사례 14의 구술 곳곳에 등장한다. 앞의 인용문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모두 떠나고 “학교만 다니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된 ‘터널’ 같은 시기가 있어서 “지금은 잘 성장했다.”는 구술에서도 사례 14가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사례 14는 의사였던 외삼촌의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병에 걸린 외삼촌에게 주사를 놓는 등의 간호를 하면서 사촌언니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사진 찍는 취미를 공유했다. 이후 사진기로 친구들의 생일잔치나 놀러 다니는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급중학교에 다닐 때 사례 14는 한 남학생과 사귀기도 했으나 그의 군대 입대를 계기로 헤어졌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사촌언니가 어린 조카를 두고 탈북하여 한국으로 가자 구술자는 언니를 대신하여 조카를 돌보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어머니와 연락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 아버지의 재혼 등 사례 14의 가족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사진현상공의 인생 계획과 탈북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례 14는 “뇌물을 주고” 편의관리소 소속의 한 사진관에 사진현상공으로 취업하였다. 사례 14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머니가 탈북했다는 사실 때문에 “토대가 안 돼서” 대학 진학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학에 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다. 다른 탈북민들의 증언을 교차 분석해보면, 부모가 탈북한 경우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성적뿐 아니라 ‘성분’으로 대표되는 가정배경이 대학 입학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탈북으로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성장할 사람들” 대열에 끼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로 사례 14는 대학 진학이라는 진로기대를 일찌감치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민복무제’가 실시되어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들도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하도록 독려받았다. 사례 14가 다녔던 고급중학교에서 당시 졸업한 여학생의 25% 정도가 입대했다. 입대하려면 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입대를 희망하지 않는 여학생들은 키가 작다거나 몸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장배치를 선택했다. 사례 14도 이 경우에 해당했다. 사진현상공은 여성의 일자리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돈도 벌 수 있는 자리였으므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가 인민위원회의 인력배치 담당자와 친분이 있어서 뇌물을 전달하고 취업이 성사되었다.

사진관 일은 손님이 가져온 사진 수에 따라 이윤이 생기고, 월별로 책임자가 현상공에게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기본급은 사실상 사진관에 낼 돈과 지원금 등으로 지출되므로, 현상공의 경우 직접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해서 추가 수

익을 올리기를 원한다. 하루 8시간씩 주당 6일 근무에 대한 기본급과 위탁받은 사진현상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자기 손님 촬영과 사진현상으로 인한 수입은 온전한 자기 수입이 되는 구조였다.

사례 14가 처음 일했던 사진관 주변에 수해가 나서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사진관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조용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아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사례 14는 취업한 지 1년 후 시내의 번창한 사진관으로 옮기기 위해 편의관리소 관리인에게 제안을 했다. 기관·기업소마다 할당되는 돌격노동 동원을 기피하는 분위기에서 사례 14가 이를 자원해서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소에, 지배인한테 제안을 했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조금 잘되는 사진관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이유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T/O가 다 차 있을 테고. 근데 그, 저기는 청년돌격대라는 게 있어요. 삼지연 건설하고 막 이런 데. 그래서 “거기에 한번 제가 거기 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 갔다 오면 이제 시내에 있는 사진관을 보내주세요.”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줄게.”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돌격대 생활을 한 달 반 정도 하고 왔어요. 거의 두 달 하고 오고, 그러고 제가 원하는 이제 사진관에 가게 됐어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17)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돌격대에 자원했지만, 사례 14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철거 현장에서 집을 부수는 등의 육체노동을 하면서 기름 한 방울 없는 국물에 밥을 먹는 “상을 초월하는” 생활을 견뎌야 했다. 청년돌격대에서 돌아와 새로 옮겨온 사진관에서 사례 14는 개인 손님들도 확보하면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장은 여성이었고, 직원 몇 명이 함께 일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주말이나 명

절 등 사진 찍는 손님들이 많은 날에는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 했지만, 근무일에도 손님이 없을 때는 근무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근데 그게 주말이 없어요, 저희는. 명절도 없고. 어, 왜냐면은 즐거운 날에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거나 명절이거나 이러면 또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저희는 그날이 이제 근무하는 날이고, 여느 날에 “내가 볼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갔다 오거나 자유롭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바쁜 날들이 있죠. 명절이라거나, 제 손님인데 이제 좀 많다 이러면은 있고, 안 그러면 제가 오늘 시장을 가가지고 뭐 살 거 있어서 가고 싶으면 가고, 빨리 퇴근하고 싶으면 좀 가는 편이고. (사례 14 구술녹취록, 43)

탈북으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2년 동안 사례 14는 매월 약 10만 원 정도의 기본급과 현상작업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본인이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그 이상의 개인 수입을 챙겼다. 기본급은 기업소에 내는 돈과 각종 지원금으로 지출하였고, 기본급 이상의 인센티브와 개인 수입으로 비싼 옷을 사는 것은 힘들지만, 보통 먹고사는 등의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은 없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의 월급이 몇천 원 혹은 몇만 원에 불과했으므로 이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잘 버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스럽다고 느꼈다. 사례 14의 임금과 인센티브를 합한 월 20만-30만 원 정도 소득은 중하층 가구의 한 달 생활비 정도에 해당하는 돈으로, 미혼여성인 사례 14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사가 잘되는 사진관에서 개인 손님도 다수 확보하여 생활 터전을 마련해가던 사례 14는 직접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상을 경험하면서 촬영과 사진현상만으로는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다음에 뭐 사진이라는 게, 이게 지금 디지털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때 핸드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진사를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지만, 결혼식은 또 다 하잖아요. 결혼식이나 환갑이나 다 하니, 그때 상차림을 해요. 거기서는 뭐 꽃으로 세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배워서 내가 그 모든 거를 다 같이 하면은 한 번 해도 또 수익이 훨씬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터득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길거리마다 이제 매점같이 약간 생기는 추세였어요.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꽤 많이, 그래도 탄탄하게 조금 앞으로 계속 꾸준히 수입이 있을 것 같고, 살아가는 길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사례 14 구술 녹취록, 4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국영상점뿐 아니라 개인이 상점 운영권을 얻어서 상점을 운영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사례 14는 사진뿐 아니라 웨딩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싶었다. 국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돈과 약간의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서비스업체를 차리고 직원을 채용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분위기로는 여성이 20대 중반이 되면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사례 14는 “왜 그렇게 일찍 결혼하지? 내 삶이 없어지는데.”라고 생각하였다. 내심 혼자만의 젊은 시절을 많이 즐기고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례 14는 이와 같이 직업과 결혼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사촌언니가 있는 한국에 가는 것도 삶의 선택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와 연락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연락할 때마다 한국행을 권했다. 사촌언니가 갓난아기 때 두고 간 조카를 보살피면서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제 엄마 곁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다. 그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조건과 시기를 기다렸다. 무엇보다 한국의 어머니가 가능하면 빨리 한국으로 오라고 했다. 사례 14는 2019년 중국으로 건너간 후 어머니에게 연락하였다.

한국 시민이 된 사례 14는 대안학교에 다니며 대학입시를 준비하여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북한에서 살 때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고 어머니와 종종 연락했지만,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북한보다는 훨씬 잘산다.”는 정도였다. 한국에 와서 또래 청년들을 접해보니 북한 청년들과 “마인드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남북한의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남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 청년들도 원하고 있고 북한 사회의 환경에 맞게 해나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북한 청년들은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갖게 되면 “조금 커리어 세우고 좀 더 돈 많이 버는 데” 관심을 두는 정도인데 비해, 한국 청년들은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고” 할 일이 많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고 “자유로운” 것이 한국 사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14는 현재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례 14의 생애경험은 2000년대 초반 지방 도시의 중하층 계층에서 태어난 여성이 사회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

후 정보화와 시장경제 확대에 의한 직업세계의 변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례 14가 탈북 이전 시기에 고민한 두 가지 상반된 생애 계획(북한에서 살면서 직업경력을 개발하고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는 것과 탈북하여 남한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모두 “내 삶을 더 잘 살아가려는” 목표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기에 공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6. 결혼해서 ‘부양’으로 지내다 상점을 낸 기혼 여성: 사례 15

가. “깎지계” 살았지만 권력이 없었던 부모 밑에서의 삶

사례 15는 1980년대 중반 자강도의 광산 지역에서 태어났다. 사례 15의 어머니는 농장원의 딸이었는데 노동자인 아버지와 결혼하여 “계급을 바꿨다.” 부모님은 모두 노동자였지만 물자와 돈을 다루는 일을 했고 “깎지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굶거나 죽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았다. 사례 15는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자랐다고 회상한다.

어머니는 자녀교육에도 열심이어서 운동회 때면 담임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교직원들의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학교에 왔다. 어머니의 열성 덕분에 사례 15는 학교에서 임원을 하면서 교사의 관심을 받고 생활했다. 부모님이 사례 15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시험점수를 확인하는 일은 없었지만 사례 15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사례 15는 고된 노동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깨끗하고 돈이 생기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했던 회계원 같은 직업

이 그런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노동현장에 나가지 않고 편하게 일하면서 돈도 벌고 자녀도 키울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서부터 회계원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었다. 회계원이 되려면 재정전문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재정전문학교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할당이 학교에 한 개밖에 내려오지 않았다. 재정전문학교 입시 자격은 다른 학생에게 부여되었다. 부모님은 열심히 살았지만 “지반을 닦을 능력”은 없어서 사례 15가 원하는 진로를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그는 “그래도 자격증 하나는 쥐고 있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였다. 졸업 후 병원에 배치되도 병원의 공식적인 업무로는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례 15는 낙태 등 비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조산원 일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전공했다. 전문학교 졸업 후 산부인과에 배치되기를 원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 부모님은 인맥과 경제력을 동원해 사례 15를 원하는 자리에 배치받도록 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그는 인기 없는 수술장 간호사로 배치받게 되었다.

사례 15는 용돈도 못 되는 수준의 임금 이외에는 별도 소득이 없는 수술장 간호사로 일하면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님이 사주는 옷을 입고 직장에 다녔고, 용돈도 부모님에게 받아서 썼다. 부모님은 은퇴 후 집에서 돼지를 키우며 곡주를 만들어 팔아 생활하였다. 춘궁기에 식량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많이 붙여 되돌려받는 ‘식량 고리대’도 하였다. 북한에서는 배급을 주는 직장이 드물고 임금은 쌀 몇 킬로그램 가격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는 미혼의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 15도 결혼하기 전까지 6년간 부모 그늘에서 “편하게” 직장생활을 했다.

구술자: 여기하고 틀린 게 아가씨 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부모한테 있을 때는 그냥 부모가 해주는 대로, 부모의 생활방식대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일단 출가해서부터 자기가 생활을 꾸리는 거거든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출가해서도 한 몇 년은 살림을 도와줘요.

연구자: 그럼 전문대 3년까지 공부시키고 간호사 돼서 왔는데도 밥 먹여주고 생활을 도와주나요?

구술자: 그게 응당한 거예요, 그냥. (사례 15 구술녹취록, 42)

그는 당시에 자신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자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편하게 직장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간호사 생활을 했고, 결혼해서 살림하면서부터는 “직업을 때려치웠다.”

나. 권력이 없는 집안끼리의 결혼

결혼적령기가 된 사례 15는 남편감을 만나기 위해 주위의 소개를 받아 선을 많이 봤다. 아버지가 “가정일이나 애들 일이나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다 뭐든 하려고 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사례 15는 아버지같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다. 배우자로 선호했던 조건을 사례 1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빠같이 인자하고 잘해주는 사람, 가정에 충실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리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당원이고 직업이 좋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은... 되게 불행하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랑 행복하게 살은 게 저는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의 모든 빈구석을 아빠가 다 채워줬거든요. 엄마가 회계 부기라는 게 되게 바쁜 직업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빠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사례 15 구술녹취록, 20).

사례 15는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은 원래 평양 출신인데, 부모님이 문제가 생겨서 평양에서 추방당하는 바람에 사례 15가 살던 지역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외화원천’을 모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일을 했다. 사례 15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간호사는 별다른 보수도 없이 종일 병원에 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은 결혼하면 병원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한다. 사례 15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닭, 돼지, 개 등 가축을 기르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다가 무역일을 하던 남편이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남편이] 무역 그런 거로 했는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한쪽 다리를... 저승길이라고 하나, 그런 데다 발 한쪽을 들여놓고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불법 비법이 꼭 따라야 되고, 만약에 돈을 좀 잘 번다고 하면은 무조건 법이 붙어요.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죠. 그냥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처럼 딱 증거가... 이 사람이 분명 사람 죽인 거 같고, 이 사람이 분명 불법한 거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못 잡아들이잖아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데니까. 부모님들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솟구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21)

위의 구술에 따르면, 북한에서 무역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은 잘 벌지만, 돈을 벌려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법적 처벌의 위협을 안고 있다. 사례 15는 이런 상황을 “저승길에 발 한쪽을 들여놓고 일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돈을 잘 벌게 되면 견제하는 세력도 생기고, 뇌물을 받고자 협박하는 이들도 있어 무역하는 사람

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죄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사례 15에 따르면, 그의 남편도 돈을 좀 잘 벌게 되니 모략을 당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사례 15는 북한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힘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다. 남들보다 앞선 상점 운영

남편이 감옥에 간 후, 사례 15는 남편을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는 2010년대 중반에 시장에서 식료품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 기혼여성이라도 45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은 시장에 나와 앉아 장사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례 15는 어머니 이름으로 매대 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장사했지만, 검열을 피해 장사하는 일이 수월하지는 않았다. 계속 장사하려면 관리소장과 안전원을 비롯한 각종 단속요원에게 뇌물을 줘야 했다. 사례 15는 나이 제한이 없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2010년대 중반에 시장 매대 장사를 그만두고 상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상점은 국가로부터 상점 운영 승인을 받은 상점의 소유주인 기관이나 기업소, 상점 책임자가 실제로 상점을 운영할 상인에게 운영권을 불하해주고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유행하게 되었는데, 사례 15는 상점 운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상점일을 시작했다.

시장보다 상점을 하려고 하는 그 선호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편하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진열해놓고 사람 오면 팔 수 있고,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문만 걸어 잠그고 일 보러 갈 수 있고, 저녁에 퇴근도 문만 잠그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내가

상품을 다 끌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퇴근할 때는 다 끌고 들어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상품을 100% 다 가지고 나갈 수 없잖아요. 제한돼 있거든요. 팔 수 있는 게, **상점 하는 게 돈도 더 많이 벌고, 편리하고, 편하고.** 그런데 옛날에, 그때 어렵지 않을 때 저는 상점을 구했어요. 선호도가 높지 않을 때, 그렇게 하고 그 상점에 사람을 들여놓는 거 자체를 그 상점이면 상점, 총책임자면 책임자가 사람을 봐요. 네, 와서 좀 잘하겠는지, 아니면 좀 하다가 나가겠는지. 그런 거를 보고 사람을 받고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받거든요, 상점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또 좀 시대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잖아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41)

상점은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진열해놓고 팔 수 있고, 상품 보관도 용이해서 시장 장사보다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다. 사례 15는 과자, 사탕, 과일, 음료수 등을 팔았는데, 잘 팔릴 것 같은 물건을 도매꾼에게 필요한 수량만큼 주문하면 개인 배달차가 물건을 배달해 주었다. 북한도 생활수준이 올라가서 식량 외에 과자, 사탕, 과일 등도 다 갖춰놓고 팔았고, 외국 상품도 밀수하거나 화교 등을 통해 들여왔다. 사례 15는 남들보다 좋은 상품을 잘 골라서 빨리 준비해 놓아 돈을 잘 벌었다. 한 달 수입으로 3,000위안 정도 벌었는데, 이는 동네에서 상위 30%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상점 책임자들은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는데, 이는 젊은 사람들이 “시대를 빨리 읽어” 장사수완이 좋았기 때문이다.

사례 15는 상점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장사해서 번 돈으로 뇌물을 줘서 10년 형을 받은 남편의 형기를 낮추었다. 그 덕분에 남편은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라. 자녀의 진로 때문에 결심한 탈북

사례 15는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켜 교원이나 검사를 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남편이 감옥을 가게 되면서 자녀들의 진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것이 사례 15와 남편이 탈북을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남편이 직업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것도 탈북을 고민한 이유였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애 아빠의 여운이 애한테 까지 계속 간다.”는 것이었다. 자녀들의 입당과 취업에 자신의 전과 기록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남편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북한은 아빠가 만약에 그런 전과가 있다고 하면은 애들한테까지 다 피해가 가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피해도 가고.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되게 잘해줘서 편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제한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한이 딱 돼 있으니깐 다 못하잖아요. 여기 오면 그래도 애들한테는 자유롭게,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사례 15 구술녹취록, 21)

위의 구술에서 보듯이 사례 15와 남편은 부모의 권력이 자녀의 진학과 취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북한에서 남편의 전과기록 때문에 자녀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탈북을 고민하였다. 상점의 물건과 오토바이 등의 재산을 처분하여 탈북자금을 마련하였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도 보고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도 얻었지만, 탈북 당시에는 한국행을 결정하고 떠난 것은 아니었다. 사례 15의 가족은 중국 신분증을 돈으로 구입해서 중국에 머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결국 한국행을 결정하였다. 국경이 삼엄하게 통제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 내의 이동도 어려워지면서 브로커 비용이 크게 상승해서 사례 15의 가족은 많은 비용을 들여 한국으로 들어왔다.

사례 15는 한국에 와서 음식점과 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 매여 있어야 하고, 노동강도도 북한보다 훨씬 높았다. 생활에 여유가 없고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를 돌보기가 어려웠다.

[북한에서는] 눈 뜨면 나와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 오면 팔고 이렇게, 상품이 없으면 들여오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았어요. 여기 와서 알바랑 하면서 보니까 진짜 처음에 알바 시작할 때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을 했는데, 애들이 아파도 알바생이니 까 가서 식당 가게 일을 하면서 비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비우면 그저 사장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애들이 아파도 집에 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도 갈 수도 없고. (중략)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그런 생각. (사례 15 구술녹취록, 50)

사례 15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 왔는데, 일해서 돈을 버느라고 자녀들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자 한동안 탈북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자녀를 돌보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보험사 영업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현재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 위로가 된다. 남편은 한국에 와서 쉽게 일을 찾지 못했다. 육체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집에서 쉬었지만, 고된 식당일을 하는 아내를 도와 가사일을 하지도 않았다.

안 바뀌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남자들이] 북한에서처럼 살려고 하니까, 내가... 여자들이 힘든 거예요. 집 일도 안 해, 밥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애들 돌봄도 안 해, 일도 안 해. (중략) [남편이] 빠릿빠릿한데 여기 와서 누구 밑에 가서 현장일이나 그런 막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마찰도

있었어요. 그냥 서로 맞지 않으니깐 따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중략) 안 해요. 북한 사람 안 바뀌어요. 여기 남자... 여기 오니까 남자들이 설거지도 하고 고기도 굽고, 여자들이 같이 앉아 밥 먹는데 남자들이 전문 앉아 땀 뻘뻘 흘리며 고기 굽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 (사례 15 구술녹취록, 51-52)

북한사회에서는 위계적인 젠더관계 속에서 여성이 시장활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집에 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다. 사례 15는 한국에 와서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가부장적 태도를 취하는 남편을 더는 용납할 수 없어 남편과 이혼하였다.

사례 15는 노동자 계층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부모님 밑에서 경제적으로는 위축되지 않았지만 권력이 없어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상점주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한 사례로, 이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북한의 시장경제를 엿볼 수 있다. 사례 15는 남편이 감옥에 다녀온 후 자녀들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한국행을 택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토대와 부모의 권력이 자녀 세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IV. 북한 청년의 가족, 학교, 직업 세계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 청년의 가족, 학교, 직업 세계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청년들의 개별적 생애사례에서 드러나는 생애경험의 특징을 부모의 기대와 자녀교육,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학교경험과 진로, 일터와 노동이라는 네 가지 주요 영역과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네 가지는 가정, 이성관계, 학교, 직장이라는 일반적인 삶의 영역과 연관되는 것일 뿐 아니라, 생애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북한 청년들의 청년기 삶의 주요 주제이며, 청년기의 일반적인 발달과업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16/}

1. 부모의 기대와 자녀교육

가. 스스로 성장한 부모들의 ‘인생 기획’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북한 청년의 부모들은 김일성 정권이 마련한 1970-1980년대 무상교육체계에 따라 교육받고 사회 각 부문으

^{16/} 로버트 J. 헤비거스트(R. J. Havighurst, 1972)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자신의 신체를 수용하기, 남성적 혹은 여성적 역할을 채택하기,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동성 및 이성의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기, 유능한 시민으로서 지적기능과 개념을 획득하기, 결혼과 가족생활을 준비하기, 직업생애를 준비하기, 개인적 가치 혹은 윤리체계를 확립하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성취하기 등 9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R. J. Havighurst, 장휘숙 2010, 2 재인용).

로 배치되었다.^{17/} 그러나 빠른 지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식량난과 이후의 시장화라고 하는 “동란”을 겪게 되자 부모세대는 국가와 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력갱생의 길을 실천하고 있다. 배급이 중단되는 등 기존의 사회체계가 무너진 후 북한의 노후보장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18/} 주민 대부분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개인 보장’을 하거나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양로원에 갈 수 있는 등 부계 장손에 의한 노후보장을 당연히 생각하나, 최근에는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다. 고난의 행군을 지나 시장경제의 도입 등 김정은 정권 시기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자녀의 장래 준비가 부모들의 ‘인생 기획’이 되고 있다.

배급제도와 무상교육^{19/}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고 토대와 당성, 학력 등에 따라 개인의 직업이 배치되었던 ‘과거의 국가’는 사라지고, ‘돈’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권력, 인맥, 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녀들의 살길을 직접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 부모가 능력이 있든 없든 자녀가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17/ 이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현재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이들의 부모들은 주로 1960-1970년대 출생자들이다.

18/ 북한은 최근 국제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회보장법(2008년)과 연로자보장법(2007년)을 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 및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이하 VNR), 35). 또한 2015-2020년 사이에 고아와 독거노인 등을 위한 육아원, 보육원, 초·중등학교와 양로원 67개를 설립했다고 국제사회에 보고했다(Government of the DPRK 2021 VNR, 13-14).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혜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 북한은 1956년 4년간의 초등의무교육제 실시를 시작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9월부터 종전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년 연장하여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향규 2010, 112; 조정아 외 2015, 19).

‘총대’를 준비하던 과거의 가족이 아니라, 김정은 시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의 재생산 단위로 변화된 가족의 특성이 두드러진 결과이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먹고살기 “바쁘지 않은” 중상층 이상의 부모들은 이른 시기부터 자녀의 인생을 “착착착착” 설계하고 실천한다(사례 3, 사례 10). 빠르면 소학교 3-4학년 무렵부터 부모가 “너는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해라.”라고 짚어주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는 경우 자녀는 부모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학교에 다니며 사회생활의 길을 준비한다. 부모의 권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될 경우, 남성은 대학 졸업 후 군복무와 입당이라는 조건을 갖춰 당 간부가 되는 길을 택하고, 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뒤 적당한 직장에 다니다가 ‘좋은 곳’에 시집가는 방식의 젠더화된 진로를 따라간다(사례 8, 사례 9, 사례 11). 부모세대에 속하는 사례 18은 자녀들이 인민학교에 들어갈 무렵 교사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아들의 영재교육을 시작했다. 아들이 인민학교 3학년 말부터 지인이 소개한 최고 실력의 수학교사에게 개별교수를 받도록 지원했다. 아들은 인민학교 시절 전국 속셈 경연을 거쳐 중학교에서는 국제 올림피아드를 목표로 공부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때 김일성소년영예상을 받았다.^{20/} 뛰어난 수학영재로 인정받은 사례 18의 아들은 2000년대 중반 평양의 중앙대학으로 진학하였다.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상층의 경우 ‘기술’을 토대로 한 의사, 과학자, 교사 등의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토대와 권력이 없이는 당 간부로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사례 17, 사례 19). 부모들은 자녀의 소학교 시절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자

20/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은 최고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청년동맹원과 소년단원에게 수여되는 최고 표창이다(신영철 2016, 75).

격증 하나라도 쥐여주기 위한 경쟁'에 몰입한다. 1960년대 후반 지방 도시에서 출생하고 1990년대 초반에 결혼한 부모세대인 사례 5는 두 자녀를 출산한 직후부터 장사하여 돈을 벌었다. 이를 토대로 딸은 교원대에 보내고, 아들은 의대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3대 독자 장남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최고 실력을 갖춘 선생을 물색하는 등 뒷바라지를 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는 아들을 목표로 대학에 보내려고 “총구 앞의 큰돈”을 벌고자 브로커를 결심하였다.

권력과 경제력을 모두 갖지 못해 살기에 바쁜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2000년대 초반에 지방에서 출생한 사례 2의 집안은 아버지가 돈을 잘 벌지 못해 어머니가 장사로 생계를 유지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입당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경제적으로 지원할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사례 2에게 일찍부터 돈을 벌어 생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농장원의 자녀인 사례 4는 소학교 시절부터 공부보다 돈이 되는 노동을 하였다. 함경북도 도시지역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사례 20은 중학교 때 부모님의 지원으로 음악교사에게 춤과 노래를 배워 돈 벌 수 있는 길을 준비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대학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 신분제의 새로운 경로와 ‘신분 바꾸기’

중학교를 졸업하면 적지 않은 여성들과 남성들의 대부분이 군대에 가고, 이를 바탕으로 입당하는 것이 북한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주요한 경로다. 지주 집안 혹은 교화소를 다녀온 부모,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는 등 토대가 나쁜 경우를 제외한 남성은 군복무를 마치면서 입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군대가 ‘자력갱생’을 하게 되면서 부모가 군대 간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는 양상

이 생겨나고 있다(사례 9, 사례 10).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최소 10만 원 내외의 돈을 보내줘야 자녀가 어렵지 않게 생활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사례 15는 이런 현실을 “애들은 군대 나가서 군사놀이하고, 군사복무는 부모들이 한다”라고 표현하였다.

먹고살기에 바쁜 부모들의 경우 아들을 군대에 보낸 후 제대하지 않고 군관이 되는 길을 대안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아들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군대에서 먹고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사례 6). 그런데 5-7년 군사복무 후 입당하고 군관학교에 가는 경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이 또한 실현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선군정치에 따라 군부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대부분 자급자족해야 하는 군인들의 실제 생활 조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알고 있는 부모 중에는 가능하면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 길을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복무 후에 입당해도 이후 확실한 경제력으로 뒷받침하지 못해 성공할 길이 막연한 경우 “군대 가서 10년 있으면 좋은 시절 다 가고 필 게 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례 15의 부모는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아들은 “무조건 군대를 내보내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했고, 대학에 보낸 후 교원이나 검사 쪽으로 키울 생각을 하였다. 사례 5의 경우 아들을 입대시키는 대신 군복무로 인정되는 지역 체육단 소속 선수가 되도록 하였다. 사례 20은 2011년 김정일 사망 직후 “이번 졸업생은 모두 군대 보내라.”라는 조치에 따라 입대가 예정되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세수도 안 하고 뛰어다녀서” 결국 입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자녀의 입대를 피하는 부모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군복무와 당원증을 토대로 한 직장배치가 사회적 효

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 일군이 될 수 있는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상층 집안 이외에 군복무와 당원증의 쓸모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며, 필요할 경우 ‘돈’과 ‘빚’을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군복무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즉 군복무와 입당을 통한 정치사상적 교양을 토대로 북한 사회의 중간계급을 양성해온 체계가 ‘돈(자본)’을 바탕으로 한 무역사업 혹은 장사라는 다른 경로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토대와 당성 그리고 학력이 결합된 ‘신분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이다. 즉 부모의 신분에 따라 “농장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몇 대를 거쳐 농장일을 하고, 당 일군 자녀는 대를 이어 당 일군을 하는” 체계가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다(사례 4). 사례 15에 따르면, 2016-2017년 무렵 “부모가 농장원이면 무조건 농장으로 제대시키라.”라는 지침이 내려와 농장원인 부모들이 딸을 시집보내기 어렵게 된 적이 있었으나, 그 시기가 지나면서 효력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도 농장원 혹은 노동자의 세대 재생산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기존의 신분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21/}

농장원인 남성의 경우 땅에 결박되어 돈을 벌지 못하고, 결혼한 여성 또한 농장원이 되어야 하므로 노동자인 여성이 농장원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사례 15의 어머니와 같이 농장원 집안의 여성은 노동자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경우” 부양으로 장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분 바꾸기’에 해당한다.

청년들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고급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이수 후 국가배치를 통해 경제적 독립을 하여 성인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21/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2022년 농촌살림집 건설로 농민들을 토지에 결속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장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주민들의 행위전략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박희진 2023, 133)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학교교육을 마치기 전에 장사 등의 길을 택하거나, 중상층의 경우 학교교육을 마친 후에도 10여 년에 걸친 ‘모살이’를 해야 하는 등 성인으로의 이행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중하층 여성들의 경우 ‘무리 배치’의 대상이고, 결혼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경제적 독립의 길이 막혀버렸다. 미혼 여성들 중에는 뇌물을 주고 배치된 공식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이 뒤따른다. 사례 20에 따르면, 여성 중에는 미혼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위장 결혼’을 한 후 이혼으로 ‘신분 바꾸기’를 하는 시도들도 있다.

다. 부모의 가정교육과 자녀들의 ‘이중 사회화’

‘고난의 행군’ 이전의 북한 사회에서 성장하며 정치사상 교육을 받은 부모세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의 방침을 따르고 집단 과제에 헌신하는 것을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였다(사례 4, 사례 5, 사례 14). 교육자 집안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사례 5는 2월 16일, 4월 15일 등의 기념일에 탁아소 간식이 나오면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먹게 하는 등의 소양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사례 5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어린 아이들만 집 안에 가두고 다니는 일이 다반사였고, 자녀들의 관심과 희망 사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먹고사는 방편이 되는 진로를 사례 5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집안에서 장사가 생계수단이 된 200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없는 ‘빈집’에서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고, 헌신적인 노동자보다 ‘밀수’로 돈을 버는 부모를 부러워하는 분위기를 겪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다양한 영상물로

북한의 현실과 전혀 ‘다른 사회’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성장하는 ‘이중 사회화’를 경험했다. 1960년대 중반 국경 지역에서 출생한 기성세대인 사례 19는 2000년대에 의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수입은 없었다. 교사였던 부인이 장사하여 생활을 유지하였다. 사례 19와 부인은 다양한 영상물을 몰래 시청하면서도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출처 불명의 노래를 부르는 등 “당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라는 교육을 철저히 하였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집에서 부모가 있을 때만 보고 듣는 것을 묵인했지만 잘못하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생각에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도록 하였다. 구술자는 북한 사회를 “낮과 밤의 사상이 달라지는” 사회로 평가하였다.

가족 사회화의 과정에는 정치사상과 더불어 가부장적 젠더관계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대부분 가정에서 실질적인 생계노동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단지 ‘하찮은 여성’으로 대하는 아버지와 사회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 스스로 “여자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알고 눈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등의 교육으로 “북한에서는 여자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 외에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아들과 딸의 영재교육을 지원한 사례 18도 대학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아들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성공을 바랐지만, 딸에게는 사회에서 고생하지 않고 ‘좋은 집안’에 시집가기를 희망했다.

2. 청년들의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이번 사례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전후 CD-R과 USB, SD카드를 통해 확산된 외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 등의 영상물이 북한 청년들의 일상과 섹슈얼리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문화생활이 거의 부재한 북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전달되는 영상물로 동시대의 남한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킨 매개물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영상물에 대한 공식적인 단속이 강화되었으나 이런 경향을 역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22/} 현재 20-30대 청년들의 경우 10대 시절부터 본 영상물을 통해 북한과 다른 ‘로맨틱한’ 연애문화에 공감하고, 다양한 자기표현 방식을 모방하며 새로운 청년 문화로 재구성하고 있다.

가. 연애의 기술과 장소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청소년도 중학교에 다니며 연애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크다. 지방 도시에서 2010년대 중후반에 고급 중학교를 다녔던 사례 1에 따르면, 당시 학급에서 30-40%가 연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0대 중반 사춘기 시절인 고급중학교 남녀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는 연애이고, 이와 관련된 감정 소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부에 몰두해서 ‘성적’ 관리를 하는 소수 외에는 연애가 공통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남학생이 먼저 “나랑 사귄래?”라고 고백하면, 여학생이 “그래” 하고 받아주는 방식으로 관계가 생기고, 이렇게 사귀는 날

22/ 2017-2019년 교사로 재직했던 사례 3에 따르면, ‘109(상무)’로 불리는 불순녹화물 단속반이 가방 속 USB를 검열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 ‘신작’을 바꿔보기 위해서 주머니에 USB나 SD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1일’이 되는 것이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남학생은 “얼굴이 예쁜 여학생”을 선호하고 여학생은 “싸움 잘하고 무리 중의 리더로 남성스러운” 상대를 멋지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학교마다 형성된 ‘패’의 우두머리인 경우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런 분위기에서 남학생 중에는 과격한 방식으로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큰 부담을 주는 학생도 있다.

북한 남자애들 중에 그게 있어요. “100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진짜 무서워서 “아, 그래 사귀자.”라고 하는 여자애들도 꽤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은, 네, 그리고 “너 나랑 사귄래? 안 사귄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말도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두운 밤에 골목길에 누구도 없는 데서 만약에 그 친구가 안 사귀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귀는 친구들도 있고. (사례 1 구술녹취록, 20)

위의 텍스트에서 어떤 경우 남학생들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폭력적’이며 여학생 중에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밤거리 성폭력을 연상하게 하는 묘사는 여학생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점은 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100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함축하는 남성 중심의 행동방식에 대해 사례 1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 여성이 받아들일 때까지 100번 이상이라도 표현하여 ‘ 짝어 넘어가게 ’ 하는 것이 당연하거나 ‘남성적인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 의문을 갖기는 하지만, 이것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명하지는 못하는 것이

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 성 건강과 폭력에 대한 국가정책이 부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23/} 사례 1의 경우 중학교에 다니며 “개 남자친구 있다더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부분 학생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두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남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서 연애도 하고, 다른 남학생들의 귀찮고 ‘두려운’ 접근도 막자는 생각이었다.

구술에 따르면,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는 학생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는 ‘발랑 까졌다’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서로 떨어져서 걷는 등 친밀성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데이트는 주로 골목길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일 혹은 기념일에 선물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한다. 또 연애관계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가족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기도 한다. 집안이 부유하여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통보문(문자)’을 주고받기도 한다.^{24/}

중학교 시절 집을 떠나서 농촌 동원에 참여할 경우, 한 달 혹은 두 주 정도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남자친구는 무거운 광주리를 들어주거나 친구들을 시켜서 여자친구의 힘든 일을 거들게 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고, 여자친구는 ‘빨래해주기’로 갚음을 하며 서로의 관심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서든 엄마들이 다 빨래해주다 보니까
남자들이 한 번도 빨래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떡

23/ 북한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 및 직장 내 강간 등 일부 유형에 대해 양형을 낮춰 2012년 형법을 개정했다. 또 2017년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영자 외 2021, 83)

24/ 2021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49세 휴대전화 가입자 중 남성의 비율은 55.7%, 여성은 47.9%이다(Government of the DPRK 2021 VNR, 24). 외부로 연결되는 인터넷은 없고, 인트라넷을 통한 소통은 가능하다. 휴대전화 기본 사용의 경우 한 달에 20개의 문자와 200분 무료통화로 제한되어 있고, 돈을 내면 문자 추가나 통화 연장이 가능하다. (정은미 외 2021, 148)

게 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밖에 없으니까, 어찌면 그게 하나의 시그널인 거죠. 남자들은 감자동원 같은 때는 광주리랑 호미 들고 가고, 그것도 무겁거든요. 산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 들어주고, 네, 또 좀 도와주고, 그런 게 어찌면 도와주고 서로 되갚아주는 거죠. 남자들로서 여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빨래 빨아주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로 된 거 같긴 해요. (사례 1 구술녹취록, 77)

위의 텍스트에 묘사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을 떠나 노동하는 먼 농촌 마을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와 방식은 서로 상대의 힘든 일을 도와주는 행동이다. 육체 노동이 주가 되는 동원 활동 중 학생들은 집과 학교에서 익숙해진 성 역할을 통해 친밀성을 표현한다. 즉 남학생은 육체노동을 대신해주며 마음을 표현하고, 여학생은 가사노동의 일종인 빨래하기로 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북한의 ‘빨치산 회상기’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밥과 빨래 지원을 하는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문화적 코드가 작동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젠더화된 노동으로 각자의 친밀성을 전달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대부분 고급중학교 교사들도 말로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직접 제재를 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대체로 “눈치 있게 걸리지만 말고, 공공연하게 하지 말라.”라는 태도를 보인다. 여학생끼리 손을 잡고 걷거나, 남학생들이 서로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등 한국 사회에 와서 알게 된 ‘동성애’에 대한 감수성은 없다고 한다. 즉 청년들 사이에서 이성애가 ‘당연하고 정상인’ 친밀성으로 전제되고 있다.

대학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지만, 대부분 자유롭게 연애를 한다. 성인이 된 학생들은 친구에게서 마음에 드는 여

학생을 소개받거나 전체 대학 행사 등에서 남학생이 사귀자고 제안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평양이나 대도시의 남녀 대학생들은 함께 호프집에 가거나 도시락을 싸서 조경물이 잘 조성되어 있는 열사능과 같은 곳으로 소풍을 다니며 데이트를 한다. 또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근처의 좋은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 국영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요리를 시킨 후 노래도 부르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보통 남학생이 돈을 많이 쓰지만, 대학생의 경우 경제 수준이 비슷하여 같이 비용을 나눠내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 두드러진 점은 많은 청년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주인공들처럼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20대 남성 중에는 직접 요리를 하거나 여성에게 이벤트 혹은 각종 선물을 준비하는 등의 연애문화를 실천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구술자: 정말로 네, 제 친구들도 보면 이벤트도 해주고 서프라이즈도 정말 해주거든요, 여자친구한테. 뭐 기념일도 챙겨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꽃다발도 문에다 걸어다가 줘보고.

연구자: 그것도 다 드라마 보고 배운 거예요?

구술자: 네. 그건 저희가 뭐 아이디어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딱 그게 보면 네, 평양에 갔는데 출장 갔다가 오면 선물 꼭 챙겨다주고. 저희 친구들은 남자들이 더 잘했어요. (중략) [드라마의 영향이] 정말로 정말로 커요. (사례 3 구술녹취록, 115-116)

사례 3에 따르면, 위와 같은 청년들의 연애문화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연스럽게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연애관계에서는 한국 드라마 속 로맨틱한 연애 방식과 말투를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 1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속 대사인 “나 너 좋아하냐?”라는 말을 따라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호칭으로 ‘오빠’, ‘자기야’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II장에서 살펴본 대로 청년들의 사상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말투이다. 청년들의 일상생활과 이성관계에서 한국식 문화와 호칭이 유행하자 북한 당국은 이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학교에서도 생활지도로 이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단속반이 거리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서 휴대전화 안의 통보문을 검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통보문을 주고받는 연인들의 일상에서는 한국식 애칭과 말투가 상당히 통용되며, 가까운 학생들 사이에서는 남한식 ‘욕설’이 공유되기도 한다.

나. 변화하는 젠더관계

연구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30대 후반의 사례 15(여성)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남자들은 안 바뀐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남한으로 온 후에도 식사 준비와 청소, 자녀 돌보기 등의 재생산노동은 당연히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남편과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20-30대 초반의 청년들은 부모세대의 가부장적인 관계와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다.

저기[북한]는 대부분 지금 시장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다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누워가지고 “밥 차려라, 물 가져와라. 불 피워라.” 이거는 아빠들이 무조건 앉아가지고... 되게 가부장적이었는데, 지금 저희 세대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말도 예쁘게 하고, 네, 그리고 여자를 깔보는 것보다는 되게 무서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마인드도 좀 없어졌고, 또 남자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평등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래 친구들은. (사례 1 구술녹취록, 74-75)

위의 텍스트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상호 대비되는 묘사와 설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반부는 시장화 이후 집안일과 가족부양이라는 이중 노동을 감당하는 여성과 직장에 매여 있으나 배급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서 가부장의 권위만 강요하는 남성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전형적인 부모세대의 ‘젠더관계’를 보여준다. 후반부는 2000년대 출생인 구술자 또래의 젊은 남성들이 부드러운 말투와 행동뿐만 아니라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놀려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평등한 관계’를 선호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세대와의 문화적 연관성이 확인되는 30대 중반 세대와 20대 중반 청년 사이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차이가 상당할 정도로 일상문화의 변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으며 ‘문화적으로 깡’ 20대 청년들의 경우, 연애를 하면서 남성이 주방에서 요리도 하는 등 변화된 성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친구들과의 여행에서도 남학생들이 고기를 굽고 세팅하는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 사례 3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의 남성들이 설거지도 잘 하고 여성도 잘 돕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새로운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집안의 남성들이 더 가부장적이고 “봉건이 심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대에 가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사례 1). 즉 외부문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내륙 지역이나 어려운 집안 출신인 경우와 접경지역 도시나 대도시의 부유한 집안 청년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어

려운 환경에서 노예 노동과 탄광 생활을 경험한 사례 4의 경우 2021년 남한으로 올 때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한’ 혹은 ‘드라마’라는 용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사실에 따르면 남한 드라마 등의 외부문화에 의한 일상의 변화가 북한의 지역과 계급, 계층을 매개로 성층화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남한의 영상물이 재현하는 젠더관계가 북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역할 모델’로 작동하며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청년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양식(mode)’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상이 남성 지배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그저 남녀평등. 교육은 그렇게 하죠. 실제도 그렇죠. 그런데 한국 같지는 않고. 그래도 남자의 우월감이 세죠, 거기[북한]는. 지금에 들어서서 또 많이 바뀌긴 했어요. 여자들이 또 많이 벌고 남자들이 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지금 여자들 장사하고 남자들 직장 다니고 하면서 여자들 좀 발언권이 많이 올라갔죠, 집안에서도. 그런데 여기[남한]서 같이 뭐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막... 여기[남한]는 제가 보기에는 남자 여자 볼 때, 남자들이 좀 내려가 있는 거같이 보이거든요, 지위가. (사례 11 구술녹취록, 29)

평양 대학 출신의 남성 엘리트인 사례 11은 북한 사회가 표방하는 ‘남녀평등’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우월감이 지배하는 문화임을 시인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시장활동이 전면화된 2000년대 가족관계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이전 시기에 비해 강해진 것은 틀림없지만, ‘평등한’ 젠더관계가 아닌 현실을 남한 사회와 대비해 설명하고 있다. 사례 11은 남한에서의 젠더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MZ 세대의 문화 등을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즉 북한 사회의 남성 엘리트 청년으로서 남한 청년들이 시도하는 불평등한 관계의 변화를 ‘남성 지위 하락’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북한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 양식이 외형적 태도(etiquette)를 넘어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을 자신의 노동으로 헤치며 생계를 부양해온 부모세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찬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의 젠더관계가 현실적 필요에 따른 역할 참여를 넘어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다(조정아 외 2019, 256).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이상형은 유지된 채 생계유지의 필요에 따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10대 때부터 받고 성장한 현재 20-30대 청년들은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이 ‘깨 문화’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성역할의 경계를 넘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즉 부모의 생계노동으로 성장한 세대 중 문화적 혜택을 누릴 만큼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기존의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와 단속 등을 돈으로 해결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젠더관계를 실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년들의 성과 결혼

전체 구술자 중 부모세대에 해당하는 사례 5, 사례 18, 사례 19와 나머지 20-30대 청년들의 성과 결혼에 대한 기대와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사례 분석에서는 결혼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 사례가 1건이었고, 대부분 학업 혹은 직업 활동 중 남한으로 이주한 사례였으므로, 실제 청년들이 구성한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50대 중반인 사례 5의 경우 한국 청소년의 ‘성교육’을 이해하지 못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으며 두 자녀를 둔 여성으로서 사례 5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제가 그걸[성교육] 제일 중요한 게, 왜 여기[남한]서 성교육을 시키는가 했어요. 우리가 거기[북한]서 살면서 성교육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도 안 시키거든요. 성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다 자식을 낳고 이렇게 키워왔는데, 왜 성교육을 시키는지 그게 지금도 의문이고. (중략) [성교육은] 없어요. 우리[북한]는 없어서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탁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저보고 뭐이라 하는가? “어머니” 그래 “왜?” “뭘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우리 애들은 어릴 때도 딱 “어머니, 할머니”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도 됩니까?” 그래 “어, 물어봐.” “어머니, 애기를 어디로 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인데.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랬지. “그거는 이제 너네가 성인이 돼서 대학까지 졸업하면은 다 알게 된다. 그걸 네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사례 5 구술녹취록, 42-43)

사례 5는 남한에서 청소년 성교육을 시행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야동’에 대한 호기심을 야기하는 등 ‘시끄럽게’ 만드는 성교육을 ‘중요’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례 5의 딸이 중학교를 졸업한 2008년 출산 과정에 대해 질문하자 “성인이 돼 대학을 졸업하면 다 알게 되니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한 자신의 대답을 소개하며, 북한에는 ‘성교육’ 자체가 없는 것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25/}

25/ 기존의 연구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성교육 경험은 확인되지 않는다. 2003년 중학교 교과목 중 여학생실습 과목을 활용하여 여학생에게만 성교육을 시행했으나, 2013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여학생실습과 공작실습과목이 폐지되었다(조정아 외 2015, 233).

이처럼 ‘성(sexuality)’을 금기시하는 북한 사회의 태도는 현재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세대 재생산을 위한 출산과 연계된 성행위 이외의 성적 쾌락을 사회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 생리 현상 등에 대해서 부모나 친척 등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피상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불법 영상물로 호기심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접경지역 도시에서 고급중학교 교사를 했던 사례 3에 따르면, 고급중학생 사이의 연애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 학생의 임신 사례가 연말 보고서에 언급되기도 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성관계하고 임신한 경우라고 한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에서도 여학생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대부분 신체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진받고 임신중절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북한에는 콘돔으로 피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피임약을 먹기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26/} 구술자들에 따르면, 제대군인 이외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입학한 ‘직발생’의 경우 결혼하면 남녀 대학생 모두 퇴학 등의 제재를 당하므로,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는 사례는 드물다. 사례 8은 자신이 대학에 다니던 2010년대 초, 학생 간부를 했던 4학년 여학생이 기숙사에 “남학생을 끌어들이는 것”이 드러나 퇴학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자 기숙사 호실에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것이지만, 성인인 대학

26/ 유엔조사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피임률은 70.2%이다. 북한에서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피임수단은 루프로, 피임 여성의 65.4%가 루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콘돔을 사용하여 피임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남자의 피임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콘돔 사용 문화가 대도시 젊은 세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영자 외 2021, 208, 211)

생들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범이 전제된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여전히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현재 청년들의 일상에서는 실질적인 효용이 없다(박영자 외 2021, 203). ‘고난의 행군’ 등을 거치며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남녀관계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와^{27/} 외국 드라마 등의 영상문화로 “연애하면 다 그 정도[성관계]는 하지 않냐”고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대 초반으로 외부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사례 12는 연애하는 청년들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 ‘여기(남한)랑 똑같다’고 했다. 특히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함흥, 혜산 등의 대도시에서는 연애와 ‘자유로운’ 성관계가 다른 내륙 지방보다 ‘앞서 나가는’ 경향이다. 연애관계에서 ‘예기치 않게’ 임신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분 ‘조용히’ 임신중절을 선택한다. 반면 결혼하기 전 임신 사례는 흔한 풍경에 속한다.

[혼전 임신이] 당연히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조금 창피하다고는 하죠. 그런데 그나마 혼전임신해도 결혼하면 **그게 다 깨끗해져요**.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안 했다. 그게 커질 때까지 결혼 안 했다 하면 좀 안 좋은 영향이 가죠. (사례 12 구술녹취록, 41)

위의 구술에 따르면, 연애관계가 발전하여 혼인을 전제로 임신을 하는 것은 ‘창피하기는 하지만’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이 경우 임신이 여성에게 ‘오점(汚點)’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된다. 결혼이라는 의례로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신 후 상대방

27/ 복수의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으로 대량 탈북과 지역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광범하게 가족해체가 발생했고, 이후 생존과 생계를 위한 실용적인 동거 등이 확산되었다(조정아 외 2019, 224).

과 헤어지는 경우, 즉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 사실은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대 초반 여성인 사례 1에 따르면 2000년대까지도 여성은 20-24살 사이에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2010년대가 되어 ‘커리어우먼’들이 등장하면서 결혼 연령이 높아졌고, 서른살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사례 10의 경우 30대가 되어 무역지도원이 되었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결혼을 미루었다. 평양의 중앙대학을 다니다가 영상 편집 회사를 운영했던 사례 8은 20대 중반 이후 선을 보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상형에 맞는 남성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은 기본 교육을 이수해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고학력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배치되어도 실질적인 임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력갱생하는 ‘모살이’ 기간을 7-8년 이상 버텨야 한다(사례 11, 사례 17).

집안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크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 시기 어머니의 장사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했던 사례 12의 경우, 여성이 고생하고 벌어먹이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남자는 집, 여자는 안에 다 채우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가 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해야 되는 거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안의 혼수도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런데 남자들의 직업을 대체로 보게 되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직업들. [경제적인 능력]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같이 산다는 게 억울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그런 거예요. 제 주변 친구

들도 다 그렇게 [결혼하고], 어디 가서 앉아 있냐 하면 시장 가서 앉아있고.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시장 가서 장사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끔찍했고.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해서. (사례 12 구술녹취록, 31)

북한 사회는 배급제도의 붕괴와 시장화로 사회주의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반이 해체되었다. 사회주의 대가정을 지키고 옹위해야 하는 대다수 가정의 남성들이 배치된 직장에서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가족생계의 책임을 지고 장마당 등을 통해 극심한 노동을 했다. 2010년대를 경과하면서 군부대 혹은 중국 무역과 연계된 직장을 통해 돈을 버는 자리들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하층 계급 남성 중 다수는 여전히 가족을 꾸릴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의 텍스트에서 사례 12는 이런 조건에서 나이에 맞춰 결혼하여 사는 것이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어린 시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아버지가 경제력을 상실하자, 가족생계를 책임진 어머니가 모진 고생을 하며 지내온 것을 지켜본 사례 12는 결혼관계의 부당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남성 가부장의 권위는 인정하면서 여성이 무조건 가사노동과 생계활동을 해야 하는 북한 결혼제도의 문제점을 간파한 것이다. 특히 10여 년의 직장생활로 경제적 독립을 이룬 사례 12는 차라리 혼자 살며 부모에게 ‘손 안 내미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였다.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례 1도 북한 남자들이 술 마시고 주정하며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보면서 남자 없이 살아도 되고, 굳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미뤄서 서른이 지나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성세대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결혼은 의무이고 결혼하면 자식 낳고 사는 것은 당연히 하는 큰일”로 생각하고 있다. 즉 20-30대 청년들 사이의 새로운 생각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부모세대(현재 50-60대)는 자녀들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죽기 전 소원이라는 방식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권한다.

북한에서는 한국의 동거와 같이 혼인과 상관없이 함께 사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집안의 ‘혼인’ 허락을 받은 후 같은 집에서 사는 방식을 택한다. 또 남녀가 부모의 인정을 받았으나 공식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는 예도 적지 않은데, 그럴 때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지역과 계층에 따라 성과 결혼에 대한 주요 규범의 차이가 두드러지나, 청년들의 경우 부모세대와 비교하여 혼인등록이나 이혼 등과 연관된 남녀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편이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혼인등록을 연기하는 경향은 배급제도의 해체와 연관되어 있다. 공식적인 가족으로 등록해도 가부장을 통해 지급되는 배급과 선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혼을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28/} 부부관계가 깨지는 경우 법률적 제약 없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생각도 작용한다.(조정아 외 2019, 223)

그런데 이혼에 대한 엄격한 조건과 사회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면 해결되는 길도 있다고 한다.

칠팔백 볼 주면 바로 이혼시켜줘요, 판사님들이. 알아서 이혼시켜줘요. 근대 그거 못 되면 그냥 두 집 살림하는 거죠. 음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죠. (사례 10 구술녹취록, 35)

28/ 북한은 1948년 「사회주의헌법」 제11-12조에서 남녀평등권을 인정하고 이혼의 자유를 허용했으나, 1956년 협의이혼 절차를 폐지하고 재판 이혼만 가능하게 했다. 1990년 제정된 「가족법」 제20조에서도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이혼 결정을 독점하고 개인 이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의 구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혼이 어렵지만 경제력이 충분한 중상층의 경우 이혼 절차의 구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무역업 등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집안의 청년들은 혼인제도와 상관 없이 다양한 연애관계를 갖기도 한다.

‘고난의 행군’과 시장화 등을 거치며 국가의 보장이 없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면서 북한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29/} 2010년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국가가 다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대부분 젊은 부모는 “지금 세상에 무슨 돌씩이나 낳냐.”라고 생각한다. 사례 15에 따르면 현재 40대 부모의 경우 거의 자녀를 한 명만 두는 경향이 강하다. 남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우대가 있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퇴색하고 있고, 현재 20-30대에게는 부모가 무조건 아들 낳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사회적 조건이 자녀를 낳아 부모나 사회가 키워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녀계획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 청년들의 성적 경험이 혼인 및 출산과 분리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지역과 계층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부장의 세대 재생산을 위한 결혼과 이들의 출산 목적 성행위만이 정당성을 갖던 기성세대의 성 관념과 달리 청년들은 개인 사이의 친밀성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성행위(sex)를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강하고 혁명적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이 새로운 문화양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인정과 평가는 여전히 성별화되어 있다. 연애나 혼인관계가 깨지거나 임신 사실이 알려질 때 과거보다는 덜

29/ 2020년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1이고 남한은 1.1로, 남북한 모두 저출산 사회이다(이운진 외 2021, 172).

하지만 여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결혼연령이 높아지거나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자본주의 방식으로 시장화된 사회에서 경쟁하며 국가의 배급이나 지원 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이 청년, 특히 여성의 삶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 결혼을 늦추거나 임신중절을 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등 성적 주체성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시장화 이후 최소한의 경제력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져야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적령기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신중한 ‘생애 계획(biographical plan)’이 되고 있다.

3. 무상교육의 붕괴와 차별화된 학교경험

북한은 어떠한 사업보다 후대 교육사업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교육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 문제로 여기고, 교육을 통해 체제 유지 및 재생산에 필요한 ‘혁명의 계승자’이자 국가를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한다(노동신문 2014.8.13.). 그렇기에 학교는 당과 수령이 지향하는 정치적·사회적 가치와 신념,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습득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대적 국가사업의 ‘현장’이며, 이곳에서의 경험은 북한 청년들의 사고와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북한 청년들의 학교경험은 이전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상당 부분 무상배급, 무상교육 체계의 붕괴에 기인한다. 북한은 학교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하고 「교육법」을 통해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

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6조).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국가 배급이 중단되자,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의 부업과 학부모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학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학부모의 지원과 학생에게 부과되는 각종 납부금으로 충당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청년들은 국가에 대한 기대가 적고, 부모의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교육수준과 학교교육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부모의 능력에 따른 교육 지원의 차이 외에 서열화되어 있는 북한의 교육체제와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차이 등의 요인이 계층별, 지역별, 젠더별로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초래하고 있다. 차별화된 학교교육 경험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평등과 차별에 대한 사고, 실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 교육 격차와 학교 공간에서의 차별 및 불공정

청년들의 어머니 세대인 1960년대에 태어난 사례 5는 1970년대 말 자강도에서 인민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과 학용품, 책, 양말에 신발까지 담긴 빨간 리본 달린 보자기를 받아 들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현재 60대 초반인 사례 18 또한 인민학교 입학 이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3년에 한 번씩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물을 타면서” 공부를 하였고, 선물전달식 행사에서 “아버이수령님 은덕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학습과 생활 잘해서 보답하겠다.”라는 토론을 하던 때를 회상했다. 그러나 교복과 책, 학용품 등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날 선물로 ‘하사’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일상적이며 개별적인 차원에서 당과 수령의 사랑을 모든 학생에게 확인시키

고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북한식 선물의 정치는 ‘고난의 행군’을 지나며 중단되었다.^{30/}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부터는 청소년들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옷감 재질에 따라 색깔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 고급 옷하고 싸구려 옷하고 다 티가 나는 교복”을 형편껏 사서 입고(사례 10), 학생의 일상에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하였다.

부모세대는 무상교육을 당과 수령의 사랑과 배려로 생각하며 학교를 다녔다면 청년세대는 학교 시설 운영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드는 비용까지 실제로는 부모가 부담하는 체제에서 학교를 다녔다. 이는 경제력 있는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를 맺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력 있고 자녀교육에 열성이 있는 부모는 교사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시설을 확충·개선하는 “학교꾸리기”^{31/}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능력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은 학교의 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소조 활동에 참여하고, 교장과 담임교사의 배려와 특혜 속에서 학교를 다닌다(사례 8,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7).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일찍이 학교를 이탈하여 돈벌이에 나서거나 학교에 다니면서도 학교에 내는 돈을 제때 못 내 교사의 눈 밖에 나는 경험을 하였다(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6, 사례 12, 사례 16).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지금 30대 면담자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경제난에 대한 경험은 계층별로 차이가 크며, 이는

30/ 김정은 시기에도 북한은 명절날 소학교 학생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혁명학원, 고아원, 보육시설 등의 어린이들에게 간식 및 생활용품을 선물로 하사한다(조선중앙통신 2022.2.1.). 그러나 이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및 신발까지 일괄 지급했던 과거에 비하면 선물의 양, 대상 인원, 품목 등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31/ 대부분 학교에서는 겨울이면 난방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땀감을 구입하는 화목대를 걷고, 봄이면 교실 벽에 흰가루 칠을 하고 문을 도색하고 바닥을 칠하는 데 드는 “꾸리기 비용”을 걷는다. 컴퓨터와 기자재 구입 비용도 학부모에게 부과된다(사례 1, 사례 5-2).

교육 격차로 이어졌다. 1980년대 후반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사례 12(여성)는 경제난으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사례 12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장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렀다. 사례 12는 열 살까지 혼자서 남동생을 돌보면서 “입에 무언가로 풀칠하는 게 제일 중요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다. 사례 12는 자신의 또래, 즉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청년 중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친구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했다. 사례 12는 당시 생활형편이 훨씬 나았던 바닷가 지역으로 이사 갔지만, ‘주인집’의 살림과 자녀를 돌보아 주느라 중학교 1학년만 잠시 다녔다. 사례 12의 동생도 학교에 가는 대신 바닷일을 배워 돈을 벌었다. “사내애들이 어른 정도만큼 덩치가 있고 하면 거의 다 학교를 안 가고”, 부모들도 돈벌이를 시켰다. 사례 12는 학교에서는 파고철, 파지, 동, 토기 까죽, 화목대 등을 계속 가져오라 하니 낼 것도 없는데 가서 꾸중을 듣는 것보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속이 편했다고 한다. 국가 배급이 중단되어 먹고사는 것도 어려웠던 시기에 잡부금을 내면서까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사례 12와 같은 빈곤층에게는 무리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청년들 중에는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뛰어든 이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 대부분이 형식적으로나마 졸업장을 받았기 때문에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배급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남보다 일찍 무역이나 밀수에 뛰어들어 경제적인 혜택을 보았거나 다른 직업군보다 안정적으로 배급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던 이들을 부모로 둔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를 하며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별다르게 경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양강도 혜산이나 함경북도 청진 등에서는

해외 무역이나 밀수 등에 종사하며 오히려 이 격변기 동안 경제적 부를 이룬 이들이 있었다. 앞의 절에서 살려본 것처럼 시장화를 먼저 경험하며 부를 축적한 노동자 계층은 자녀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그리고 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재원이 국가로부터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 학교 운영비용과 교사들의 생계비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들에게 요구하며 ‘거래’를 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자녀를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민학교에 입학시킨 사례 5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열성자(임원)를 시켜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며, “선생님도 먹고살아야 하니 선생님들을 도와줄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로 학급 반장, 분단장을 시키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례 5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 두 명을 기른 사례 18은 첫째 자녀가 학교 전체 임원을 할 때 ‘학교 꾸리기’와 교사 지원에 열성을 다하였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둘째 자녀가 그 학교에 진학하자 교장 선생님이 “도와달라, 따님을 충분히 내세우겠다.”라고 해서 둘째 자녀 역시 학교의 임원을 맡게 되었다. 사례 18은 명절이나 계기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학교 꾸리기에 쓰십시오.”라며 봉투에 돈을 넣어드렸다. 임원을 맡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학급 내 다른 학부모들이 분담하는 상황에서, 학교 당국은 지원을 많이 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앞에 내세우는” 것으로 학부모의 지원을 보상해준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거래와 특혜를 부패로 여기기보다 학교 운영을 위해 개별 학교가 취할 수밖에 없는 운영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사들은 또한 방과 후에 운영되는 ‘소조’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참여시키는데, 소조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도 “인사차림”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에게 직접 선물이나 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32/}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교육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김정은 집권기에 학교에 다닌 현재 20대 빈곤층의 학교경험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30대와 비슷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초등교육 기간을 1년 늘려 의무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전기 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국가교육의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기초하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실을 ‘현대화’, ‘정보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에서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김병연·김지수 2020, 193-195). 이에 도시 지역 학교와 농촌지역 학교 간의 ‘교육 현대화’ 격차가 심해지고, 학교별 학생들의 교육열과 학업 역량의 차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경제력이 없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차별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에 양강도에서 태어난 사례 1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행방불명되면서 할머니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목을 내기가 힘들었고, 매번 못 낸 사람으로 이름이 불리고 일으켜 세워져야 했다. 너무 수치스러워 차라리 선생님이 “니가 받을 갈아라. 그러면 이걸 면제해주겠다.”라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수모를 당해야 했기에 학교에 내야 하는 게 있는 날에는 차라리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울고 떼를 쓰기도 했다. 화목대를 많이 낸 친구들은 난

32/ 사례 9는 인민학교에서 수학 소조에 들었는데, 수학 소조에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 중 두 부류가 참여했다고 한다. 한 부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자기 학교의 명예를 떨칠 수 있는 애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부모가 다달이 와서 돈을 낼 수 있는 돈 많은 애들”이었다. (사례 9 구술녹취록, 7)

로 주변으로 앉고 못 낸 친구들은 창가에 앉았지만,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돈을 못 내는 상황이 부끄럽고 위축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공부를 조금 잘해가지고 그 시험지를 선생님이 제 거랑 잘사는 친구에 것을 바꿔가지고 제 시험지를 그 친구 거로 만들어주고 그 친구의 낮은 점수를 제 거로 올려주셨다는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때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저기는 겨울이면은 난로를 피워야 되니까 나무, 화목대라고 해가지고 그 돈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내다보니까 항상 주도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하면 저는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사례 1 구술녹취록, 3)

사례 1은 학교에 낼 것을 제대로 못 낸다는 생각 때문에 교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침묵을 선택했다. 그는 성적을 조작하는 교사의 행동을 본 후 집에 돈이 없거나 부모가 간부가 아니면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2000년대 초반생인 사례 2 또한 가정형편을 알기에 학교에 돈을 내기 위해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늘 교사에게 혼나고 맞기도 했으며, 심하게 차별을 받았다. 그는 교사들이 가난한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같은 규율위반 행동을 해도 자신만 혼을 냈다고 기억한다.

학교 다닐 때 저희 진짜 못살았어요. 쌤들이 좀 안 좋아하죠. 그런 거 안 내면 계속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때려요.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나만 때리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똑같이 지각을 했어도 나만 따로 나오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뭘 안 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해요. (중략) 때

리면 후과가 학부모들로부터 오는데 저는 집에 가서 말을 안 하니까 모르거든요, 엄마가. 뭐 저는 때려도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나한테 풀거든요.** (사례 2 구술녹취록, 27-28).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며 교육당국은 교사가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려보냈고, 체벌 시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다(사례 2, 사례 3). “반을 못 낳아 하나를 낳는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한두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지만(사례 15),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는 하루 벌 어 하루 먹는데 바빠 자녀의 학교생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경제력과 권력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끼리 문제가 생겨도 그런 학생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면담자들은 말한다(사례 2, 사례 4). 농민이었던 사례 4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심하게 겪었는데도 학교가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자 학교에 찾아가 문제제기를 하는 대신 친척들의 도움을 얻고자 외가가 있는 더 가난한 지역으로 자녀를 전학시켰다.

부모의 경제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동원노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8년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사례 1은 학교 다닐 때 평일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짧은 식사 시간 후 거의 매일 동원을 나갔고, 일요일도 “당연히 동원을 가는 날”로 생각했다. 반면,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는 학교에 돈을 내고 자녀의 동원노동을 면제받는다.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학교 시설 보수, 설비 확충 등 학교 운영이나 학급 운영에 쓰이기 때문에 학교는 돈을 내고 동원노동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청년들의 구술에 따르면, 고급중학교에서 매년 3주간 진행되는 ‘생산노동’ 시간에도 돈을 내고 빠지는 학생들이 많다. ‘생산노동’은

방과 후에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동원노동과 달리, ‘교육과 노동의 결합’이라는 취지로 하는 공식 교육과정이다. 주로 농번기에 학교 인근의 농촌지역에 가서 학생과 교사가 숙식을 함께하면서 농가의 일손을 돕는 ‘농촌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대 후반에 고급 중학교를 다녔던 사례 14는 매년 농번기에 3주간 농촌지원을 갔다. 그는 농촌지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찬물에 들어가 모내기를 하고 비가 와도 우비를 쓰고 일을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노동을 수행했다고 기억한다. 그는 농촌지원 경험이 또래 친구들과 숙식을 함께하는 재미가 있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버티나가면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기억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견디기에는 노동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는 학교에 돈을 내고 자녀가 농촌지원에서 제외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학교에 돈을 내고 학교교육과정의 일부나 방과 후 동원노동을 빠지는 것은 북한의 학교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소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방과 후 동원노동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법적으로 금하는 사교육을 받으려 돈을 내고 방과 후 활동이나 동원노동, 심지어 정규 수업시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사례 20).

동원노동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자주, 더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도농 간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평안남도 농촌지역에서 학교에 다닌 사례 4는 교육보다 동원노동이 더 많았다고 기억한다. 그는 2000년대 중반에 소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소학교 저학년 때부터 호미를 들고 농사일에 동원되었다. 못사는 친구들이 많아 병에다 죽을 싸들고 가서 먹고 배고픔을 참으며 일했고, 방학에도 “강냉이 이삭 100킬로를 줍거나 도토리를 얼마큼 주우라는 과제를 하느라 바빴다.” 농장원 자녀의 진로는 군사복무 후

농장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기에” 학교에서 공부 대신 일을 시켜도 불평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드물었다고 한다.

김정은 시기에 국가는 교육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무상의무교육의 붕괴로 빈곤계층 아동의 학교 결석률은 높아지고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벌어져, 엘리트 교육기관을 제외한 전반적인 초중등교육의 질이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조정아 2014, 185-186). 무상교육 중단에 따른 학교의 자체 꾸리기사업, 학생과 학부모의 지위상승 욕구와 교육열, 교사들의 자력갱생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은 학교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를 문제시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내지 못한 자신의 탓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주는 공급과 혜택이 사라졌음에도 부모의 경제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동원노동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돈의 가치가 무엇보다 앞서는 것을 학교생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나. 서열화된 교육체계와 진로: 실력주의에 대한 불신과 꿈

북한의 청년들은 부모의 토대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희망할 수 있는 진로가 일찍부터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빈곤층의 학생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사례 1)라는 생각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급중학교 시절부터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방대학의 인기 없는 학과는 실력이 없어도 부모의 경제력만 있으면 진학할 수 있고,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의 인기 있는 학과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부모의 토대, 경제력과 인맥이

있어야 실력도 쓸 데가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사례 7).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본군중의 경우는 사회주의 규범이 작동되어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결정에 개인의 학업 실력이나 생활 태도가 돈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33/} 개인의 실력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제대 후 대학에 진학해 간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김화순·최봉대 2022, 36).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학업 실력이나 생활태도가 훌륭해도 돈이 없으면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워졌다.

“부모 손에서 돈이 못 나오면 대학은 무조건 못 간다.”(사례 7)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 이유는 공식적인 수업료는 없지만, 대학을 다니려면 각종 잡부금과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사례 11의 경우, 평양에서 대학생활을 할 때 규찰대와 동원에 불러 다니고 토요일에도 조직생활과 정치사상교양을 받느라고 쉬는 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집세와 생활비까지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하였다. 그는 부모님이 본인과 형을 평양의 대학에서 공부시키려 전력을 다하셨다고 표현하며, 주위 분들도 “진짜 너희 아버지 엄마는 영웅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대학 공부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북한 사회에서는 자녀의 대학 진학에서 부모의 능력이 중요한 요건이 되면서 실력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 발전을 꾀하려고 2000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존에 평등주의적 교육 기조에서 변화된 노선으로, 한정된 재화를 엘리트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1999년부터 영재교육 기관인 제1중학교가 전국 시·군·구 지역마다

33/ 북한은 주민재등록사업을 마무리하며 1991년도에 ‘출신성분’과 ‘토대’, 사회성분을 모두 고려하여 북한 주민의 계층을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계급 잔여분자의 3계층으로 분류하였다(김화순·최봉대 2022, 12).

1개교씩 추가 신설되면서 중등교육체계가 ‘일반중학교-구역 제1중학교-시·군 제1중학교-평양 제1중학교’로 서열화되었다.(조정아 2007, 122) 이러한 학교 등급은 학교별로 국가적 지원이 차등적으로 배분되게 하였고, 대학 진학 가능성을 계층화하였다. 이후 서열화된 중등교육체계의 문제점이 노정되자 2009년 군 제1중학교를 폐지하고 도 제1중학교와 일부 시 제1중학교만 남겨놓았다(김유연 2014, 40). 하지만 김정은 시기 교육의 전반적 흐름은 평등교육보다 수월성 교육의 강화로 이어졌고, 고등교육과 영재교육으로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강조하였다(이성희·최경원 2020, 101).

학교의 계층화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열리는 중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이룬 시기부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양산하였다. 입당, 대학 졸업, 군대라는 기본 자격을 갖추어야 북한 사회에서 간부가 될 수 있기에 대학 진학은 “발전 가능성”을 갖추는 초석으로 여겨진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소조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사교육을 받으며 어릴 때부터 학업에 몰두한다. 평양의 중앙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 할당은 제1중학교와 외국어학원을 중심으로 배정된다. 일반중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낮고 주로 지방대학 위주로 진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양의 중앙대학에 진학하여 평양에 거주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1중학교나 외국어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치열한 경쟁 속에 공부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영재라는 말을 들은 사례 17은 인민학교 4학년 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학교사에게 사교육을 시작했다. 부모가 학교에 돈을 많이 내고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사교육교사 집에서 공부했다. 사례 17은 도 제1중학교에 진학하였고, 대학을 정할 때 평양에 남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대학교를 선택하여 들

어갔다. 사례 11의 어머니는 평양에서 거주하다 지방에 내려오면서 지방과 평양의 격차가 심한 것을 보고 “자식들은 무조건 평양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아버지 또한 “무조건 중앙대학에 가고, 무조건 평양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제1중학교나 외국어학원 중 한 곳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사로 큰돈을 번 부모를 둔 사례 10은 지역의 일반중학교에서 인기 있는 전문학교에 진학한 경우이다. 사례 10의 아버지는 딸에게 실력 있는 의사는 “다양한 환자를 다 만나면서 한 입 두 입 건너 간부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와이프들도 많이 알게 되니까” 돈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고 하며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준의사가 될 것을 권하였다. 중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몇 명을 선발해서 6개월간 학교에서 숙식하며 교사와 공부하게 한 후 다시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숙식하며 공부하는 동안 부모들은 매기 학생과 교사의 도시락을 싸다 나르고 교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 뒷받침이 어려운 학생들은 여기에 낄 수 없었다. 의학전문학교 뿐뜨가 내려오지 않자, 사례 10의 아버지는 교육부 윗선에 뇌물을 쥐서 뿐뜨를 받아냈다. 사례 10은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어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인맥을 쌓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학 진학에서도 학업능력 외에 필요한 시점에 연줄을 동원하여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력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국가는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에게 인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나, 대다수 청년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에 진학한다.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과 연관되는 학과가 인기가

많다. 즉, 교육은 ‘먹을 게 많은’ 직장을 잡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통념상 대학을 졸업하면 “계급이 달라지고”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아래 인용문에서 사례 13은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직급이 높으면 관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그 사람들에게 수입이 생기는 노동을 시킨 후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수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고위관리직 간부로 가는 것이 ‘먹을 게 많은’ 좋은 직업으로 여긴다.

우선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 가서 막노동은 안 해요, 솔직히. 그러면 벌써 계급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계급이 차이가 되죠. 아무리 못 가도 사무직에는 배치된단 말이에요. 어느 공장 기업소 노동관에 배치된다 해도 거기에 뭐 기사라든가. 무슨 이렇게 막노동하고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 1-2년간 자기 사업을 인정받으면 그다음엔 올려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기사장이나 직장장이나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계급이 되면 밑에 사람들이 많이 달리면 그계 돈이 되거든요. 그중 몇 명 추려서 어디 가서 뭐 노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몇 명에게 돈별이를 제가 자기 목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능력이니 까. (사례 13 구술녹취록, 26)

대학 진학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대학에서 배우는 수업을 통해 전공 지식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도와줄 인맥을 쌓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숙사나 강의실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 주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공간을 제공하는 간식당이 대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 장소로 기능을 한다(사례 3, 사례 9).^{34/} 사례 9는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평양의 중앙대학을 다녔고, 사례 3은 김정은 집권 직

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지방의 사범대학을 다녔다. 학생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짱집”, “○○네”, “죽집”이라 불린 학교 앞 간이식당에 모여 음식을 사먹으며 카드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잠을 자기도 했다. 이 공간은 어느 집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어울리는 무리가 달라지는 “끼리끼리 가는 집”이고, “우리들이 노는 공간”, 일종의 “아지트”이다(사례 3, 사례 9).

이곳에 모이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오후에 작업동원을 나갈 때 학교에 돈을 내고 동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로, 같이 먹고 놀면서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졸업 이후에도 이 네트워크가 유지된다. 대학 재학 시에는 학교나 교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배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진로정보도 공유한다. “마음으로 위한다기보다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관계이지만, 졸업 후에 보위부와 같은 요직에 들어가는 선배들이 있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형성된 인맥은 “대학 다녀본 사람들만 아는 진짜 중요한” 인맥이다(사례 3). 불확실한 사회일수록 불확실성을 상쇄할 자구책으로 뇌물이나 연줄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는데, 북한 사회도 공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사회가 운영된다는 믿음이 없기에 더욱 뇌물과 연줄에 기대는 경향을 보인다(홍민 2004, 153). 뇌물을 적절하게 바쳐 일을 해결하는 것이 생존기술이자 능력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된 사회에서 학연을 통한 인맥 형성은 능력을 발휘할 발판을 마련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34/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주요 대학 주변에 수십 개씩 존재하는 간이식당은 정식 허가를 받은 식당이 아니라 개인집에서 사적 공간을 영업용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보통 10명 정도 인원이 빠곡히 앉을 수 있는 온돌방 한두 개를 제공하고 공간 사용료 대신 음식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고등교육기관 진학에서는 계층별, 젠더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대학을 졸업할 경우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므로 중상위 계층의 남성들은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장기간 군복무를 하는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빨리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긴다. 토대가 좋아 간부를 꿈꿀 수 있는 경우는 사법·통제기관 일꾼, 당 일꾼을 선호한다. 중앙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부모의 인맥과 경제력이 있으면 공업대학, 농업대학 등 도급대학을 졸업해도 연줄을 동원하고 뇌물을 써서 당기관이나 보위부 등 사법·통제기관으로 갈 수 있다. 외국에 나가는 일이 흔치 않았을 때는 외국어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의 인기가 높았지만, 대외무역이 늘고 해외파견 노동 등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길이 확대되면서 외국어대학의 인기가 낮아졌다고 한다(사례 9). 김정은 정권에서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지만, 출신성분이 좋은 청년들은 이공계대학 진학을 선호하지 않고, 이공계대학 졸업 후에도 연구직으로 취업하기보다는 당 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한다(사례 17).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토대가 좋지 않아 간부를 꿈꿀 수 없을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해 의사 등 전문기술직이 되는 길을 선호한다(사례 1, 사례 10, 사례 15).

가정의 경제력과 권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남성들은 대부분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한다.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군사복무제를 시행하였다. 전민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따라 군복무 기간은 남성의 경우 10년, 여성은 7년으로 알려져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116).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 부대에서 외화벌이, 영리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인하는 실정이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118). 이에 군인들은 군부

대사업에 동원되어 무급 또는 유급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은 군대에서 무급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보다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며, 그런 자리에서 군 생활을 하려고 인맥을 동원하거나 뇌물을 주기도 한다. 사례 13은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대하였는데,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아 굶주리면서 힘든 일을 하게 되자 아래 구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척을 통해 평양 건설을 담당하는 부대로 재배치받았다.

군생활 할 때도 신병훈련 받을 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환경은 제가 바뀌야 한다. (중략) 탈영했어요. 그다음에 바로 집으로 튀어가가지고 “나 이런 환경이다. 빨리 나를 도와라.” 해가지고 친척한테 바로 전화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뽑아서 평양으로 보내고, 그리고 뭐가 또 맞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죠. (사례 13 구술녹취록, 61)

사례 13은 군인 신분이었지만 군대가 담당할 건설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신도 직무를 활용해서 큰돈을 벌었고, 군복무 기간에 지인의 명의를 빌려 평양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와 달리, 고급중학교 졸업 후 10년 의무 복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입대한 사례 4는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한 부대에 배치받았지만 인맥과 경제력이 없어 다른 부대로 옮길 수 없었다.

무상배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군부대조차 자력갱생의 바람이 불자, 부대별로 군인들의 처우가 상당 수준으로 차이가 나며 부대에서 맡은 자리에 따라 경력을 쌓고 돈벌이할 기회도 달라진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군생활에서도 부모의 지원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고, 군생활을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의무복무 기간으로 여기기보다 능력에 따라 배치될 부대를 선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청년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최근에는 중상위 계층 청년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회피하거나 짧게 다녀오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이 중층 가정에까지 확산되고 있다(사례 5, 사례 15). 일부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군부대 소속 회사에서 군복무를 하거나 군복무로 인정되는 기간제 산업에 종사하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 여성청년들의 진로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 직장 진출, 군대라는 세 가지 진로로 분화된다(김화순 외 2020, 217). 전민복무제로 여성들도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입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 신체조건, 와병, 가사 등 다양한 이유로 군입대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기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북한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6.8%인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5.2%, 여성은 18.1%(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로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고등교육과 산업구조에서 산업부문별, 전공별 젠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조정아 외 2019, 168). 북한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장려되는 부문은 경공업, 교육, 문화, 편의봉사 부문 등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규정된 영역이다(박영자 2017, 356). 고위직군 중 여성의 비중도 높지 않다.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고위직군인 책임일꾼의 비중이 여성 중에는 0.5%인데 비해, 남성 중에는 2.5%로 다섯 배 차이가 나며, 전문가 비중도 여성 중 5.9%, 남성 중 10.5%로 남성이 두 배가량 높다(조정아 외 2019, 172-173).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공식 노동부문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적이고 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권력과 부가 따르는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졸업장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경제력이 있는 부

모들은 딸을 대학에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성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빨리 돈을 버는 길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긴다(사례 5).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무리해서 지방의 전문학교에 진학한 사례 7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학교 졸업장이 전혀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사례 7의 아버지는 딸들이 “흠 만지고 노동하는 직업이 아닌 편안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을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시켰고, 사례 7은 전문학교에 입학할 때 공부를 마치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그는 전문학교 졸업 후 직업 배치과정에서 경제력이나 연줄을 동원하지 못해 일반 직장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결국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다른 지역에 가서 봉제공장 재봉공으로 일해서 돈을 벌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거나 특별히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청년들은 일찍이 현실을 자각하고 학교 공부와 자신의 진로를 연결해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부모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농민이거나 토대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의 직업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대학 진학을 꿈꾸지 않는다(사례 1, 사례 2, 사례 4). 빈곤층 남학생들은 군대를 나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학교를 ‘놀음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 밖에서 돈을 버는 것에 더 집중한다(사례 2, 사례 4). 여학생들도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원하는 데로 가고, 돈이 없으면 힘든 데 배치되는” 것을 알기에 배치될 직업에 대해 기대가 없이 “장사하다 시집가서 살다보면 어떻게 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했다(사례 1). 사례 1은 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에 학급에서 조는 학생들은 그대로 두고 상위 몇 프로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회고하는데, 이러한 교실 분위기는 학교 공부를 잘해야 할 필

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방치되거나 교실을 떠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력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부모의 능력이 학생의 실력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경험한 청년들은 일찍부터 고등교육을 준비할지 중등교육으로 학업을 마칠지를 결정한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학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대하거나 장사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청년들은 고급중학교 단계부터 분명하게 나뉘며, 가정의 경제력과 출신성분이 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거나 오히려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들은 ‘부모의 기획’을 따라 ‘모살이’를 하는 청년들과 달리, 일찍 시장에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간다.

다. 정치교양교육과 형식적인 충성

북한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사상교육으로, 이는 백두혈통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그 계승을 정당화하고 후대 수령이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조정아 외 2015, 58). 중등학교 공식교육과정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혁명력사’와 ‘혁명활동’ 교과에서 이들의 혁명업적과 영도력, 애민정신을 가르침으로써 이들을 우상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지도자에 대한 헌신의 자세와 충성심을 배양하고자 한다(조정아 외 2015, 95).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며” 당과 수령에 대한 헌신과 복종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란 북한의 청년들 중 상당수는 입으로는 교육내용을 암기하지만 그것이 체화되어 당과 수령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으로 발현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청년들이 당과 수령의 공급과 배려를 받고 자라

지 않았기에, 감사함에서 우리나라 충성심 없이 학습에 의한 외형적인 맹세를 습관화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평양의 중앙대학 출신인 사례 11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터득한 청년들의 모습에는 국가에 형식적으로 충성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부모님, 옛날 사람들이 더 충실한 세대고, 지금 세대는 더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충실한 척하고 속으로는 다 그저 자기 살 궁리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거를 다 가려볼 능력이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그거를 밖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 잡혀가고 하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저 이 시대는 이런 시대니까 여기 맞춰서 그렇게 자기를 보여지게 만들어놓고 속으로는, 뭐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나라에 충실하고 당에 충실해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힘든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다 충성을 외치고, 뒤에서는 다 자기 살 궁리하는 거죠. (사례 11 구술녹취록, 28-29).

2010년대 후반에 고급중학교를 다닌 사례 1이 그리는 다음과 같은 고급중학교 교실 풍경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북한 청년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마음을 보여준다.

초상화 정성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꼭 자기가 그걸 해요. 초상화 정성관리. 닦고 뭐 그걸 학교에도 교실에도 그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말씀판이랑 그걸 항상 닦고 “이걸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끈대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거는 당번이 알아서 하겠지. 굳이 우리가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런데 말은 표현을 못 하고, 서로 눈치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친구들은 진짜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매일 닦고, 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뭐 “재 왜 저래?”는 못하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당, 당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재 왜 저래?” 하면은 그건 충살감이니까. 그건 못 하고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못 할 거 같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죠. (중략) 가끔 하는 말이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저렇게 까지 하나?”라는 말까지는 해요. (사례 1 구술녹취록, 32-33)

북한 학교에서는 매일 수업시작 전에 학생들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상화 정성사업’이라고 불리는, 교실 전면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청소하는 작업이다. 사례 1에 따르면, 60여 명의 급우 중 두세 명 정도가 초상화 정성관리에 매일 열심히 참여하였다. 이런 친구들은 “간부집 자식이거나 진짜 고지식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로, “내 몸보다 당이 먼저고 원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학생의 시선이다. 대다수 학생은 진심으로 초상화 정성관리를 하는 친구들을 “석기,”^{35/} “꼰대”로 여기고, 그런 행동을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당과 수령”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강력한 처벌 기제 속에서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표현하지는 못한다. 한편, 초상화 정성관리는 형식적으로 대하는 청년들이지만, 소년단창립절 행사 같은 김정은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 그 이유를 묻는 연구자에게 사례 1은 김정은은 “북한 친구들한테는 신적인 존재”이고, 김정은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그를 만난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느낌”

35/ “석기”는 북한에서 마치 석기시대에 사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비꼬아 말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이 참석하는 “1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직업 배치를 받을 때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플러스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덧붙였다.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이나 간부가 되는 길을 꿈꿀 수 없었던 사례 2가 정성사업에 임했던 태도는 사례 1이 전해준 열성자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정성사업’은 학교만이 아니라 북한 지역 곳곳에 세워진 ‘영생탑’에서도 이루어진다.^{36/} 영생탑 주위를 청소하는 일 또한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 전에 해야 하는 일로, 학교에서는 청소하러 나오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고, 교실 뒷면에 출석상황을 도표로 만들어 관리하기도 한다. 사례 2는 영생탑 정성관리에 잘 참여하지 않았고 가끔 참여할 때는 청소에 열중하기보다 친구들과 과 주변 잔디밭에서 미끄럼 타면서 놀고 영생탑 주변의 잣나무에서 잣을 따는 데서 재미를 느꼈다.

영생탑이 재미났거든요, 그게. 저희 거는 잔디가 이렇게 쪽 싸여서, 산에다 지어가지고 잔디가 이렇게 쪼거든요. 저희 미끄럼 타는 게 진짜 재미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영생탑에서 뛰노는 거 약간 교양이... 그거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거로 알거든요. 거기서 노는 사람이 없어요. 논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고 샘들이 뭐라 그러는 거죠. (중략) 그거 진짜 재미나가지고, 풀밭에서 이런 똥구는 게 진짜 재미나서.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또 잣이 있거든요. 잣나무를 영생탑 뒤에 많이 심거든요. 무조건 잣나무 심어요. 그 잣이 달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따먹는 사람이 없을걸요. 알아서 관리인들이 따겠는지 모르겠는데 없더라고요. 관리인들은 따는데 그걸 이렇게 경비 서지 않거든요. 누구 훔쳐 가지도 않고. 저희는 따 먹었어요, 저희는. (사례 2 구술녹취록, 68-69)

36/ 영생탑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같은 문구가 새겨진 정치적 조형물로, 도심이나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다.

사례 2는 자신에게 부과된 정치사상적 의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의 시간으로 전유한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백공이(102)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백공이샵은 “남들이 100샵을 뜯 때 나는 한 샵 뜨고 놀다가 마지막에 한 샵 더 뜨고 엄청 일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말한다(사례 2). 북한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겉치레와 눈가림만 하는 ‘요령주의’로 규정하고 꾸준한 사상교양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노동신문 2022.9.13.),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은 사례 2가 보여주는 형식적인 복종과 요령주의로 국가가 부과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급중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대학생들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스스로를 “빨간청년동맹원”이라고 표현한 사례 9는 자신은 “김정은 김일성을 정말 하늘처럼 생각하고 태양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대다수 후배는 “혁명역사는 시험만 잘 보면 되지 굳이 왜 충성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태도를 취했다고 전했다. 혁명역사를 잘 배워 충성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진학하거나 취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사례 9는 대학의 정치사상교양 시간에 보여주는 지도자의 기록영화를 좋아했는데, 자신과 달리 후배들은 “정말 죽지 못해서 앉아 있는 자세”로 앉아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딴짓을 했다고 한다. 돈을 내고 청년동맹의 정치사상교육 시간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다. 사례 9는 학급 인원의 20-30%가 “친구고 의리고 다 없이 저 혼자 편안하겠다고” 청년동맹의 정치학습과 각종 동원을 빠져나왔다고 말한다. 사례 9는 후배들의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두세 시간 동안 지루한 내용을

“팔이 끊어지게 받아써야 하는” 청년동맹 주관의 정치학습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마지못해 참여했다고 말한다.

국가를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상교양이나 국가의 정치적 의례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이해를 도모하는 청년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들의 생애경험과 연관된다. 대다수 청년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던 주민들은 굶어 죽었다는 것을 부모에게서 들으며 성장하였고, 2009년 11월 말에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부모와 친척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며 국가는 신뢰와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난 시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20대 초중반 청년들에게는 2009년 말 화폐개혁의 충격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8과 사례 17은 부모님이 큰 장사를 하여 유복하게 살다가 화폐개혁으로 갖고 있던 북한돈을 쓸 수 없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사례 8은 화폐개혁 이후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에 충성하긴 하는데 저희 세대가 겪은 일이 많잖아요. 화폐교환도 겪었고, 그래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어요. 막 그렇게 충성하지는 않아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가만 믿고 따라갔다가는 거지가 될 것 같아서 나라에 충성하면서 내 일도 하는 세대라면, 아랫세대는 “그게 뭔데? 나만 편안하면 되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략) 나라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그전부터 했어요. 자력갱생이 답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국가가 그걸 더 넘어가지고 이제는 빼앗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생각해야겠다. 국가는 국가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례 8 구술녹취록, 36, 52)

화폐개혁에서 국가권력의 위력을 확인한 청년들은 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장 활동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청년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잡아 본인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권력의 길을 욕망하게 되었다.

한편, 간부가 될 수 없고 그런 꿈을 꿀 수도 없는 청년들도 형식적 이나마 체제에 대한 순응적 태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강력한 법적 통제와 처벌 시스템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소지품을 수시로 검사하고, 불순녹화물을 단속하는 단속반이 거리에 상주하며 학교와 가정에도 들어와 검열을 시행한다. 단속에 걸리면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국가의 통제나 정책에 불평불만을 갖고 이를 가족과 조심스럽게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받게 되는 강력한 처벌을 인지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충성과 순응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 나간다.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대다수 청년은 국가에 마음을 다해 헌신하지도 않고 반대로 체제를 변화시키겠다고 나서지도 않는다.

[북한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뭐 그거를 바꾸겠다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이 안에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에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들치고는. (사례 14 구술녹취록, 48)

경제난 이후 무상배급과 무상의무교육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성장한 북한의 청년들은 국가보다 부모의 능력에 의존하여 학교생활을 하였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학교 운영과

교사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학교교육 경험을 통해 ‘돈의 가치’가 평등과 공정의 가치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성분에 따라 차별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진로를 설계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도록 교육받고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배우는데, 이를 내면화하는 청년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국가와 자신을 분리하는 태도로 형식적 복종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4. 일터와 노동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서 직업준비는 경제적 독립으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는 북한의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북한 청년들은 고급중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 국가의 직업 배치에 따라 직장을 얻음으로써 사회적 지위 획득의 첫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 국가가 지정하는 일자리가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년을 포함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는 공식직장과 시장 영역의 비공식 일자리로 이원화되고, 주민들은 시장 영역의 일자리로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노동과 직업선택 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가. 청소년기 청년들의 노동: 용돈벌이와 생존노동

청년들의 생애사례에서 초급중학교나 고급중학교 재학 시기에 생계유지와 용돈벌이를 위해 노동을 시작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

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과 가축사육 보조뿐 아니라 이삭줍기, 나무하기, 딸감 수집 등 일상적인 노동과 나물 채취, 오미자·잣 등 열매 채취, 개구리·거머리 등 약재로 쓰이는 동물 채취와 같은 “돈 벌러 다니는 철”에 맞는 채집활동이 주를 이룬다. 해안지역에서는 수산물 채취로 돈을 벌기도 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비공식부문에서 서비스업 성격의 노동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중하층 계층 청년들의 경우 청소년기 노동 경험이 많이 나타났고, 이 중 몇몇은 학교 공부 대신 장기간 결석한 채 노동하여 돈을 벌기도 한다. 저학년 단계에서 학령기 청소년의 노동은 지루한 학교 수업 대신하는 놀이로 인식되기도 하고, 본인의 용돈이나 “학교에 바쳐야 하는” 각종 물품과 돈을 충당하려는 간헐적 노동의 성격을 띠지만, 고급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장기간 학교를 결석하고 돈 벌이에 전념하는 청년들이 늘어난다. 고급중학교는 “세계관이 형성되고 철이 들면서 점점 성인의 물을 먹는” 단계인데, 이때부터 친구 관계나 이성관계가 중요해지면서 돈 쓸 일이 많아져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된다(사례 4).

중등학령기 청소년들의 노동은 생활고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 버는 일에 대한 이들의 관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앞 장에서 생애사례를 살펴본 사례 2가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고급중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다니며 잠수일을 하게 되었는데, 2년 정도 일하니 돈 버는데 “눈이 좀 트였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사례는 2000년대 접어들어 북한 사회에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과 청년들의 삶에서 ‘돈’의 위력이 강해지고, 실제로 시장과 연계하여 소득을 올릴 방법이 다양하게 창출되는 사회적 상황이 청년들의 조기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2처럼 일부 청년들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노동을 고급중학교 졸업 후 직업과 연결시킨다.

한편, 조기노동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전 시기에 청소년기 청년들의 노동이 주로 농사일이나 채취와 같은 전통적 영역에서 성인의 노동을 보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서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청소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12, 사례 4가 그 대표적 예이다.

1980년대 후반에 국경연선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례 12는 인민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입학 무렵 어머니를 따라 도시로 이주하였다. 합법적인 이주가 아니었고 집도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른 사람 집에 ‘동거살이’를 하게 된다. 어머니는 장사일을 하고, 사례 12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아기 보기 등 주인집 가사일을 해주면서 중고등학교 학령기를 보냈다. 정해진 임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일 덕분에 더부살이를 할 수 있었고 옷과 용돈도 가끔 받았다. 이사 후 초기에는 학교에 다녔는데, 가사일을 하다 보니 결석이 잦아졌고, 학교에 안 다니다 보니 조직생활을 안 해서 편하고 학교에 내는 것도 신경 안 써도 돼서 좋았다. 결국 사례 12는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거의 나가지 않았고, 주인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다가 졸업 연령이 돼서 졸업장을 받고 직장을 갖게 된다.

대도시에 가까운 농촌지역에서 살았던 사례 4는 고급중학교 재학 시절, 시내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자전거 뒤에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해서 하루에 만 원 정도의 돈을 벌곤 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가 다양해지면서” 없던 직업이 생기고 ‘인대’라는 말도 생겼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확산과 더불어 물류운송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택시·오토바이 운송, 짐꾼 등 비공식 일자리들이 생겨났고, 이것이 청년 노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 장의 사례 4의 생애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공식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노동은 국가의 공식적 통제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직업 ‘배치’와 ‘선택’ 사이에서 횡단하기

북한 사회의 고용구조는 노동자가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배치로 직장이 결정되는 구조이지만, 연구 과정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에는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배치 구조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행위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산업부문별 노동력을 양성·배치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0조에서는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노동자의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을 고려하여 노동력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졸업자, 군관제대자 등 간부대상자는 도·시·군당 간부부에서, 일반 노동자 대상자는 도·시·군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직장을 배치한다. (조정아 2005, 103-104) 그러나 청년들은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직 과정을 얘기하면서 대부분 국가에 의해 “배치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신이 직장을 “선택했다.”라고 말한다. 이는 북한 청년들의 직업과 직장 선택이 시장경제 고용시장에서 취업처럼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 내에서 제도와 정책의 틈새를 활용하고 행위자들의 다양한 행위와 상호관계를 가로지르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에서 소매상점을 했던 사례 15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세대 차에 대해 묻자 “예전에는 국가에 매인 데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끌려가야 되는 게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비법을 다 해서라도 가려고 하는 마인드”라고 답했다. 이는 비록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청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직업과 직장 선택의

여지를 넓혀나가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만난 청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최하위계층을 제외한 대부분 청년이 고급중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배치받는 과정과 이후 이직 과정에서 뇌물과 연줄 등 편법을 동원한 경험이 있다.

특히, 여러 기관, 기업소에서 원하는 직업능력을 갖춘 특정 부문의 대학졸업생들은 국가에 의해 직장이 배치되는 구조하에서도 선택의 주도권을 일정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 무렵 여러 기관과 기업은 대학에 와서 학생들의 성적과 생활태도를 고려해서 자기 직장에 배치할 인원을 미리 확보하는데, 사례 9, 사례 11과 같이 그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입사 제의를 받기도 하고, 원하는 기업소, 기관에 취업하려고 학생들이 인맥과 뇌물을 동원하기도 한다.

사범대학 졸업생으로 2010년대 중반경 대학을 졸업한 후 교원으로 일했던 사례 3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교원 부족 문제 때문에 사범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모두 교사로 발령을 내도록 하는 방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인기학과 학생 중 3분의 1은 다른 기관으로 취업했다고 한다. 졸업 때가 되면 당기관, 법기관, 보위부 등 권력이 있는 기관에서 대학에 찾아와서 학생 면담을 거쳐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해당 기관 간부에게 뇌물을 주거나 인적 연계를 이용해 교사 발령을 피하고 원하는 기관으로 배치받는다는 것이다.

구술자: 나가야 되는데 빼죠. 돌리죠. 뒤로 가죠. 네, 뭐 제가 아니라도 나갈 사람은 많잖아요. 교사로 나갈 사람은 많거든요. 저희 학급 같은 경우에도 한 20명은 그냥 교사로 가거든요. 10명 정도만 다른 부문으로.

연구자: 그게 방침에 걸리진 않는가요?

구술자: 그러니까 걸리는 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보위부에서 와요. 졸업할 때 되면 면담을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집에서는 보위부 쪽에 돈을 쥐가지고 “학교에 와서 이 사람 불러봐라.” 그럼 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쓸 만하다. 내가 데리고 갈 거다.” 힘이 더 세니까. 그리고 보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수령을 보위하는 그런... 딱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가요. 어떤 분들은 시당지도원으로 가시고, 당기관. (사례 3 구술녹취록, 79)

학교 졸업 후 첫 직업 배치뿐 아니라 이직 과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1980년대 후반 함경북도의 대도시에서 태어난 30대 후반의 남성인 사례 17은 2010년대 초에 평양의 명문대학 자연과학 계열 학과를 졸업했다. 사례 17은 어려서부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고 수재양성기관에서 교육받았지만, 대학 졸업 무렵 과학자로서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진로를 찾기 어려웠다. 관료로 출세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지 못한 과학자들에게는 “어두운 미래”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졸업 무렵에 북한 사회에 휴대전화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사례 17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휴대전화 앱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졸업과 동시에 평양의 중앙당 산하 연구소에 배치받았다. 그 연구소를 다니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홀어머니가 중병이 걸렸고 자신 이외에는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항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제기했고, 결국 고향의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로 이직할 수 있었다. 이직 후 새 직장에서 컴퓨터시스템을 1년 내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고 1년간 자유롭게 생활했다. 그는 능력 있는 과학자는 국가와 직장에서 다른 일을 하도록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연구자가 아닌 노동자가 되고자 했다. 과학

자로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술승급시험에서 몇 번 백지를 낸 끝에 노동자로 강직당했고, 이후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 사례 17은 새 직장에서도 출근하는 대신 돈을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웨딩영상제작, 컴퓨터판매, 앱 개발 판매 등의 일을 해서 큰돈을 벌었다.

사례 17과 같이 일부 청년들은 국가가 배치한 일자리에서 자신이 기피하는 노동이나 무보수에 가까운 노동을 하는 대신,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출근하지 않을 권리를 얻는다. 이른바 ‘8.3 노동’이 그것이다.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위축되고 생산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공장자동률이 하락하자 공장·기업소에서는 소속 노동자 중 일부에게 일정한 돈을 납부하는 대가로 출근하지 않고 사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였다. 공장·기업소에서는 이 ‘8.3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돈을 기업소 운영 자비에 활용하고 기업소에 할당된 국가적 동원 과제를 수행하고 공장 소속 노동자들의 생계를 일부 보조한다. (박영자 외 2016, 38, 140) 이러한 관행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성행하고 있으며, 청년들 또한 ‘8.3 노동’의 관행을 활용하여 원하지 않는 공식직장에서의 근로의무를 비공식부문에서 번 돈으로 대신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2는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회인프라 분야의 공식직장에 배치받았지만 출근은 하지 않았다. 대신 수산물 채취를 해서 한 달에 100달러, 북한돈 80만 원 정도를 벌었고, 그중 매월 13만 원씩을 직장에 납부하고 출근과 동원, 직장 내 조직 생활을 면제받았다. 사례 3은 법·보안 계통의 진로를 설정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했으나 대학 재학 중 집안에 사고가 생겨 그런 진로 희망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시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무조건 교직에 배치하라는 방침이 떨어져 본인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교직 발령을 받게 되었다. 교직을 원하지 않았던 사

례 3은 배치받은 학교에서 일하다가 1년 후 교사생활을 하기에 수월한 주변부의 작은 학교로 옮긴다. 그는 학교에 그는 내고 평상시에는 출근하지 않고 생활충화와 보충수업 정도만 하면서 지냈고, 송금 브로커 일을 해서 생활비와 학교에 낼 돈을 벌었다.

배치받은 직장에서 출근과 노동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뇌물’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돈을 내고 공식직장이 아닌 시장에서 노동할 자유를 사는 ‘뇌물’과 ‘편법’ 성격의 관행이 일정 정도는 경영권 차원의 인력관리로 제도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이른바 ‘5.30 담화’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종합화·정식화되었다(추석용 2022, 30). 이는 기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는 전략적이고 중요한 지표만 계획화하고, 나머지 지표들에 대해서는 기업소 차원에서 확대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이영훈 2022, 136). 계획권, 생산조직권, 가격제정권, 판매권, 재정관리권 등의 측면에서 기업에 일정 정도 자율권이 주어지게 되면서 기업의 인력, 재정관리 측면에서 출근과 노동의 의무를 기업소에 내는 돈과 교환하는 것이 더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오가는 협상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출근하지 않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배치받은 공식직장의 노동을 기피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사례 7은 배치받은 직장에서 일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노임도 적고 각종 건설에 동원되는 일이 많아 싫었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공식직장에는 무단결근을 했다. 공식직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라고 해서 퇴직 처리를 하고 무직상태에서 통제를 피해 다녔다. 앞 장의 생애사례에서 살펴

본 사례 16도 자신이 10년 넘게 다녔던 피복공장에 뇌물을 주거나 때로는 무단결근을 하면서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기도 하고, 임금이 높은 동중 공장에서 일공으로 일하기도 했다.

다. 공식직장과 시장 사이 다양한 일자리에서의 분투

청년들의 삶 이야기에서 공식직장과 시장 그리고 그사이 영역의 다양한 일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고 직업경력을 쌓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들의 분투와 삶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공식직장에서 일했던 사례도 여럿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상층 계층의 남성청년들은 군부대 산하기관의 무역회사나 건설회사, 또는 당 산하기관 근무를 선호했다(사례 9, 사례 11). 당과 군 산하의 힘 있는 직장들은 공식 직장일을 하면서 이와 연관되어 뇌물로 부수입을 올리거나 비공식 영역의 일을 병행하여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고, 잘하면 해외파견노동에 선발되어 북한 밖의 사회를 경험하고 돈도 벌 수 있다. 또한 군소속 회사들은 실제로는 회사일을 하면서 군복무경력이 인정되는 장점도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사례 13은 고급 중학교 졸업 후 입대하면서 권력 있는 친척을 통해 평양의 건설을 담당하는 부대로 배치받아 중장비운전을 맡게 되었다. 그는 군인 신분이었지만 운전사라는 직책을 활용해서 건설작업에서 급행료를 받거나 남는 시멘트와 휘발유를 팔고, 자재를 활용해서 집을 지어서 파는 방법으로 큰돈을 벌어 5년 만에 평양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제가 어릴 적에 엄마 따라서 밀수하는 것도 좀 되게 보고, 또 국경연선의 환경상 애들이 모이면 “누구는 무슨 장사한대. 얼마 벌었대.” 뭐 이런 소리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군]운전사로 나갔을 때 그때 기본 많이 벌

었는데, 제가 검사들하고 같이 공사할 때 그때 세멘트 창고를 제가 쥐고 있었거든요. 세멘트를 갖다가 집 지어서 그 세멘트 전문 받는 놈한테 “세멘트 공짜로 줄 테니까 내가 돈 주면 집 지어라.” 그래서 집 지어서 팔아먹고, 순 세멘트로만 또 팔아먹고, (중략) 그저 군생활 때는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다. 저희는 굴러다니면 돈이었어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65)

사례 13은 “직업이 없고 인맥이 없으면 돈 벌기가 진짜 까마득한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과 같이, 공식직장 중에서 직위를 활용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북한의 남성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다.

일반적으로 미혼의 여성 청년들은 공식직장보다 비공식 영역에서 장사로 당장 생계를 해결하고 결혼 이후 생계기반을 미리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학력이 높지 않고 장사할 자본도 없는 여성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노동강도가 센 생산직이나 서비스업 종에서 일하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기업소 중 상당수가 부실화되었지만, 국내 내수기반이 있거나 중국과 합영합작 또는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기업소 자체적으로 배급도 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공식화되면서 과거의 평균주의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노동에 따른 분배로 전환하였고, 기업소 자체 판단과 결정으로 노동보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금의 현실화와 업종별 차별화가 이루어졌다(이영훈 2022, 149-150). 면담 결과를 종합하면, 방직공장, 피복공장 등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부 여성 사업장의 경우, 야근과 철야작업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조건이 열악하지만, 일반적인 임금의 5배 이상인 수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 중 공식직장에서 받은 배급과 임금을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사례는 앞 장의 생애사례에서 살펴본 사례 16이다. 사례 16이 공식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월 3만 원 정도로, 생계비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일반 노동자 임금보다 몇 배 많았다. 그는 임금 이외에 매월 25kg 정도의 쌀과 부식물을 배급받았다. 이는 사례 16이 10년 넘는 기간 고된 노동을 견디도록 한 유인이 되었다.

중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사례 12도 고급중학교 졸업장을 받고 나서 취업할 때가 되자, 중국과 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수출용 피복공장 취업을 고민했다. 밤낮없이 고되게 일해야 하지만,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례 12는 고민 끝에 고된 노동보다는 임금은 조금 적어도 육체적으로 조금 덜 힘들고 ‘여성스러운’ 서비스직을 선택했다. 사례 12가 서비스 부문의 공식직장인 호텔에서 받은 임금은 월 25만 원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 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임금이 적고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부수입이 없는 공식직장은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예를 들어 사례 15는 2000년대 중후반에 6년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간호사는 공장노동이나 농사일에 비해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여자다운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미혼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조정아 외 2019, 170). 그러나 월급이 적고 부수입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간호사로 일하는 대부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다.

남성들과 미혼여성이 공식직장에 소속되어야 하는 데 비해, 기혼 여성은 공식직장을 퇴직한 후 ‘부양’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연계된 비공식부문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장마당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되었고, 여성들은 제도화된 시장을 매개로 합법, 비법의 경계를 오가며 분야별 물품을 도소

매하거나 중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조정아 외 2019, 188). 근래에는 전통적인 시장 매대 장사나 도소매업 이외에 국가에서 허가받은 상점이나 편의관리소가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점과 편의관리소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후 관리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상점은 시장 매대장사에 비해 매장과 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고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고 시간 활용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결혼 후 소매상점을 운영한 사례 15는 근래에는 장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점이 인기가 있어 상점허가권을 얻기 쉽지 않은데, 청년들은 “시대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서” 상점의 책임자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사례 14가 사진현상공으로 일했던 편의관리소도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사례 14는 이런 종류의 직업은 국가에서 허가를 받으면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일정한 액수만 나라에 바치면 나머지는 너네가 다 가지라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청년들은 “국가에 얼마만 한 수익을 제공하고 나는 나대로 돈을 버는” “조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입직 후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직업 경력을 쌓고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한다. 고학력의 상위계층 청년들은 자신과 가족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제력을 활용하여 직업경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비해, 별다른 사회적 자원이 없는 중하위계층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성실성, 신체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 앞장의 살펴본 사례 8의 생애사례에서는 이공계 대학 출신의 기술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의 직업 영역을 창출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고품질의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데 해당 분야 고등교육 전공자로서 기술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평양 대학의 동창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사례 8은 돈이나 학력을 염두에 두고 친구관계를 만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사업상 만나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모두 대학교 졸업자들이었다고 했다.

이에 비해, 하층 계층 출신으로 직업경로를 개발하는 데 학력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사례 12는 노력과 성실성으로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나갔다. 사례 12는 중등학령기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다가 고급중학교 졸업 연령이 되어 직장에 배치받게 되었다. 고민 끝에 호텔에 취업해서 식당 주방보조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다는 사실 때문에 직장 동료들의 눈총을 받았다. 그는 수습기간 중 생활총화 시간에 직장의 전체 구성원들 앞에 공식적으로 처음 나서게 되었는데, 중등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다 보니 어떻게 생활총화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직장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고 고민해서 생활총화문을 써서 사람들 앞에서 무사히 발표를 마쳤고, 그 결과 우려했던 것과 달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1년간 주방에서 일하다가 직무 변경 기회를 얻게 되자, 일이 힘들어 동료들이 기피하는 룸메이드를 자원했다. 그는 직장의 임금 수준이 다른 기업소보다 훨씬 높고, 팁과 같은 부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사밑천을 모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정해진 임금 이외에 소득을 창출하려고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했다. 중국 손님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고 독학으로 중국어를 익혔다. 평양에서 파견 나온 업계 선배로부터 당시 직장에서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던 미안(얼굴마사지) 기술을 전수받아 “직장 내 투잡”을 함으로써 부수입을 얻고 직장의 수익 개선에도 기여했다. 그는 설 새 없이 일했고, 직장 관리자들에게도 “회사에 돈이

되는 사람”이고, “쥐만큼 먹고 소처럼 일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가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주방에서 보조했는데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 뭔가 계속 물을 만져야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기술 같은 거 못 배우잖아요. 요리사들은 요리를 안 배워주니까. 그리고 어차피 호텔에서 일할 바에는 조금 사람들 보이는 데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방보조는 제일 안 보이는 구석이라서 조금 그때는 내가 뭔가 떨치고 나가야겠다.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걸 해서 떨치고 나가야지 하고 겨울에 미안을 배웠어요. (중략) 그래서 밤마다 그때 12시, 새벽 1시 때 언니 방에 몰래 가서 언니가 배워주면 수첩에 다 적고, 나를 해주고 언니 해주고, 손님 직접 하는 거기에 몰래 데려가서 하는 거 다 보여주고. 그 언니한테서 배웠거든요. 한 몇 달을 그렇게 몰래몰래. (사례 12 구술녹취록, 48-49)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 14가 취업과 이직을 하는 과정에도 경제적 능력이나 ‘배경’이 별로 없는 청년의 진로에 대한 고심과 분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진로 개척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많은 돈을 쓸 수 없었던 사례 14는 시내 지역의 사진관으로 이직하고자 ‘돌격노동 자원’이라는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사례 14에 따르면, 이것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국가나 직장에 “충성해야겠다는 마인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내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전략이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청년들의 분투는 공식노동과 비공식노동 영역을 넘나들면서 행해진다. 성실하게 공식직장 노동을 하는 청년들도 소득창출이나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공식노동 부문에서만 찾지는 않는다. 특히 하층 청년과 여성의 경우 시장활동 등 비공식부문의 노동을 선호한다.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는 공식직장을 그만두고

장사 등 시장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미혼일 때 다니던 공식부문의 직장을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고 비공식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37/} 이들의 사고에서 공식노동과 비공식부문 노동 사이의 경계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비공식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노동은 국가의 공식적 통제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 장에서 사례 4가 고급중학교 졸업 후 바다에서 생존의 위협받으며 강제노동을 했던 상황을 살펴보았다. 여성 청년들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사례 20은 김정일 사망 직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피복공장에 배치됐는데, 힘든 노동을 피해 돈을 내고 직장을 안 나가면서 부모님 장사를 도왔다. 그러다가 2018년에 지인으로부터 인근 도시에 있는 중국과의 합영공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해당하는 300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 두 명과 같이 그 사람을 따라나섰다. 사례 20과 친구들이 도착한 곳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젊은 여성 50여 명이 “수용소 같은” 공간에서 숙식하며 가내노동 형태로 가발을 만들고 있었다. 사례 20은 그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한 달을 일했지만, 관리자는 중국 대방에게 사기당했다는 핑계를 대며 한 달을 더 일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사례 20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서 임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37/ 북한 주민의 일자리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식일과 비공식일을 병행하는 복합일자리 종사집단은 다양한 하위그룹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 체제 변화에 따른 분화가능성이 가장 큰 일자리 집단이다(김화순 2012, 352). 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정치신분이 상층이나 중층인 경우 높았다. 비공식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일수록, 고졸일수록, 당원이 아닐수록, 토대가 적대계층일수록 높았다. 이중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연령이 감소할수록, 남성일수록, 고졸이 아닐수록, 당원일수록 토대가 적대계층이 아닐수록 높게 나타났다.(김화순 2013, 106)

두 사례 모두에서 노동력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모집책과 노동자들이 자의로 작업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감금장치가 있었고, 사례 4의 경우에는 강제노동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동원됐다. 이와 같은 비공식 영역의 노예노동이나 노동착취는 명백하게 불법이지만,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권력과 돈의 유착관계 속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대부분 사례에서 북한 청년들은 직장생활과 노동의 의미를 주로 돈을 버는 것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직업과 직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사례 7).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장경제와 돈의 위력을 체험했고 학교의 일상생활과 교우관계 속에서도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돈에 관심을 갖고 직업생활의 목표를 돈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들이 직장생활과 노동에 부여하는 또 다른 의미는 사회적 인정이다. 사례 12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뻐받고”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을 꼽았다. 사례 16이 피복공장에서 10년간 고된 노동을 감내했던 이유는 배급뿐 아니라 ‘준마치녀’라는 “이름 하나”이기도 했다. 그것은 청춘을 바쳐서 일한 자신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인정이었다.

라. 생존기술, 정보화 능력,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

북한의 청년들이 공식직장과 시장 사이의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하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직업능력이 기반이 된다. 시장경제와 연계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생존기술, 정보화 능력, 새로운 문화적 감각 등이 그것이다.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시장경제와 외부문화에 노출되어 시장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감각을 갖추었으며, 외국어와 정보통신기술 등 변

화하는 노동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청년들의 이러한 능력은 시장경제 확대, 정보화, 외부문화 유입 등에 따른 북한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와 연계되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교육과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환경의 청년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식직장이 아닌 비공식직장과 연계된 영역에서 생존기술을 활용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 사례 2는 고급중학교 재학 중 ‘잠수’라는 생존기술을 익혔고, 이를 활용해 수산물을 채취하여 중개상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했다. 사례 7은 변변치 않은 공식직업과 간헐 구역이라는 “그들 속에 있는 게 싫어서” 공식직장에서 도망쳐 친척들이 사는 시내로 나가 살면서 피복공장 봉제공으로 일했다. 그가 봉제공으로 일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것은 고급중학교 졸업 시기에 취업을 염두에 두고 배워두었던 재봉기술이었다. 사례 7은 재봉이라는 생존기술을 활용해 중국에서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이후 탈북을 시도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도 직업능력으로 외국어 능력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교육정책에서 ‘세계적 추세’와 ‘정보화시대’를 강조하면서 외국어교육과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해외노동인력 파견도 늘어나면서 외국어 능력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되었다. 청년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9, 사례 11은 대학에서 습득한 외국어능력이 ‘힘 있는 직장’ 취업과 해외 파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경우이고, 사례 12는 중국어를 독학으로 익혀 직장생활에 활용

한 경우이다. 이전에는 외국어대학 등 공식적인 교육기관 졸업생들이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업을 독점했다면, 지금은 독학이나 개인교습으로도 일정 정도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 정보화가 진전되고,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기치하에 IT 분야 인재양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컴퓨터 활용능력은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소양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들은 초중등학교에서 공식 교과로 컴퓨터를 배우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어려서부터 활용하므로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대 후반인 사례 3은 대학을 졸업한 또래들은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 게임도 즐기며, 서류작성 정도의 ‘초보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은 다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3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학교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조하고 수업에 컴퓨터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교사들도 연령대에 따라 컴퓨터 활용능력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 중앙에서 교수법 검열을 내려올 경우,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는 젊은 교원들이 파워포인트로 수업자료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든 교원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세대 간 컴퓨터 활용능력의 차이는 국제기구의 통계자료에도 나타나 있다. 2017년에 실시된 유니세프의 MICs 조사에 따르면, 파일·폴더 복사, 첨부문서 포함 이메일, 소프트웨어 검색·설치·구성,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성 등 9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지닌 주민 비중은 북한 남성의 경우 41.0%, 여성의 경우 30.1%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 중 기성세대는 40-44세 31.0%, 45-49세 26.8%로 전체 인구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청년세대는 15-19세 63.7%, 20-24세 50.8%로, 절반 이상의 청년세대가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는 40-44세 18.2%, 45-49세 11.6%로 매우 낮은 데 비해, 청년세대는 15-19세 61.6%, 20-24세 43.5%로 기성세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별에 따른 정보통신 활용능력의 차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8, 34-35)

청년들의 정보통신 활용능력이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하고 있는 교육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생애사례를 살펴본 사례 14는 고급중학교 정보기술 과목시간을 통해 갖게 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 직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직 북한 산업 전반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년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은 변화하는 북한 사회에서 공식영역과 시장부문을 망라하여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성공하는 데 유리한 자산이 된다.

정보통신 분야의 이공계대학 졸업자들은 비공식부문에서 ‘창업’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기도 한다. 정보통신 관련 업종은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부문인데, 민간 영역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에는 국가와 시장 영역의 다양한 행위자가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국가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거친 후, 교육·연구기관과 기업소 명의를 빌려 국영 플랫폼을 통해 출시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이지순·최선경 2021, 70). ‘정보기술교류소’라는 공인된 기관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지만(이지순·최선경 2021, 68),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은 판매소나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사례 17과 같이,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갖춘 청년들은 공식영역과 비공식영역, 합법

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판매·수리, 애플리케이션 개발·판매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외국어능력, 컴퓨터활용능력과 같은 지식,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유행하는 문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흐름을 창출해가는 감각과 문화적 감수성 면에서도 기성세대와 차별성을 지닌다. 중앙대학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했던 사례 17은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됐다는 뉴스를 보고 북한도 머지않아 e스포츠협회가 생기고 e스포츠가 체육 종목이 되면 경기장 근처에서 합법적으로 PC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사업구상을 하였다.

제가 좀 생각이 앞서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북한도 e스포츠협회가 생기면 e스포츠가 체육 종목이 되잖아요. 그럼 e스포츠라는 게 컴퓨터게임하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OO경기장이 이만큼 원형경기장 주변에 봉사시설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e스포츠를 하면 내가 합법적으로 PC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건물을 샀던 거죠. (중략)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갔고 문화가 앞선 사람 입장에서 좀 쉽거든요. (사례 17 구술녹취록, 34)

2010년대 중반, 접경지역 대도시에서 웨딩촬영업체를 운영했던 사례 8이 당시 평양의 업계에까지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차별화된’ 영상물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사례 8은 자신의 성공비결을 남한과 외국영상물을 많이 보다 보니 “본능적으로 좋은 각도와 앵글”을 잡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감각적인 사진과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청년들은 고급중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제대 후 국가의 직업배치를 통해 공식경제 영역에서

직장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업과 직장 선택의 여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들은 공식직장과 비공식경제 영역을 횡단하며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다양한 직업경력을 쌓고, 더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일부 청년들은 중등학교 재학 시기에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경제 영역에서 노동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편, 북한 청년들은 직업진로를 개척하고 경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존 기술, 정보화 능력, 새로운 문화적 감각 등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 특히 청년기 경험과 행위 지향,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북한 청년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후 노동신문과 소설, 법령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의 특징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 당국의 공식 정책과 의지를 선전하는 노동신문에서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청년상을 분석하고, 북한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청년상과 청년들의 태도, 의식 변화와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과 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생애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엘리트 계층의 남성, 고학력 엘리트 여성, 노동 여성, 농어촌의 남성 청년, 중하층 계층 출신으로 공식·비공식 시장경제 영역에서 활동한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청년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과 자신의 생애경험에 대한 이들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의 생애사 속에 나타나는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의 특징을 부모의 기대와 자녀교육,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학교경험과 진로, 일터와 노동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부모의 기대와 자녀교육 측면에서 청년세대의 부모들은 국가에 의한 직장배치와 생계 보장이 이루어졌던 경제난

이전 시기와 달리, 부모 자신의 권력, 인맥, 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녀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발전을 뒷받침한다. 결국 청년들의 진로와 발전 가능성은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이 부모의 권력과 경제력에 좌우되게 되었다. 북한 청년들은 시장화가 진행된 성장기에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과는 다른 현실 사회의 모습과 외부 영상물을 통해 ‘이중 사회화’를 거친다.

젠더관계와 섹슈얼리티 측면에서는 외부 영상물이 북한 청년들의 일상과 섹슈얼리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남한 영상물이 재현하는 젠더관계는 북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역할 모델로 작동하며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청년 문화를 구성하는 양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외형적인 태도를 넘어서 질적인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청년들은 대체로 성과 결혼에 대해 부모세대에 비해 개방적인 경향을 보인다.

학교경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상교육 체제하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체화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학교 운영에 드는 비용을 실제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재의 북한 교육 체제하에서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학교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돈의 가치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집단주의와 당과 수령에 대한 헌신과 복종을 교육받지만, 그것을 체화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복종하거나 개인의 이해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동과 직업 선택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년들은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직업 배치라는 제도와 관행을 횡단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직업과 직장 선택의 여지를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공식직장과 비공식 경제활동 영역을 넘나들면서 생존을 모색하고 진로를 개척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시장

경제와 연계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생존기술, 정보화 능력, 새로운 문화적 감각 등 기성세대에게는 부족한 새로운 직업능력이 활용된다.

이와 같이 북한 청년들의 생애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들 청년세대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님을 발견하였다. 이는 첫째, 국가의 기획으로부터 독립된 개인과 가족의 인생 기획, 둘째, 국가와 개인 간의 정치사상적 긴장, 셋째, 불균등한 모빌리티, 넷째,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수행을 통한 경로 창출이라는 측면이다.

먼저, 북한의 청년들에게 개인의 삶과 미래 진로는 더 이상 국가가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개인이 기획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개인이 기획하는 미래에서 돈은 선택의 여지를 넓히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40대 중반-60대 초반에 이른 부모세대는 고난의 행군기에 20-30대를 보내고, 2000년대 자생적 시장화의 주역으로 활동한 세대이다. 부모세대는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고 무상교육, 무상의료제도를 유지했던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이들은 경제난 이전 시기까지 자신의 생존과 진로를 국가에 의탁했고, 국가의 돌봄의 대가로 국가와 당, 수령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교육받고 이를 실행하였다. 청년세대가 태어나 성장했던 시기에는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의 신화도 붕괴되었다. 국가는 더 이상 주민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게 되었고, 가족과 개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부모세대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만들어내고 자력갱생으로 생존방식을 터득하였다면, 그 자녀인 청년들은 계획경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시장경제가 확대되는 시기에 성장하

였고, 국가보다 부모의 능력과 돌봄에 의지하며 자랐다. 학교교육으로 개인의 삶의 방식을 주조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배치하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면서 자신의 생계를 영위하고 발전을 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가족과 청년들 스스로의 과업이 되었다. 청년들에게 국가는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정치적 차별과 사회문화적 규제와 경제적 수탈의 주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경제 활동을 단속해 뇌물을 갈취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옷차림과 말투를 통제하고, 여가를 위해 즐기는 외부 영상물 콘텐츠를 단속하고 차별하는 국가를 청년들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가족과 개인이 청년 개인의 삶을 기획하는 시대에 부모의 경제력은 청년들의 진로와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권력과 경제력이 있는 중상층 부모들은 이른 시기부터 자녀의 인생을 설계한다. 소학교 때부터 진로를 정하고 비법행위로 간주되는 사교육을 시켜 중앙대학에 진학시킨다. 군대에서도 좋은 보직을 받도록 뇌물을 주고, 편하게 군대생활을 하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한다. 경제력이 있지만 ‘성분’이 좋지 않아 정치적 출세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직 ‘자격증’을 갖추도록 뒷받침한다. 부모가 탈북한 후에 송금을 통해 한국에서 북한으로 자본을 이동시켜 자녀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권력과 경제력이 모두 없는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자원이 없는 청년들은 중등학령기 시절부터 노동이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각자도생한다. 국가를 대신하여 자신의 삶을 기획해나가는 데 있어 돈은 중상계층 청년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되고 하층 청년들에게는 생명줄이 된다.

둘째, 청년세대는 국가와 개인 간의 정치사상적 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전 세대가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여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세대라면, 현재의 청년세대는 “옛날의 순도 100% 충성심”을 지닌 일부 친구들을 “석기”로 여기고, “당이 먼저고 원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몸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세대이다. 청년세대는 당과 국가에 무조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거나 때로는 형식적인 복종에 그치며, 그럼으로써 국가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

청년세대의 이러한 특성은 부모의 양육, 학교교육, 사회적 경험 등 이들의 생애경험과 관련된다.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의 통제력이 완화되었고, 이는 기성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그러나 청년세대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를 학교교육체계와 더불어 공교육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능이 일정 정도 와해되었던 ‘고난의 행군기’ 또는 시장경제와 자본이 국가의 권력을 상쇄하는 실질적 권력으로 등장한 2000년대 이후 시장화 시기에 보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 차이가 있다. 기성세대에게 학교교육을 통해 부과되었던 강력한 통치 이데올로기는 청년세대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의 공교육체계, 신념과 규율 형성 체계에 잘 편입된 학생들도 있으나, 정치사상적 통제의 망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된 채 이데올로기 및 신념체계 형성의 공백 또는 치환을 경험하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국가에 대한 청년세대의 생각과 태도는 이중적이다. 이들은 국가보다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에 우선하여 개인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끊임 없이 표현해야 한다. “내 몸이 먼저”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규범을 위반할 때 가해지는 물리적, 사법적

제재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학교와 직장, 각종 사회단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의례들 때문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청년세대가 이와 같은 의례들을 행하는 방식이다. 중등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사례 12는 직장 취업 후 처음으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생활총화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을 가졌다. 그 두려움은 생활총화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만 문제가 없는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정’의 문제였다. 사례 12는 첫 직장에서 “일자무식이라고 소문이 나서” 수습기간이 길었는데, 생활총화라는 통과의례를 정해진 절차대로 무사히 완수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정을 받고 직장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소련의 마지막 세대를 연구한 알렉세이 유르차크(A. Yurchak)이 체제전환 이전 시기 소련의 청년문화를 연구하면서 ‘스보이’(정상적인 사람)라고 명명했던 현상을 떠오르게 한다. 유르차크에 따르면, 후기사회주의 시기에 소련의 학교와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권위적 담론과 의례화된 행위들의 수행적 차원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행위자를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인’ 소비에트인으로 재생산함으로써 행위자가 ‘순전한 형식’을 통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거나 다른 유형의 일과 의미에 관여하도록 허용한다(알렉세이 유르차크 저·김수환 역 2019, 55-56). 권위적 형식의 준수로 보장되는 ‘의미 있는 일’의 생산은 사회주의의 가치와 윤리들을 반드시 지지할 필요도, 그렇다고 반대할 필요도 없는 행위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단지 지배적 규범과 법칙들에 대한 저항으로 환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알렉세이 유르차크 저·김수환 역 2019, 534). 유르차크는 소련의 마지막 세대가 담론의 수사적 장의 안쪽과 바깥쪽에 동시에 자리하면서 그 담론에 대한 단순한 지

지와 거부 모두를 회피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러한 수행적 전환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가 구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알렉세이 유르차 저·김수환 역 2019, 55, 537).

사례 12의 일화가 시사하듯, 생활총화나 정치사상교양과 같은 정치적 의례에 참석하는 북한 청년들의 태도는 대부분 자신의 생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배양과는 거리가 있으며, 진정한 충성심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도 아니다. 사례 2의 말처럼 “100삽을 뜨는데, 한 삽 뜨고 놀다가 마지막에 한 삽 더 뜨고 엄청 일한 것처럼” 포장하는 “102삽을 잘 뜨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이는 사회와 조직의 구성원, 즉 ‘우리’가 되기 위해 ‘옆에서 보는 눈’을 의식해서 적정한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관례를 따라 수행하는 의례화된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형식적 수행이다. 이 점에서 유르차이 소련의 마지막 세대에게서 관찰한 ‘수행적 전환’의 일면을 북한 청년 세대에게서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에 대한 순응과 저항의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국가와 수령에 대한 청년들의 마음을 완전히 형식적인 것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교실에 걸린 수령들의 ‘초상화 정성관리’에는 미온적이면서도, “신적인 존재”인 김정일을 만날 수 있는 ‘1호 행사’에 참여한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례 1이나, 스스로 “빨간동맹원”이라고 할 정도로 당과 국가에 충실해서 대학의 사상교양 시간에 북한 기록영화를 “눈이 새빨개져서” 보는 동시에 당국이 금지하는 남한 드라마를 즐겨보면서도 “상반되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는 사례 9처럼, 이들 안에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마음과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놓는 마음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면서 때로는 일치하고 때로는 충돌한다.

청년들이 국가와 당, 수령에게 보여주는 충성과 헌신은 기성세대처럼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합된 것이다. 김정은이 참석하는 ‘1호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고 직장 배치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다. 국가와 개인의 욕구는 때로는 완벽한 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허용하는 시장경제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모자를 쓰고 내용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그런 것이다. 공식직장이 아닌 시장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출근과 조직생활의 의무를 방기하고 돈으로 대신하는 행위인 ‘8.3 노동’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충족하려는 행위이지만, ‘8.3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수익금이 공식직장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를 위한 행위로 해석되기도 한다. 청년들의 마음 속에서 국가와 개인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셋째,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와 더불어 사람, 사물, 정보의 이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빌리티의 대전환’(mobility turn)을 맞았고,^{38/} 북한 청년들의 모빌리티도 증가하였다. ‘모빌리티의 대전환’은 모든 북한 청년의 지리적 이동 가능성과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에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며, 거주지역, 젠더, 계층에 따라 불균등한 모빌리티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시장화가 더불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교통체계 확충

38/ 존 어리(John Urry)는 20세기에는 네트워크 컴퓨터, 이동전화, 저가 항공, 고속철도 등의 교통·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21세기에는 이러한 모빌리티가 상호의존적이고 디지털화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꼽으며, 이러한 변화를 ‘모빌리티의 대전환’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모빌리티의 대전환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사람뿐 아니라 사물, 자본, 정보가 어떻게 이동하며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변화하는 사회상을 탐구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이 모빌리티 시스템 안에서 비슷한 스테이지를 경험하며 전환하지는 않는다.

과 통신망 구축 등으로 모빌리티 시스템이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써비차와 택시 등 교통수단이 증가하였고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였다. 해외 드라마와 영화, 서적 등이 유입되어 전자 파일의 형태로 이동되고, 돈주들의 활약으로 자본의 이동이 이전 세대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해외파견노동자와 탈북민과 북한 거주 가족 간의 네트워크로 외화와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 사회로 활발히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청년들의 모빌리티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혼란의 시기 또는 재난의 시기에 모빌리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편리함을 기회로 활용하는 반면, 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안전망이 없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며 새로운 형태의 착취가 자리 잡는 경로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미미 셸러 저·최영석 역 2019, 23).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도 모빌리티 권력이 있거나 모빌리티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은 시장화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지리적·사회적 상층 이동성을 만들어낸다.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국가 배치로 직업이 정해지고 성분의 제약을 뛰어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모빌리티의 변화는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모든 북한 청년에게 동일하게 열리지는 않았다. 배급과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국가적 안전망이 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빌리티 권력이 없는 청년들은 쉽게 ‘부동의 상태’(immobile status)가 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타 국가와 비교할 북한 사회의 모빌리티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차원의 강한 이동성 통제이다. 북한은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정보, 자본, 사물의 유입과 순환을 철저히 통제하며, 이를 체제 유지의 필수적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청년들은 통제에 순응하기도 하

지만 통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안하기도 한다. 국가는 청년 등의 행위자들이 통제를 벗어나 구축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양식을 찾아 다시 규제하면서 이동성과 통제기제 간의 긴장관계가 높아진다(미미 셸러 저·최영석 역 2019, 36).^{39/}

북한 청년들은 자신을 속박하는 국가의 이동성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지리적 이동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거나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지리적 이동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이동 잠재력이 있는 집단은 국경 지역 거주민이다. 이들은 직접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 또는 무역을 하거나,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외환을 거래하여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북한 주민과 한국에 있는 가족 간의 국제전화를 가능하도록 하고, 돈주와 브로커가 연결된 송금 체제를 생성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기반을 형성·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경을 둘러싼 물리적 이동성을 자본 축적의 도구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외부문화나 정보를 다른 지역보다 손쉽게 받아들이며 직업상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열기도 한다.

북한 청년들은 지리적 이동 가능성을 사회적 이동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해외 이주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는 먼저 해외에 갔다 들어온 이들의 입소문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외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외국에 대한 강한 동경과 외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향상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39/ 모빌리티는 부동성(immobility)과 항상 연결되며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둘은 이항대립이 아니라 역동적인 동시적 실천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합법적 또는 비법적으로라도 국외로 이동하여 삶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대다수 청년은 국내에서 지리적 이동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교통수단이 다양화되고 발전되면서 북한 내 지리적 이동성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국경연선을 비롯한 특정 지역으로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약한다. 특히, 국가가 평양, 나진 등으로의 이주 및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경제 수준의 차가 크기 때문에^{40/} 청년들은 도시로의 이동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강한 기대에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리적 이동을 꾀한다. 도시 중에서도 ‘북한의 심장’이라 여기는 평양에 거주할 기회를 잡고자 친척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평양으로 군대를 나가기도 하고, 중앙대학 중에서도 졸업 후 평양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여 진학하기도 하며, 부모님의 경제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평양에 거주권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해 평양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중심으로의 이동은 대부분 네트워크와 경제력이 뒷받침될 때 시도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시대에 청년들의 전반적인 모빌리티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특정 공간에 속박되어 벗어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

40/ 아래 표에서 보듯이, 평양 가구 중 경제력 측면에서 전국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0.4%로 매우 낮으며, 상위 40%에 해당하는 가구는 86.2%로 매우 높다. 즉,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차이도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 가구별 부의 인덱스

(단위: %)

	20% 하층	40% 중층	40% 상층	합계
전체	20.0	40.0	20.0	100.0
도시	6.4	33.6	60.0	100.0
농촌	41.2	50.0	8.8	100.0
평양	0.4	13.4	86.2	100.0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8, 19 참고하여 번역 및 재구성

‘8.3 노동’의 대가로 납부할 돈이 없는 청년들은 배급이나 월급을 받지 못해도 공식직장에 출근해야 하며, 사례 16과 같은 만가동 공장 노동자나 사례 17과 같은 국가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직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북한 사회에서 장소에 속박되는 강제를 가장 강력하게 받는 계층은 농장원이다. 북한 당국은 농촌 경제 위축을 막고자 농장원의 거주지 이동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도시 거주 기혼 여성에게는 장사 등 시장경제활동이 허용되지만 여성 농장원은 농사일을 벗어날 수 없고, 농촌 거주 여성청년들은 결혼으로 농촌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모빌리티의 증가가 반드시 자유의 증진,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식량이라도 얻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북한 청년들의 이동은 이들을 착취당하기 쉬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기도 한다.

즉, 북한 사회의 ‘모빌리티 대전환’은 사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청년들에게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국가 안 전망이 약해진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청년들은 ‘부동성’의 상태에 놓이게 하거나 위험한 이동을 하게 만든다. 김정은 정권하의 시장 확대와 국가 통제 강화라는 이중적 구조는 청년들의 모빌리티를 확대하는 동시에 불균등하게 만들고 있다.

넷째, 북한의 청년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열어가고 동시에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합법과 불법이 공존하고 그 구분이 때로는 모호한 영역에서 당국의 통제를 피해가며 ‘비법’을 강행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비단 청년세대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시장 경제가 확대되는 과정은 대부분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쳤다고 해도 지

나친 말이 아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과 비법을 강행하고, 기존과 같이 국가 공식경제 영역에서 주민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국가는 주민들의 비법행위를 묵인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경제적 비법행위가 제도적으로 흡수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8.3 노동’ 제도는 기존의 공장체제를 나가는 출구가 되었는데, 2002년 7.1조치 전에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시장활동이 비난받아야 할 비사회주의의 행동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7.1조치 이후에 노동자들은 좀 더 드러내놓고 시장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김화순 2018, 186).

초기시장화의 주역인 청년들의 부모세대가 생존을 위한 비법행위로 북한식 시장경제를 태동시킨 세대라면, 현재 북한의 청년세대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선포된 김정은 체제하 기업의 자율성이 부분적으로 확장된 제도적 토대 위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는 교육과 정보화 환경의 발전으로 취득한 정보화 능력과 불법적인 외국 영상물 시청으로 길러진 문화적 감각을 착상한 채 시장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세대이다. 이 연구에서 만난 청년들 중 대다수가 공식 또는 비공식 시장경제영역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들에게 공식과 비공식 영역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41/} 이들은 국가가 배

41/ 선행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공식 경제부문에 속하는 국영경제, 공식 시장경제와 비공식 경제부문에 속하는 비공식 시장경제, 비공식 국영경제, 가계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조한범 외 2016, 16).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차이점은 경제활동이 국가에 의해서 공식화·제도화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은 국가의 계획 범주에서 벗어나 공적 이익이 아닌 기관의 이익이나 사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띠고 있다. 개인과 기관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 관리하는 종합시장이나 합작회사 등은 공식시장경제에 속한다.(조한범 외 2016, 17-19) 밀수, 비밀공장, 불법상품 거래, 다양한 노동력시장과 같은 비공식 시장경제는 국가의 관리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철저하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움직인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관리자들에게 상납될 뿐 국가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 비공식 국영경제는 국영기업소 명의를 빌린 수익창출과 같이 ‘돈주’라고 불리는 신종자본가들이 공식 부문에 대한 사적인 투자활동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조한범 외 2016, 20-21)

치한,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의 선택이 개입된 공식영역 내의 직업의 외피를 쓰고 비공식 시장경제영역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공식과 비공식 시장경제영역에서 동시에 활동하기도 하고, 두 영역을 오가며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42/} 부모세대가 경제난 시기를 살아내려고 맨몸으로 부딪혀서 시장화의 토대를 만들었다면, 청년세대는 확대되고 부분적으로 제도화된 시장경제 영역 안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구성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도시엔 건설되는 신축건물이나 아파트단지엔 조성된 상점가가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점뿐 아니라 ‘편의봉사소’로 불리는 서비스업도 주로 국가가 개인에게 운영권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적극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사례 14, 사례 15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의 매대에 앉아 노동집약적 장사를 하는 부모세대와 달리 청년세대는 시대를 선도하는 감각과 직업기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경제 영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이와 같은 일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42/ 예를 들어 사례 2는 국영경제부문 기업소에 배치되었지만 ‘8.3 노동’으로 실제로는 비공식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만 달러 모으는 목표’를 세우고 “돈에 대해서 전심을 다했다.” 사례 3 역시 국영경제부문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꿈이 좌절되자, 공식직장에는 “적만 걸어놓고” 비공식 시장경제영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였다. 사례 10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무역회사 지도원으로 공식 시장경제활동을 했지만, 동시에 밀수 등 비공식 시장경제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부를 축적했다. 사례 16은 국영경제부문에서 일하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공식시장경제 부문의 기업소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비공식 시장경제영역에서 개인식당을 차리거나 휴대전화 장사를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사례 8과 사례 17은 뇌물을 써서 국영경제부문의 일을 면제받고 비공식 시장경제활동영역에서 큰 수익을 창출하였고, 사례 7은 다른 도시로 가는 방식으로 공식직장을 빠져나와 비공식 시장경제활동 영역에서 개인 하청노동을 하였다. 사례 14와 사례 15는 김정은 집권 이후 확장된 공식 시장경제활동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과 상업 활동에 뛰어 들었다.

한편, 북한의 청년세대에게 당국의 단속과 통제에 걸리지 않고 비법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1990년대 이전에는 관료들 사이에 부패의 형태로 존재했던 뇌물공여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반주민에게 관행으로 일상화되었다. 빠른 일처리, 더 좋은 기회 포착, 비법행위 목인 등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 일종의 ‘생존기술’로 인식되며 뇌물을 적절하게 바쳐 일을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북한 청년들은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각종 비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거부할 능력을 갖춘 세대이다.^{43/}

불법적인 외국 영상물 시청으로 북한 바깥의 사회를 인지하고 비교의 프레임을 갖게 된 이들은 비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 시청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유행을 만들어내고, 이는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새로운 직업 창출로 이어진다. 사례 8의 생애사례에도 나타나 있듯이, 2010년대부터 대도시 부유층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웨딩영상 촬영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비법적 활동으로 구축된 청년들의 영역은 언제나 당국에 의한 통제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하다. 웨딩영상 촬영 역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서 규정된 16가지 항목 중 하나인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43/ 예를 들어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 17은 대학 졸업 후 어머니의 외병을 핑계로 평양에서 고향으로 이직하였고, 자신의 과학기술 능력을 활용하여 직장에 필요한 일을 해주는 대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공식직장에 긴박돼 있어야 하는 연구자 대신 노동자가 되기 위해 기술시험 낙제라는 편법을 사용했고, 결국 ‘8.3 노동자’가 되어 공식직장에 돈을 납부하고 비공식 시장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여 큰돈을 벌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에서 볼 때는 경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독재정권하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개인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면 기성 세대와는 다른 차원의 모빌리티와 역동성을 지니며 불법과 비법의 회색지대에서 다양한 수행으로 경제와 문화적 영역에서 새로운 실천을 해내는 청년 주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김일성 체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장경제를 몸으로 겪으며 경쟁한 세대이다. 사회주의적 대가정과 거리를 두며 ‘말랑한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을 꿈꾸며, 체제이념을 신봉하는 ‘석기’들을 조롱하듯이 부모세대의 가부장적인 성적 엄숙주의를 무화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물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으나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외부와 접속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세대이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의 이러한 특징은 북한 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러한 청년세대의 특징이 정치체제의 변화와 직결되면서 체제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청년세대는 외부세계를 엿봄으로써 다른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장하였고 자신이 사는 사회를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특징이 개인의 선택권 확대, 불평등 감소,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견인하며 사회적 개혁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개혁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체제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권력의 통제로 이러한 수행이 체제 변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체제재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해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회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 주체가 되는 집단이 청년들이 될 것이다. 그 방향성은 국가자본이 주민들을 더욱 압도하는 체계가 될 것인데, 청년들은 이를 통해 자아 실현과 개인적 성취의 기회를 포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정치체제의 본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전망된다. 이러한 결론은 북한의 ‘사이세대’는 “북한 사회의 이중구조 내에 안주하면서 그 밀도를 강화하는 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선행연구(김성경 외 2015, 183)의 주장과도 결을 같이하는 것이다.

다만, 예기치 못한 외부적 상황이나 사회적 변동이 발생할 때 청년 세대의 특징이 체제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는 소련의 사례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유르차은 소련의 마지막 세대에서 나타났던 수행적 전환의 존재방식과 문화를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권위적 담론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으로 보았다. 페레스트로이카로 권위적 담론이 붕괴함으로써 수행적 전환의 고유한 조건이 손상되었고, 이것이 시스템의 급격한 내파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알렉세이 유르차 저·김수환 역 2019, 546). 소련의 체제전환 사례는 북한 청년세대의 특징이 일상적 상황에서는 현재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국내외적인 정치적 이벤트 발생으로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동이 초래될 경우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곽차섭 편·최재호·김동원·강문형·최승훈 역. 2007. 『미시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 국가정보원. 2023. 『북한법령집 上, 下』. 서울: 국가정보원.
- 국립통일교육원. 2023. 『2023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 김성경·노귀남·오유석·최봉대. 2015.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창원: 경남대학교
출판부.
- 리희찬. 2018.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 파주: 아시아.
- 미미 셸러 저·최영석 역. 2019. 『모빌리티 정의: 왜 이동의 정치학인가?』.
서울: 앨피.
- 박영자. 2017. 『북한 여자: 탄생과 굴곡의 70년사』. 서울: 앨피.
- 박영자·이금순·최지영·김화순·조영주·현인에. 2021. 『북한의 성·재
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서울: 통일연구원.
- 박영자·조정아·홍제환·현인에·김보근. 2016.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서울: 통일연구원.
- 신영철. 2016. 『청년동맹 및 소년단사업방법』. 원산: 교육도서출판사.
- 알렉세이 유르차프 저·김수환 역. 2019.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서울: 문화과지성사.
- 올리케 유라이트·미하엘 빌트 엮음·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2014.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서울: 한울
- 이윤진·김문정·김자연·황나미. 2021.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육아』. 서울: 통일연구원.

- 이지순·최선경. 2022.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서울: 통일연구원.
- 정은미·정은이·변혁문·한승대. 2021.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 2005.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 서울: 통일
연구원.
-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2015.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이지순·이희영. 2019.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이춘근·엄현숙. 2020.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2013.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 조한범·임강택·양문수·이석기. 2016.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
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존 어리 저·김태환 옮김. 2022. 『모빌리티』. 서울: 앨피.
- 카를로 진즈부르크·카를로 포니 저·김정하 외 옮김. 2007. 『치즈와
구더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2. 논문

- 김병연·김지수. 2020.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조건과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4권 1호:
175-205.
- 김성수. 2012. “김정은 시대 초의 북한문학 동향: 2010~2012년 『조선
문학』, 『문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0호:
481-531.

- _____. 2013. “선군(先軍)’과 ‘민생’ 사이: 김정은 시대 초(2012-2013)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 문학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53호: 410-440.
- _____. 2014. “청년 지도자의 신화 만들기: 김정은 수령 형상 소설 비판.” 『대동문화연구』 제86집: 485-516.
- _____. 2022. “천리마에서 만리마로: 김정은 시대 11년간의 문학.” 『반교어문연구』 62호: 233-264.
- 김유연. 2014. “북한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순. 2012. “북한주민의 일자리유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321-357.
- _____. 2013.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22권 1호: 79-112.
- _____. 2018. “생존의 정치: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평화연구』 26권 1호: 141-207.
- 김화순·안지영·함연희. 2020. “첫 직장과 결혼: 북한 여성의 직장진출과 진로분화.” 『통일인문학』 84권: 183-222.
- 김화순·최봉대. 2022. “1980년대 북한 정치신분제에서 세대 간 지위 세습과 성취기제.” 『현대북한연구』 25권 3호: 8-53.
- 박영자. 2023a. “북한 청년 군 입대 탄원,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통일』 199권: 38-43.
- _____. 2023b. “‘평양문화어보호법’ 통해 본 북한 내 한류 실태.” 『평화통일』 202권: 38-41.
- 박희진. 2023. “북한의 농촌공간변화와 ‘국가-농장원’의 행위전략 연구.” 『도시인문학연구』 15권 1호: 131-160.
- 오태호. 2013. “김정은 시대 북한 단편소설의 향방- ‘김정일 애국주의’의 추구하고 ‘최첨단 시대’의 돌파.” 『국제한인문학연구』 12호: 160-196.

- _____.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고찰— 사회주의적 이상화 현실의 균열적 독해.” 『인문학연구』 38호: 147-176.
- _____. 2020. “전쟁과 평화의 변곡점, 1등주의의 지향과 경쟁 담론의 형상화— 2018년 『조선문학』을 통해 본 북한 문학의 변화 양상.” 『상허학보』 58권: 307-338.
- 이성희·최경원. 2020. “북한 의무교육체제와 정치교육 변화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8집 4호: 93-118.
- 이영훈. 202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의 북한 기업소의 경영활동 분석: M. Porter의 Value Chain 모형 적용.” 『현대북한연구』 25권 2호: 130-181.
- 이향규. 2010. “학교교육의 팽창과 교육개혁.”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97-129. 서울: 교육과학사.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집 3호: 120-148.
- 장휘숙. 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권 2호: 1-17.
- 조정아. 2007.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7권 4호: 109-131.
- _____. 2008.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 과제와 접근방법.” 『현대북한연구』 11권 3호: 230-271.
- _____. 2014.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 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23권 2호: 177-206.
- 추석용. 2022.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과 특징.” 『현대북한연구』 18권 1호: 5-50.

홍민. 2004. “[북한 리포트 -북한 사회를 읽는 12가지 풍경<8>] ‘구명수’의 귀재들- 북한의 뇌물과 연줄망의 정치경제.” 『북한』 393호: 153-159.

3. 북한 자료

- 최은옥. 2019. 『김정은시대의 조선청년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 김영희. 2013.11. 「붉은 감」. 『문학신문』.
- 서청송. 2014.6. 「영원할 나의 수업」. 『조선문학』.
- _____. 2019.1. 「기폭에 빛나는 별」. 『조선문학』.
- 엄호삼. 2012.12. 「꽃피는 시절에」. 『조선문학』.
- 오광철. 2015.2. 「보습산」. 『조선문학』.
- 렴예성. 2018.3. 「사랑하노라」. 『조선문학』.
- 조훈일. 2020.1. 「흰눈치녀」. 『조선문학』.
- 홍남수. 2015.11. 「세대의 임무」. 『조선문학』.
- 『로동신문』. 2014.6.12.; 2014.8.13.; 2016.8.29.; 2021.4.30.; 2021.8.20.3.; 2022.9.13.; 2023.3.24.; 2023.5.2.; 2023.5.4.
- 『조선중앙통신』. 2022.2.1.

4. 기타 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2018.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https://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검색일: 2023.5.31.).
- SPN 서울평양뉴스. 2023.3.22.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92> (검색일: 2023.7.5.).
- _____. 2023.6.19. “북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전문.”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11> (검색일: 2023.7.5.).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42> (검색일: 2023.9.11.).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한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한·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체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대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합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하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해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흥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통일연구원



